

영도 문화도시 문화인력 성장 관점으로 본 임팩트 측정 연구 보고서

2024. 11. 30.



영도문화도시센터

영도 문화도시 문화인력 성장 관점으로 본
임팩트 측정 연구 보고서

2024. 11. 30.

제 출 문

영도문화도시지원센터 귀하

본 연구물을

『영도 문화도시 문화인력 성장 관점으로 본 임팩트 측정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1월 30일

(주)문화디자인자리 대표 최혜자

연구에 참여한 분들

주관기관 (주)문화디자인자리

책임 연구

최혜자 (주)문화디자인자리 대표

공동 연구

김선애 다정해도 대표

이경민 (주)문화디자인자리 객원연구원

연구 보조

추일범 (주)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문성희 (주)문화디자인자리 사업팀장

유리나 (주)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그룹인터뷰 및 개별인터뷰 참여자

김미정	모드니공방
김성윤	웹진 다리너머영도 시민 기자단, 영도문화도시센터 협렵크루
김순자	예술마을PD
김유화	콘서트하우스 공간
김정미	예모팩토리 대표
박태양	예술마을PD
배영건	예술마을PD, 아포지테라스 대표
서윤미	함께키움 대표
윤지현	파란나비공방 대표
이가인	영도문화도시센터 도시팀
이성영	블루몬트페인팅공방
이수정	영도문화도시센터 문화팀
이유미	꽃기리네대표
이혜지	영도문화도시센터 협렵크루
전소영	영도문화도시센터 문화팀 파트장
정윤주	부산문화교육다양성연구소
한수련	라이스케이더링 대표
한예리	영도문화도시센터 도시팀 파트장
한정석	영도한마음선원, 로컬기획자
황수정	스스로고대표

목 차

연구요약	
I. 연구개요	0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03
2. 연구 목적과 범위	06
3. 연구 방법	07
4.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
II. 사회적 효과 측정을 위한 임팩트 연구 방법 탐구	13
1. 사회적 가치의 등장과 임팩트 연구	15
2.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인력양성사업에서의 임팩트 연구	25
III. 영도문화도시 사업 이해	31
1. 영도문화도시의 특성	33
2. 영도문화도시 사업 전후 사회조사 분석	40
IV.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 사업 임팩트 측정 방법 개발	55
1.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사업의 분석	57
2.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 사업 운영원리 분석	68
3. 임팩트 측정의 기본 골격과 방향 도출	78
V.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 사업의 임팩트 측정 과정	93
1. 임팩트 측정 방법 설계	95
2. 정성평가 측정 결과 분석	102
3. 정량평가 측정 결과 분석	102
4.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 사업의 임팩트 종합분석	120
VI.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 사업의 결론과 제언	125
1.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임팩트 결론	127
2. 도시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의 방향과 제언	129
참고문헌	133
부록	137
1.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 사업 참여자 그룹인터뷰 정리	139
2.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 사업 참여자 설문지 양식	
3.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 사업 참여자 설문 응답 결과	

표 목 차

<표 I-1> 인터뷰 조사 대상과 내용	08
-----------------------------	----

그림 목차

(그림 I-1) 사업의 접근 지점	07
(그림 I-2) 연구의 과정	07

연구요약

I 연구개요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관한 인식 확대

- 우리 사회는 제조업 중심의 굴뚝산업 시대를 지나면서 신자유주의라는 금융 산업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음.
- 신자유주의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은 국가 간 격차뿐 아니라, 산업구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강화하여 1% v.s. 99%의 극심한 부의 편중을 가져왔고, 이는 세계 경제의 붕괴 신호로 해석되었음.
- 이에 세계은행(World Bank)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포용 성장과 포용 도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UN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궤를 같이함.
-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인류 보편의 가치와 책임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혁신 기업이나 유관 단체들은 기존의 성장, 성과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찾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또한, 국가정책이나 다양한 분야의 공공적 활동에서도 사회적 효과의 발현을 위한 정책 설계는 물론, 그 측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 경쟁 중심의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대두

-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주의, 인권, 참여, 환경 등 경제적 가치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이 국정과제나 정책 패러다임에 포함되기 시작함.
-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사회적 경제 3법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가치 지향을 국가정책으로 구체화함.
- 기업의 경우에도, 사회적 가치 관련 이미지나 태도가 매출은 물론 흥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각에선 이미 경제적 가치로 치환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고 있음.

■ 문화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필요성 증대

- 문화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서구권에서는 1970년대부터 문화와 예술을 도시의 성장 및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 수단으로 삼은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짐.
- 특히, 문화행사를 통해 쇠락한 도시의 활력을 촉진하고자 1985년에 시작된 유럽 문화수도 사업은, 1990년 영국 글래스고(Glasgow) 지정을 계기로 도시재생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이후 2008년 리버풀(Liverpool) 지정으로 광범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서우석, 2019, 132~133쪽)하는 등, 도시문제에 있어서의 문화의 역할과 의미의 확장이 일어남.
-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예술 작업이나 문화적 행위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동력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됨.
- 이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문화적 접근과 예술적 창의성으로 대응한다는 논지가 생성되고, 이는 문화도시 정책의 배경이 됨.

■ 문화·예술¹⁾분야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문화인력의 성장 관점의 중요성 재인식

- 서구사회의 실천 사례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지역 재생(regeneration)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의를 넘어, 경제적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논의가 활발해짐(김세훈, 2015, 10쪽).
-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파급효과의 동력은, 자본(혹은 예산)이나 기술(혹은 콘텐츠)이 아닌 인력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지점임.
- 문화도시에서의 문화인력이란, 문화·예술의 행위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라는 복합성을 지닌 집합체인 동시에, 도시에서의 삶을 영위해야 할 존재이기도 함.
- 따라서, 문화도시의 사회적 가치와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인력의 성장과 변화를 탐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문화도시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아닐 수 없음.
- 이에, 영도문화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창출의 다른 한편에서, 문화인력의 성장이 가지고 온 사회적 가치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1) 문화와 예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범위가 다른 영역을 동시에 호명함으로써 명확한 설명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문화' 혹은 '예술'로 변형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본 보고서에서는 '문화·예술'로 사용함. 다만, 인용된 내용에서 문화예술로 사용하거나 고유한 기관명, 사업명일 경우 예외로 함.

2) 연구의 필요성

■ 영도문화도시의 사회적 효과 측정의 필요

- 영도구는 2019년 1차 문화도시에 선정되어 2024년 현재 5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문화도시의 성과를 해석하는 과정에 있음.
- 영도문화도시는 지난 5년간 ‘도시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인력의 발굴과 역할의 창출, 연결하는 활동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일으킬 활력을 구축해 왔음.
- 영도문화도시는, 그 추진의 근간에 내외부 인력의 발굴과 양성, 연결을 시도하는 과정 전체를 ‘도시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하는 동력원으로 설정한 것이라 여겨짐.
- 이에, 영도문화도시의 추진에 따른 도시 활력의 정량적 결과와 개인의 성장에 따른 공동체의 변화를 결부해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필요함.

■ 문화·예술영역에서 제기한 ‘일자리에서 일거리’로서 변화 과정

- 영도문화도시의 문화도시 사업에서 다양한 인력의 양성과 발굴을 중요한 과업으로 설정하였으며, 2022년 8월 문화도시 영도 일거리 포럼 ‘문화와 노동의 방정식, 일거리’를 진행한 바 있음.
- 이 포럼에서는 문화·예술계의 노동 현실을 직시하여 ‘일자리’ 개념에서 ‘일거리’ 개념으로의 전환을 제안, 문화인력이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촉진하는 교육과정과 일거리를 구축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함.
- 이에, 다양한 유형의 문화인력의 교육, 양성과정을 살펴보고, 창작·창업의 새로운 일거리는 만드는 과정에 관한 추가 연구가 요청됨.
- 문화도시의 핵심 동력이 된 문화인력 성장 그리고 창작·창업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네트워크(플랫폼) 활동은 문화·예술노동 시장의 불안정과 위기를 협력시스템으로 제어하는 효용성을 드러냈지만,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상황임.

■ 영도문화도시의 문화인력 양성사업의 효과성 확인 필요

- 위 시스템의 평가를 위해서는 영도문화도시의 성장·발전에서 구축된 다양한 인력의 성장 프로세스와 성장 환경 등에 대한 탐구와 분석이 필요함.
- 기획자, 디자이너, 예술마을PD 등 다양한 층위와 범위를 넘나들며 일어난 성장과 공동체의 변화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영도문화도시의 미래 구축에 필수 과정임.
- 이에, 영도문화도시가 지향해온 유·무형의 가치들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여, 영도구가 문화도시를 통해 변화한 지점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과 범위

1) 연구 목적

■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 과정 평가를 통한 중요가치 도출

- 영도문화도시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의 과정을 분석하여, 영도문화도시가 추구하고자 한 사회적 가치를 탐색하고 지표의 단서로 활용

■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계

- 영도문화도시에서 발굴·양성된 인력의 변화, 사회적 변화, 새로운 문화의 정착 등 일련의 과정을 사회적 가치로 도출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설계

■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를 위한 근거로 활용

- 영도문화도시의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이 영도문화도시의 미래 동력을 형성한다는 근거로 활용

2) 연구 범위

■ 대상 범위 :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사업 과정과 사업에 참여한 사람

■ 공간적 범위 : 부산시 영도구 내

■ 시간적 범위 : 2024년 8월 ~ 11월

■ 내용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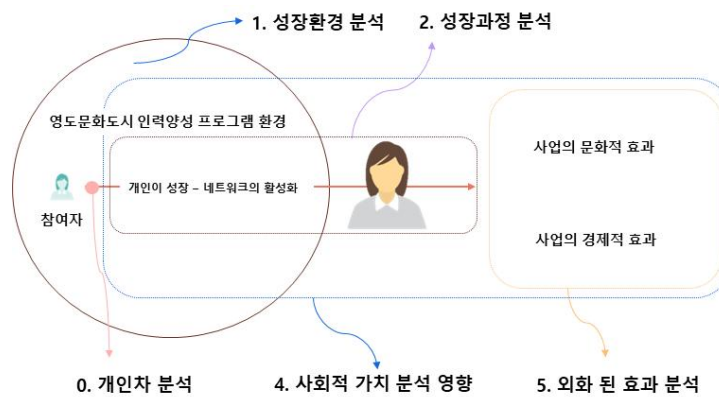
연번	구분	내용
1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사업 과정 평가를 통한 가치 탐색 및 정의	- 영도문화도시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을 분석하여 개별사업들의 특징 및 지향하는 가치 탐색 및 정의 -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사업에 참여자 활동 진단으로 사회적 가치 도출
2	인력양성사업의 사회적 가치 지표 설계	- 영도문화도시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설계
3	영도문화도시의 사회적 임팩트 확산	- 지표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도시의 변화 양상 및 사람들의 성장 양상을 확인하여 결과 확산 - 도출된 결과를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 모색

3. 연구 방법

1) 연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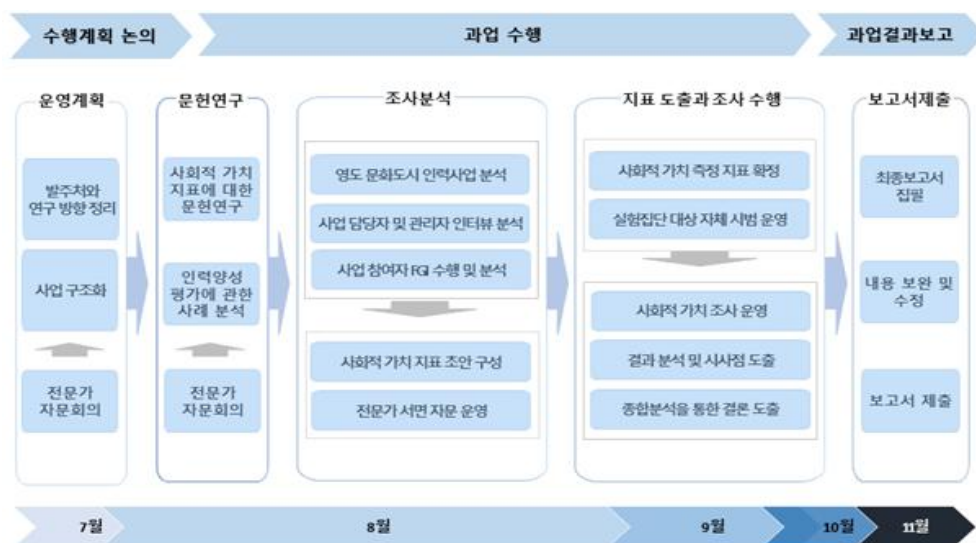
■ 사업의 접근 지점

-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사업의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임팩트 측정의 주요 지점을 발굴하여 분석



(그림) 사업의 접근 지점

■ 사업추진 과정



(그림) 연구의 과정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인력양성사업의 사회적 가치 체계 도출
-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지표체계의 방향 설정
- 영도문화도시 추진 시기에 따른 부산시 사회조사와 영도구에서의 문화정책 추진 건을 통한 문화환경 검토

■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통한 기초 내용 분석
- 영도문화도시 대상의 인력 성장 외 성과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 메시지의 구성요소인 단어들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의미를 분석하는 텍스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단어 추출

■ 인터뷰 조사

- 인터뷰 조사를 통해 인력양성사업의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요인을 발견하여 측정지표로 활용함.

<표> 인터뷰 조사 대상과 내용

구분	대상	내용
담당자그룹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소영(문화팀 파트장) - 이수정(문화팀 사업 담당자) - 한예리(도시팀 파트장) - 이가인(도시팀 사업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양성사업의 사회적 가치 확인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설계 과정 확인 - 인력양성사업 결과를 통해 드러난 성과 확인
참여자그룹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수련(2021 기획자의 집) - 정윤주(2020 영도가 문화학교) - 한정석(2020 영도가 문화학교) - 이유미(2022 기획자학교) - 이혜지(2022 기획자학교) - 서윤미(2022 문화예술교육자) - 이성영(2023 기획자학교) - 김성윤(2023 기획자학교) - 황수정(2021 디자인기획자 과정) - 김유화(2021~2022 똑똑똑 예술가) - 김미정(2022 똑똑똑 예술가) - 배영건(2022 동아리지원사업) - 박태양(예술마을 PD) - 김순자(예술마을 PD) - 김정미(예술마을 P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양성사업 참여 과정에서의 주요 성장 요인 확인 - 참여 과정 이후 삶의 변화 지점 확인 - 인력양성 과정을 통해 새롭게 시도한 실험 등에 관한 경험 확인

구분	대상	내용
개별 인터뷰	- 전소영(문화팀 파트장/기획자학교 담당자) - 김정미(2020 영도가문화학교) - 윤지현(2020 기획자의 집)	- 그룹인터뷰 시사점에 따른 심층인터뷰 - 참여자 2인과 사업 관리자 1인 개별 진행

■ 지표 설계 및 측정

- 문헌 연구, 조사분석, 그룹인터뷰로 조사한 내용을 통해 영도문화도시가 추구해온 가치와 인력양성사업 간의 유기성을 탐색하고 이에 따른 지표 구성함.
- 영도문화도시 문화인력의 사회적 임팩트 측정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탐색하고, 이를 영도문화도시 성격과 가치 체계, 진행한 인력사업의 성격,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성장 포인트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한 지표를 개발함.
- 개발한 지표로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사업 참여자의 성장에 따른 사회적 효과를 분석함.

■ 전문가 자문

- 2024년 지원사업에 대한 관점과 방향을 정립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진행

구분	내용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 사회적 가치 지표에 관한 방향성 도출을 위한 자문 - 연구를 통해 구성된 지표안에 대한 자문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점 도출	- 지표 측정 후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의 개선점 도출 - 사회적 가치 지표의 확산 및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를 위한 방안 도출

4.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연구의 기대효과

■ 영도문화도시 성과의 다층적 측정에 따른 미래 동력 마련

- 본 연구는 2019년~2024년 영도문화도시의 인력양성사업의 과정과 참여자를 집중 분석한 결과를 도시변화와 결부한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인력양성사업의 의미와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분석과정에서 개발한 지표는 영도문화도시의 평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 사회 가치와의 영향 관계를 탐색한 결과로, 문화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높이는 일로 연결될 것이라 기대됨.
- 나아가, 그간 영도문화도시의 참여자를 비롯한 영도구의 지역주체들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영도구의 미래 가치를 생산하고 도시 활력을 지속시킬 근거가 될 것임.

■ 문화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가치 증진 및 확산

-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지표는 영도문화도시에서의 문화인력 성장과 영도구의 도시변화를 함께 탐색하여 영향관계를 살피는 것으로, 문화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는 단초로 활용될 수 있음.
- 문화인력 양성사업은, 단위사업으로써 내부자의 개인의 성장 정도만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의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를 측정하는 방향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 이에 본 연구는, 단위사업의 성과로 박제되는 성장이 아닌 문화인력의 성장 요인, 과정의 개별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도시변화의 교차분석 결과로써, 문화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확산하는 것에 기여할 것임.

■ 인력 성장에 따른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 인력양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인력이 성장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핵심 조건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문화인력 양성사업의 지속 근거는 사회적 효과의 보편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필요함.
- 이에, 문화인력의 성장과 도시발전의 순환 관계를 지표화함으로써 도시 성장에 있어서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문화정책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

2) 연구의 활용방안

■ 문화도시 성과 시스템 개선

- 본 연구는 영도문화도시의 문화인력 양성사업을 기본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성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임팩트 연구방법을 부분 수용하고 보편적 사회적 효과와의 연결성을 염두에 둠.
- 문화사업의 도시발전 기여도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법정문화도시나 소수의 문화인력 및 자원을 통한 도시의 경제발전 및 소비 촉진에 집중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성과지표는, 문화인력의 성장과정의 다양성과 인력 성장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문화도시 혹은 문화·예술적 관점으로 도시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 시, 사업의 설계와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문화도시 및 문화·예술 현장 관계자들의 후속 연구

- 2019년부터 추진된 법정문화도시와 2023년 신설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참여한 도시들은, 참여 시기를 불문하고 문화·예술적 관점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관한 후속 논의가 필수적인 시점임.
- 이에, 문화도시 현장과 문화·예술 관계자들에게 정책이 추진되는 도시, 각종 사업 및 활동에 관한 관점을 확장하게 하는 선행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현재 문화도시 현장과 문화·예술 분야의 관계자들이 담론과 활동을 확장하고 후속 연구를 촉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 고도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

■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효과 측정 표준안 수립

- 최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단기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와 분야를 아우르며 높아지는 추세이며, 국제 표준안의 필요성 또한 증대됨.
- 사회적 가치는 공공가치, 공익, 사회적 책임 등의 용어와 혼재되거나 분야별로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극심한 등, 보편성 기반의 체계화나 전면화된 도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사회적 효과 측정이 더딘 영역이며, 개중에서도 문화인력 성장의 사회적 효과 측정 사례는 더욱 미진함.
- 이에, 한국의 주요 문화정책인 문화도시 사업에서의 문화인력 양성사업을 집중 분석하고 지표화하는 선행 연구를 남김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효과 측정 표준안 수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II

사회적 효과 측정을
위한 임팩트 연구
방법 탐구

II. 사회적 효과 측정을 위한 임팩트 연구 방법 탐구

1. 사회적 가치의 등장과 임팩트 연구

1) 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

■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제조업 중심의 굴뚝산업 시대를 지나면서 ‘신자유주의’라는 금융 산업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음. 이는, 여전히 제조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산업구조는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신자유주의 산업구조 재편은 국가 간 격차뿐 아니라, 개별 국가구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강화하여 1% v.s. 99%라는 극심한 편중을 가져왔음.
- 이러한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일반화되어 각 국가의 경제위기를 확대했고, 급기야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 주도국가마저 위기를 겪게 되면서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급증함.
- 세계은행(World Bank)은 2009년부터 소득 불평등, 교육 기회 제한, 공공서비스 부족, 장기적 경제침체, 실업률 상승 등을 들어, 1990년 워싱턴합의가 기대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²⁾가 나오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 성장(inclusive growth)’ 논의를 전개함(문정호, 2017, 22쪽).



(그림) 포용 성장이 마지막 회복의 열쇠라는 내용을 담은 세계은행 홍보 동영상 일부

출처 : 월드뱅크 라이브 홈페이지, (접속: 2024.11.13), <https://live.worldbank.org/>

- 2) 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 이것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로 미국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 효과에 기반을 둔 경제 정책을 채택하여 전 세계에 확장하였음. 이 정책은 꾸준히 비판받아오다가, 2015년 국제통화기금이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를 통해 상위소득 20%의 소득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하여 정책적 영향은 사라짐.

- 세계경제기구(OECD) 또한,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 없이 경제발전과 지속가능성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인 ‘도시’에 주목함.
- OECD는 2012년과 2015년에 빈곤 감소, 불평등 해소, 참여 확대, 지속가능성 추구 등의 프레임 워크(frame work)를 제시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역량 강화(empowerment)’를 강조함(문정호, 2017, 23쪽/ 김수진, 2017, 37쪽).
- 이때 ‘역량 강화’란 스스로를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인식하고 이를 추구하는 과정 즉, 개인 또는 공동체가 각자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2015년 출판한 『세계의 포용도시 접근 보고서(World Inclusive Cities Approach Paper)』은 포용 도시 개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사회·경제·공간적 측면을 아우른 포괄적인 포용성을 강조, 공간적 포용 측면에서 생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의 균등한 접근성 향상을 핵심 정책의제로 제안함(문정호, 2017, 23쪽).

■ 도시문제 해결의 접근방식

-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포용적 성장을 위해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불평등과 분배의 문제를 우선한 기존의 빈민 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모델과 차이를 보임.
- 포용적 성장에서는 ‘빈곤’을 단순한 빈곤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대적 결핍으로 이해하며, 정책 대상을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확대하고 있음.
- 즉, 포용 성장의 목적이 빈곤 감소 자체가 아니라, 빈곤 감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동하는데, 그 방법론으로 일자리 창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고용 확대를 통한 간접적 분배방식이 택해지며 개념적 범위가 확대·재생산되고 있음(김수진, 2017, 36~37쪽).

■ 포용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교집합

-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으로써의 포용 성장은, 국제사회에서 지속해서 논의되었던 ‘UN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와 그 궤를 같이함.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³⁾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임.
- 이후 UN은 2000년대를 맞아 2015년까지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를 결의하였고, 이 목표가 만료된 2015년에는 빈곤, 교육, 보건 등 개발도상국의 과제를 집

3)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함.

중되었던 이전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한계를 보완·수정하는 것으로 인류 보편의 과제를 통합적으로 의결, 인류사회의 공동 목표를 정립함.



(그림)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출처 : UN SDGs 홈페이지, (접속: 2024. 11. 13), <https://sdgs.un.org/goals>

- 따라서,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불평등한 분배에 집중했던 기존의 사고를 확장한 포용 성장은 인류 보편의 통합적 여건을 살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는 개념임.
-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날 혁신 기업이나 단체들은 기존의 성장, 사업적 성과의 범위를 넘어서, 사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효과와 작동 방식에 관심을 두게 됨.
- 국가정책이나 다양한 분야의 공공적 활동에서도 사회적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설계는 물론, 사회적 효과 측정 방안에 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응과 환경

- 우리나라는 세계 질서 상황에 발맞추어 2000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공포하여 2024년 현재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세계 경제 상황과 국제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포용경제, 포용도시 논의를 진행하여 사회적기업, 혁신경제, 도시재생, 문화도시 정책이 발효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확장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있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정책의 방향과 기준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음.
- 기업 또한 인권경영, ESG 경영⁴⁾ 등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으며, 기업 행위의 사회

4)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 시 사회적책임투자의 관점에서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사회적책임투자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ESG 경영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주는 방식임.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에 확대되어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4년 현재 금융위원회가 ESG 경영 공시를 준비 중이며, 수출 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적 영향을 측정하거나, 사회적 영향을 일으키기 위한 혁신 등이 중요하게 대두됨.

2) ‘사회적 가치’ 정의와 사회적 효과 측정을 위한 임팩트 측정

■ 사회적 가치의 정의

-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경제적 회계로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 규범적 관점에서 가치란 인간 삶의 바람직한 기준을 말하며, 가치와 현실의 심각한 괴리를 만들어내는 사회문제를 전제할 수 있음.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공동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공리적 관점에서 가치란 사람들의 욕망, 필요, 효용을 의미하며, 주로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통해 효율적으로 충족됨. 그러나 구조적인 시장실패로 인해 시장을 통해 충족하지 못하는 잔여 가치(외부성, 공공재, 공유재, 가치재, 환경재) 등은 시장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대비하여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음(라준영 외, 2023, 8쪽).
- 또한, 사회적 가치는 기업, 비영리단체, 정부 영역 등 행위 주체에 따라 그 범위와 방식이 다르며, 행위의 목적과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국제사회와 각 국가는 실정에 맞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철학과 관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규정함.

<표> 사회적 가치 관련 체계적 대안 제시 사례

구분		내용	비고
UN	UN SDGs	2015년 9월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새로운 화두로 17개 글로벌 목표 발표 및 권장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지표
영국	공공서비스법 (Social value act)	공공 구매방식을 통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제도화하려는 법안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사회적 가치실현의 과제와 연결	-
EU	사회의 질 선언	사회적 전반적인 수준과 격(格)을 제시하는 개념으로서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의 네 영역을 강조	-
한국	사회적 가치기본법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	미제정 법률로, 2014년부터 8년째 발의와 폐기 반복 중

출처 : 김기룡 외, 「NPO를 위한 사회성과측정 가이드북」, 2021, 12쪽, 재구성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이해하고 있음.

■ 사회적 가치와 연동하여 사용되는 유사 개념

-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에 관한 정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사 개념인 공공가치(public value), 공익(public interest),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임팩트(social impact) 등이 사용되기도 함.

<표> 사회적 가치와 연계된 유사 개념

구분	사용범례	내용	비고
공공가치	정책, 행정	조직이 자신의 고객에 부가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수행함으로써 창출된 효용	-
공익	정책, 행정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사회적 책임	경제, 경영	기업이 발생시킨 사회, 환경 문제를 당사자인 기업이 직접 해결하는 것	-
사회적 임팩트	경제, 경영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의미	

출처: 권향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 역할과 거버넌스 변동: 공공가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2020, 6쪽, 라준영 외,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2023, 8쪽, 재구성

- 사회적 가치가 담긴 특정 행위를 설계하거나 실천하였을 때 그 행위의 정당성 혹은 효과성 등을 확인한다면 이는 사회적 임팩트⁵⁾ 영역에서 살펴보아야 함.

■ 각 영역에서 사회적 임팩트를 보는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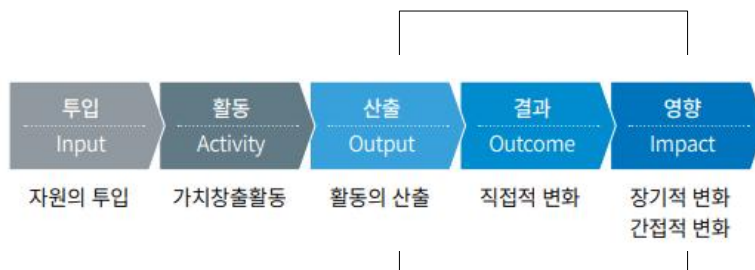
- 사회적 임팩트라는 영역을 읽고 이를 사회적 가치로 공표하는 것은 무엇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기 마련임.
- 기업의 사회적 임팩트는, 핵심 목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의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넘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임.
- 반면, 정부의 사회적 임팩트는 정책의 추진성과와 함께 예산의 절감을 보는 것이 핵심으로,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공익을 확장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에 가까움.

5)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임팩트’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를 ‘임팩트 연구’라고 사용하고 있음. 용어의 정리가 충분하게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혼동을 막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효과 측정을 위한) 임팩트, 약칭 ‘임팩트 측정’이라고 사용함.

- 또한,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임팩트는 모금을 늘리고 회원을 증대하는 본연의 목적을 잘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실질적인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의미 있게 창출하였는가를 살피는 것을 의미함.
- 각 영역의 측정 양상이 다르나, 기존의 목적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며, 이는 인류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에서 보편 인권을 어느 정도 실현하였으며, 개인의 성장과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류사회의 가치 영역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오늘날에는 기업, 공공정책, 비영리 조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의 부합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분야의 존속 의미와 맞닿기도 함.

■ 사회적 효과 측정 필요

- 국내외적으로 공공정책과 기업, 시민사회 영역에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 가치의 측정 방식에 관한 문제가 병행하여 대두됨.
-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개념적 틀은 ‘논리 모형’으로,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으로 구성되며, 결과와 영향을 통해 사회적 효과를 측정함.



(그림) 논리 모형의 평가모델

출처: 김정태 외, 「NPO와 소셜 임팩트 프레임 워크 개발 연구」, 2014, 19쪽, 재구성

- 이 모형은 ‘투입-활동-산출 모형’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모델로 분화한 것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나 ESG 경영목표 등과 결합하여 다양하게 모형화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는 2013년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VOS 사회적 영향력 평가모델’을 제시했으며,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공공부문은 2017년 ‘사회적 가치 지표(Social Value Index, SVI)’를 개발하기도 함.

■ 사회적 효과 측정의 다양한 방법

- 사회적 가치측정 방법론은 정성, 정량, 화폐화 방식이 있음.
- 정성 방법론은 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인식을 포착하고, 정량 방법론은 흔히 기업 활동 결과 수치를 표현 또는 등급화하는 과정에 활용됨.

<표> 사회적 가치측정 주요 방법론

구분	측정방법론	내용
정성/ 정량측정	IR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임팩트 보고 투자기준 8개 분야별로 통용되는 지표를 제공하여, 평가자가 프레임 워크/보고체계를 구성하는데 공통의 언어를 제공 - 구성체계(Framework)는 조직, 제품/서비스, 재무성과, 조직운영에서 나오는 사회적 가치, 제품의 사회적 가치 5가지로 이루어짐.
	B Impact Assess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 및 성과를 평가하는 온라인 측정 시스템으로 우수 기업 대상 B-Corp 인증 제공(인증만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인정받음) - 측정 분야는 조직의 운영체계,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처우, 고객들의 평가, 환경적 이슈에 대한 적합성, 공급자/지역/다양성 등을 고려한 커뮤니티 형성 수준 5개 영역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V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담긴 가치 개념을 기준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7대 원칙 등 관련 법령과 각종 학계 자료를 참고하여 도출 - SVI는 IRIS의 5대 범주를 참조하여 3가지 관점(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의 14개 지표로 구성됨.
화폐화 측정	SRO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지표 ROI,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바탕으로 화폐화 방법론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현재 가장 널리 통용되는 화폐화 방법론임 - SE나 NPO 등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해 재무지표인 ROI(투자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론임.
	사회성과 인센티브(S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하여 일정 비율을 현금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SPI(Social Progress Credit) 프로그램으로 5년간 220개 이상 기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함. - 사회적 가치측정 영역은 사회서비스 성과, 고용성과, 환경성과, 사회생태계 성과 4개 영역임.

출처 : 김기룡 외, 「NPO 활동의 사회적 성과산출을 위한 시범사례 연구」, 2020, 12~30쪽 재구성

3) 사회적 효과 측정을 위한 임팩트 연구 경향

■ 사회적 효과 측정으로서 임팩트 연구의 정의

- 사회적 임팩트 평가는 연구자들 간의 정의와 용어 사용이 각각 다르나, 단체 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사회적 변화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함.
- 사회적 임팩트가 사회적 변화 혹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뜻한다고 할 때, 사회적 임팩트 측정은 사회적 변화를 지목하고 추적하여 표현하는 전체 과정을 포괄함.

- 사회적 임팩트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가장 화두가 된 것은 임팩트 중심의 성과관리인데, 이는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변화) 그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개별 성과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게 됨.
- 공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들에서는 개별 활동의 존재 의의와 목적 달성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공익활동의 근거와 동기를 부여하기가 쉬워짐.

<표>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정의

용어	정의
Impact (서울시NPO지원센터,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창출하고 있는 최대한의 변화를 지향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와 결과를 총칭 - 임팩트란 의미 있는 변화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해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캐물음' - 소셜 임팩트: 현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개별 조직 혹은 조직 간 섹터 간 협력과 연결을 통해 의미 있는 사회변화를 생성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캐물음을 수행하는 과정
소셜 임팩트 Social impact (Burdge&Vanclay,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 임팩트는 어떠한 공익적/사익적 활동으로 인해 사회의 삶의 양식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 - 이는 특정 사회의 사회적 기준, 가치, 신념 등 인식의 기반이 되는 문화적인 변화까지 포함
소셜 임팩트 Social impact (Latané,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 임팩트는 다른 개인의 실재하거나 내재되어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존재 혹은 행동에 의해 특정 개인의 정신적인 상태나 주관적인 느낌, 동기나 감정, 인식과 신념, 가치와 행동 등이 상당한 수준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것을 의미.
임팩트 Impact (Clark et al.,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팩트는 특정 단체 활동의 결과로서 일어난 변화(Outcome) 중 단체와 관계없이 나타난 변화를 제외한 것.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Emerson et al.,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는 자원과 투입물, 절차나 정책 등이 개인의 삶과 사회의 개선(improvements)을 만들기 위해 융합할 때 창출.

출처 : 김정태 외, 「NPO와 소셜 임팩트 프레임 워크 개발 연구」, 2014, 15쪽
 황진솔 외, 「NPO와 소셜 임팩트 프레임 워크개발 후속 연구」, 2015, 5쪽

- 경영·경제 영역이 사회적 임팩트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본다면,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총체적인 캐물음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의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정의와도 일정한 연결지점이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임팩트 측정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행위를 통해 해결 과정을 탐색하고, 그 변화의 지점을 탐구하는 것”으로 접근하고자 함(황진솔 외, 2015, 1~5쪽, 재구성).

■ 임팩트 연구의 경향

- 임팩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ESG 경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확산 추세임.

- 산업 영역에서는 기업, 기업재단, 투자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에서 관심을 보이며, 공공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에서도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음
- 반면, 문화·예술분야는 오랫동안 가치 중심적 생산을 기반으로 삼았기에, 개념의 추상성, 결과 측정의 난해함 등의 이유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음.



(그림) 임팩트 연구 대상

출처 : 한국사회가치평가 홈페이지, (접속: 2024.10.14.), <https://www.ksva.co.kr/visible-impact>

- 임팩트 연구는 수행조직의 사업목적과 임팩트 측정 목적에 따라 대체로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보고서 발간 ② 기업 및 기업재단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③ 벤처 캐피탈 기업의 투자방식 ④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의 사회적 가치측정 ⑤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 NPO의 사회적 가치측정임.

<표> 임팩트 연구 방식 주요 유형별 예시

유형	예시	내용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보고서 발간	하나금융그룹 'ESG Impact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의무화 법제화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음. - 하나금융그룹은 2022년 글로벌 기준에 맞춰 ESG 전반의 성과를 정량적, 특히 화폐화 기반으로 측정할 수 있는 Hana ESG Impact 체계를 구축함.
기업 및 기업재단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사회적 가치연구원 '임팩트 파운데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의 비영리 조직이 참여하여 임팩트 측정에 대해 학습하고, 자기 조직의 임팩트를 측정함. - 그 경험을 다른 재단과 공유하는 러닝 커뮤니티 운영
	브라이언 임팩트 '임팩트 그라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설립됨. -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혁신 조직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임팩트 생태계를 지원함.
벤처 캐피탈 기업의 투자방식	HGI(HG Initiative) '임팩트 레포트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GI는 벤처 캐피탈 기업으로, '환경 문제 해결' 사회적 소외와 격차 해소, '사회의 다양성 및 포용성 확대' 영역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함. - 기업이 추구하는 임팩트를 분석하기 위해 루트 임팩트의 임팩트 체인을 주요 방법론으로 사용하여 2년에 한 번 임팩트 레포트를 발간함.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의 사회적 가치측정	사회적 가치연구원 'SVI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7년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개발함. - 사회적 경제 기업은 해당 지표를 조직운명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그 영향에 대한 측정 지표로 활용함. - 또한 해당 지표는 공공·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 우대조건으로 제도화함. - 2024년 기준 연 1,000개 내외의 기업이 측정함.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 NPO의 사회적 가치측정	서울시NPO지원센터 'NPO와 소셜 임팩트 프레임 워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O분야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Tri-sector(공공·기업·시민사회)의 사회적 임팩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협력 기반 워킹그룹을 운영함. - 한국 사회에서 NPO의 발생 배경과 조직 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NPO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셜 임팩트 프레임 워크 개발' 연구를 수행함.

출처 : (주)한국사회가치평가, 사회적 가치연구원, 브라이언임팩트, 서울시NPO지원센터 등 누리집 수록 사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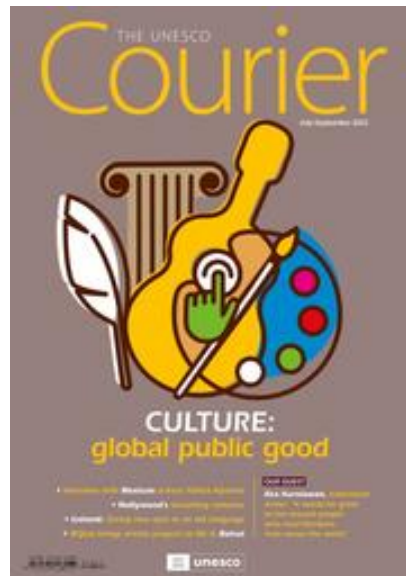
6) 측정참여재단(미래교실네트워크, 사회적 가치연구원, (재)숲과나눔, (사)에코맘코리아,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월드비전, 초록우산, 포스코청암재단, (사)한국자원봉사문화(자원봉사임팩트연구소), 현대차 정몽구 재단, 환경재단, 희망친구 기아대책, 관찰 참여 재단(C)나눔재단, T&C재단,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아산나눔재단, 안산시부곡종합사회복지관,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 청년재단, 최종현학술원, 한국고등교육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행복나래, 현대모비스), 주관재단(사회적 가치연구원), 자문기관(이노소셜랩, 플랜엠)

2.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인력양성사업에서의 임팩트 연구

1) 문화·예술계의 사회적 가치 인식과 임팩트 측정 동향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을 ‘삶의 총체’로서의 문화와 ‘자기 정체성의 기술’로서의 예술로 전제한다면, 이는 사회적 가치를 논하기 어려운 ‘매우 본질적인 인간 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임.
-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1940년대 영국 예술위원회의 탄생과 1960년대 미국 국립예술기금(NEA)의 설립과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함.
- 문화·예술은 그 활동을 시장에서 거래하려는 순간 이미 손해가 발생하는 일종의 ‘시장실패’ 영역이지만,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영역이므로 ‘공공재’ 혹은 ‘가치재’로서 공적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논의를 확장한 유네스코는 2022년 세계문화정책회의(Mondlacult 2022)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호에서부터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산업 증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걸쳐 각국의 문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문화가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임을 확인함.



(그림)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문화를 설명하는 유네스코 자료

출처 : 유네스코 디지털 라이브러리 홈페이지, (접속: 2024.11.13), <https://unesdoc.unesco.org/>

- 그러나 문화·예술이 정책 영역으로 이동하는 순간, 정책 그 자체의 사회적 가치

생산 여부를 탐색하는 임팩트 측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 콘텐츠화되어 시장 영역에서 산업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오늘날에는, 문화·예술 관련 창의 산업도 사회적 가치를 탐색하는 임팩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 확대

- 문화·예술이 ‘공공재’ 혹은 ‘가치재’라는 인식은 확산되었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에서도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용주의적 의심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옴.
- 또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예술지원 기조 역시 성과주의적 평가 앞에 무력해지는 경우가 항시적으로 발생함.
- 그러나 자본주의 성장과 번영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1970년대 유럽 사회에서는 쇠락하는 도시와 노쇠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데, 유럽문화수도 정책이 그 예시임.
-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 확장은 개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는데, 2018년 영국 정부가 외로움부(Ministry for Loneliness)를 출범하고, 범부처 차원의 고독 전략(loneliness strategy)을 공식 발표하며 ‘예술 기반 사회적 처방’ 정책의 적극 추진을 공표한 바 있음.
- 이러한 인식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고립, 코로나 블루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문화·예술이 기여할 수 있다는 논의와도 연결되는 사례임.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연구 동향

-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한국학술정보원(RISS) 2021년 1월 기준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다루는 학위논문 233건, 학술지 논문이 71건, 연구보고서 15건으로 나타남(김상철외, 2020, 3쪽).
- 문화정책 분야에서는 2006년 이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도입된 이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지만, 문화정책분야의 성과평가 방식은 산술적인 평가의 어려움이 존재했음. 그러나 서우석(2021) 등은 「문화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적용연구」를 통해 문화도시의 사회적 효과 측정에서 임팩트 연구 방식을 적용하는 시도를 함.
- 사회적기업 중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수는 2021년 7월 기준 294개로 전체 2,983개 대비 9.9%를 차지하고 있음. 문희원·장웅조(2021)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미션 선언문(mission statement)을 탐색하여 사회적 가치를 탐색함.
- 이를 통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문화·예술의 도구적 가치를 기반으로 ‘문화 복지 및 예술 향유’(63개, 15.7%), ‘생활예술·커뮤니티아트·공동체 기반 예술활

동'(23개, 5.7%), '지역문화·예술 활성화'(48개, 12%), '사회문제 해결'(24개, 6%)로 설정하고 있다고 분석함(문화원·장웅조, 2021, 144~147쪽).

■ 문화·예술기관과 사회적 효과 측정

- 문화·예술분야는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과 연결하여 기관 운영의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문화도시 사업에서도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 대부분의 문화도시는 각 문화도시의 특성에 맞게 사업 가치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UN 지속가능발전목표나 다양성 지표 등과 연계하여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표> 문화·예술분야와 임팩트 측정 사례

구분	사업명	내용
ESG 경영 및 확산 사례	문화·예술기관 ESG 이니셔티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2년부터 전국 민간 및 공공부문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하여 '문화예술기관 ESG 워킹그룹'을 운영 - 2023년 29개 기관과 함께 5개월간 협의를 통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부문 총 11개 과제'를 도출함. - 2024년 현재 38개 기관이 참여하여 '문화예술 ESG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각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관 ESG 워킹그룹을 운영중임. - 문화예술 부문의 지속가능 가이드북 '공연예술분야의 지속가능 창·제작 안내서 및 사례집'을 발간함.
문화도시 사업성과관리	SDGs 연계 성과관리의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1.0에서는 문화도시의 보편가치를 드러내는 지표와 각 도시 고유의 도시 가치를 드러내는 지표를 혼합하여 사회적 가치의 실현 정도를 측정함. - 반면, 문화도시 2.0에서는 문화도시의 가치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구축하였는지를 측정함 - 원주문화도시의 경우, 사업비전-실천 과제-실천 방식-원주 지속가능발전목표(W-SDGs) 달성을 염두에 둔 계획과 성과관리 구조를 통해 '지역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도시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였음.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2024.10.7.), <https://www.arko.or.kr/>,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재구성

7) 참여 기관 38곳은 강남문화재단, 강동문화재단, 강북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고양문화재단, 과천문화재단, 관악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구리문화재단, 국립극단, 군사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도봉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수원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연수문화재단, 예술의전당, 완주문화재단, 용인문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중구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지역문화진흥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임(가나다순)

2) 문화·예술분야 인력 양성사업의 맥락과 현황

■ 문화·예술분야 인력 양성사업 맥락

- 문화·예술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에는 인력 양성사업이 있으며,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옴.
- 문화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1980년대 급격하게 확장된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공간 조성 등 하드웨어 구축과 관련이 있으며, 공공영역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제도권 대학에서는 예술경영 분야의 수업이 만들어지고, 특수대학원 형태의 예술경영대학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민간영역에서는 다움아카데미가 ‘문화기획자’라는 명칭과 함께 문화분야 인력양성의 모델로서 이론과 실제의 균형, 감성과 시스템의 균형을 갖춘 인력양성의 방향을 제시함.

<표> 문화인력 양성의 전개과정

시기	문화정책 방향	인력사업의 전개
1990년대 중반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관련 시설 조성 -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 공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연수 프로그램 시행 - 1989년 중앙대학교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개설하여 제도권 문화전문인력 교육의 시작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공간, 프로그램, 시장의 확대 - 2002년 ‘문화예술 지식자산화 전문인력 육성’ 시행계획 발표로 ‘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과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서의 문화산업 육성’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 관련 본격 연구 진행 - 1998년 민간영역에서 다움아카데미 시작하여 문화예술 전문인력 교육 모델 제시
2000년대 중반 이후 ~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새로운 예술정책」 발표로 전문인력 양성 중점 추진 과제화 - 2004년 문화예술교육법 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과제 설정 - 2006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설립으로 전문 예술경영인력 과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작 - 2006년 예술경영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추진 - 2010년 지역문화아카데미, 2012년 문화이모작, 2013년 문화복지전문인력 추진
201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추진 - 2018년 문화도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진흥 사업에서 지역문화인력에 관한 관심 및 수요 확대 - 2014년 생활문화코디네이터, 2015년 지역문화 전문인력 추진 -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농촌활성화 사업 등 문화인력의 현장 활동 영역 확장 - 2018년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새로운 기획인력 수요 증대

출처 : 최혜자, 「생태계적 관점에서 보는 인력양성사업 성과 및 개선방향」, 2022, 21~22쪽, 재구성

- 2018년 문화도시 사업으로 지역생태계 관점에서 다양한 자원이 요구되자 공공영역뿐 아니라 창업, 창직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 일거리 이슈가 등장하였고, 기술 발전에 힘입어 IP 기반의 문화·예술 융합 영역이나 로컬리티의 확장 등 새로운 일거리 영역이 등장함.

■ 문화·예술분야 인력 양성사업 현황

- 문화·예술분야 주요 기관은 각각의 목적에 맞는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다소간의 부침이 있지만 대체로 세부 영역별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지역에서는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진행됐으며, 문화도시를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인력양성과정을 특화하여 운영함.

<표> 문화·예술분야 주요기관별 인력 양성사업

기관	사업	내용	관련 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자격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 문화예술교육 전문연수 운영	문화예술교육지원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육성	- 차세대예술인력 육성 - 현장예술인력 육성	문화예술진흥법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 아카데미	- 인재 육성 → 기업 성장 → 산업 확대 구조 마련 - 예술단체·기업 경영진 및 종사자, 예술산업 예비 종사자 및 입직 희망자 대상 맞춤형 교육	산업디자인진흥법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 아카데미 ⁸⁾	-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이끌어갈 문화인력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지역문화진흥법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 지역별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발굴과 양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자생력 증진	
문화도시 운영기관	인재양성 및 육성	-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인력양성과정 포함 - 문화도시는 '인재양성 및 육성'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출처 : 각 기관 누리집, (접속: 2024.10.18.), 「2018 문화도시 가이드라인」, 문체부, 재구성

-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민들이 스스로 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특징을 가짐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

8)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매년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선정하고 전국 900명 규모의 인력양성과정을 운영해 왔으나, 2024년 사업 중단 후, 지역문화아카데미로 전환함

<표> 법정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운영현황

차수	도시	인력 양성사업(24년 기준)
1차	원주시	- 문화도시 네트워크 역량 강화 워크숍, 원주유람단
	부천시	- 지역문화 매개 인력 육성, 배치
	포항시	- 협업 워킹그룹 양성 및 조직
	부산 영도구	- 영도 기획자의 집, 내일의 항해캠프
	제주 서귀포시	- 창의문화캠퍼스
	천안시	- 미디어아트 전문인력 양성
	청주시	- 청년창의인력
2차	강릉시	- 시나미문화학교, 시민문화기획단
	춘천시	- 도시전환학교
	김해시	- 시민문화학교 「티키 타카(Tiki-Taka)」
	인천 부평구	- 부평 매개자 교육, 문화도시 아카데미
	완주군	- 컬처메이커사관학교
3차	수원시	- 수원은 학교
	밀양시	- 햇살문화 도시대학
	서울 영등포구	- YDP 크리에이터, 예술하는 예술가
	목포시	- 문화시민양성사업
	익산시	- 문화도시 청소년 활동가 양성사업, 익산학시민문화학교
4차	공주시	- 문화도시 인력양성
	영월군	- 문화광부학교
	의정부시	- 문화자치학교
	칠곡군	- 청년문화기획배움터
	대구 달성군	- 달성문화기획학교
	울산광역시	- 문화전환PD
	고창군	- 치유문화도시 아카데미

출처 : 각 문화도시센터 누리집, (접속: 2024.10.18.)

- 이에 따라, 법정 문화도시 24곳은 모두 지역 및 사업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영도구, 춘천시 등 일부 문화도시시는 인력양성의 성격을 가진 사업체계를 갖추고 있음.



(그림) 문화기획자를 양성을 위한 포스터 (좌로부터 영도, 춘천, 청주문화도시)

출처 : 영도, 춘천, 청주문화도시 홈페이지, (접속: 2024.10.18.)

III

영도문화도시

사업 이해

Ⅲ. 영도문화도시 사업 이해

1. 영도문화도시의 특성

1) 영도구 도시 특징

■ 영도구 도시 특징

① 일반현황

- 영도구는 부산시 남단의 단일섬으로 이루어진 국내 유일의 자치구이자 원도심 지역으로, 4개의 대교를 통해 부산시 내륙과 연결되며 육지화된 섬임.
-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산림·수산자원, 최남단이라는 지리적 요건, 명마(名馬)를 기르는 목마장과 해녀 문화 등 오랜 역사와 다양한 요건 속에서 삶의 양태가 꾸준히 변화해옴.
- 개항기의 조선소 설립으로, 조선업을 비롯한 항만 부대 산업 등이 발달하면서 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었다가 조선업의 침체로 인한 쇠퇴기를 겪은 특징이 남아있음. 이에 제조업과 생산업이 주요 경제 기반이던 시기를 지나 현재 관광산업의 성장이 특징적으로 꼽히고 있음.
- 인구는 2024년 기준으로 10만 7천여 명인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동시에 급격한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어 관련 정책이 추진 중임.

<표> 영도구 사회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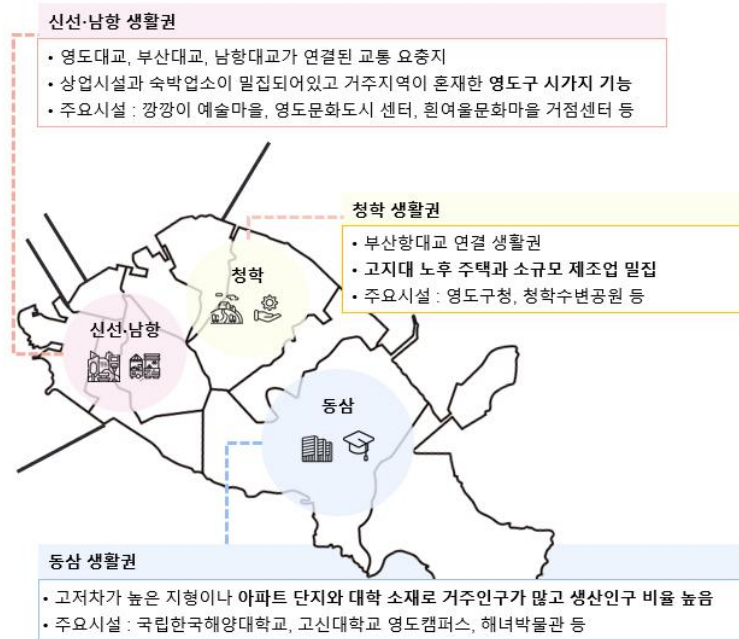
구분	내용
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 남단, 단일섬으로 이루어진 국내 유일의 자치구- 전체 면적 14.20km², 섬 중앙에 봉래산 소재(▲395m)- 해양성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하고 과거 산림과 수산자원이 풍부- 북동부는 평지, 남동부는 산지 비율이 높음.- 봉래산은 부산에서 가장 많은 종의 곤충이 서식, 파식대지, 암벽해안 등 유명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석기 시대부터 거주 흔적, 조선시대에 명마(名馬)를 키우는 것으로 유명한 섬- 1876년 부산항 개항으로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 설립, 선박 수리를 중심으로 공업 발달- 1934년 영도대교, 1980년 부산대교, 2008년 남항대교, 2014년 부산항대교의 개통으로 섬의 내륙화 진행- 1957년 영도출장소에서 영도구로 승격, 1988년 자치구로 승격, 1994년 구청사 신축 이전, 1998년 인구 과소통 폐합, 2017년 구민의 날 제정과 영도구민헌장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자치구로서 기능을 강화해옴.- 2019년 말, 자치구 단위로는 유일하게 제1차 법정문화도시 지정

구분	내용
산업·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00년대부터 부산항 배후공업단지로서 조선업 관련 업종이 발달하였고, 1934년 영도대교 개통과 함께 제조업이 성행, 1937년 조선중공업주식회사 설립으로 산업 단지로 성장함.- 1945년 해방 이후 인쇄, 양화, 제염, 제유, 합금 등 업종의 다양성이 강화됨.- 이후 조선산업 침체와 원도심 쇠퇴로 다양한 업종이 사라졌고, 지역경제 쇠락 및 인구감소, 고령화 추세로 이어짐.- 사업체 수는 2019년 9,394개에서 202년 11,755개로 증가 추세인데, 종사자 수의 경우 46,000~47,000명 사이로 변화폭이 크지 않음.- 2022년 기준, 도소매업의 업체 수가 2,775개로 가장 많고, 종사자 수는 9,772명으로 제조업이 가장 높음.- 근래 관광산업의 성장이 특징적인데, 2019년 대비 2023년 방문자 수가 33.8% 증가(부산시 0.8% 감소)하였고 주요 목적은 기타관광, 역사관광, 문화관광 순으로 나타남.- 2019년 이후 하락세였던 관광 소비가 2020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 비율은 식음료업, 쇼핑업, 여가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남.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인구수 : 10만 7천 603명(부산시 전체의 3.2%)- 평균 세대원 : 1.99명(부산시 평균 2.12명▲)- 성비 : 여성 50.5%, 남성 49.5%(부산시 평균 여성 51.2%, 남성 48.8%)- 생산인구 : 63,259명, 58.8%(부산시 평균 65.6%▲)- 인구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에 인구감소지역 지정으로 대응 정책 추진 <div><div><div><div>■ 남자</div><div>■ 여자</div><div>— 전체인구</div></div><div><div>단위 : 명</div><div>117,978 114,511 111,386 109,131 107,103 104,914</div><div><div>58,25559,723</div><div>56,42258,089</div><div>54,88856,498</div><div>53,77355,358</div><div>52,65054,453</div><div>51,50653,408</div></div><div><div>2019</div><div>2020</div><div>2021</div><div>2022</div><div>2023</div><div>2024.08</div></div></div><div>(그림) 영도구 전체인구 추이(내국인, 2024.08 기준)</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소 추세인 인구수에 반해 고령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div><div><div>■ 고령인구</div><div>■ 전체인구</div></div><div><div>117,978 114,511 111,386 109,131 107,103 104,914</div><div><div>29,627</div><div>30,956</div><div>31,664</div><div>32,518</div><div>33,328</div><div>34,337</div></div><div><div>2019</div><div>2020</div><div>2021</div><div>2022</div><div>2023</div><div>2024</div></div></div><div>(그림) 영도구 고령인구 추이(내국인, 2024.08 기준)</div></div></div></div>

출처 : Big-데이터웨이브 홈페이지, (접속 2024.09.24.), <https://data.busan.go.kr>
문화건설팀 바라, 「2025 문화도시영도 지속타당성 및 포스트 문화도시 계획」, 영도문화도시센터, 2024, 9~13쪽
「부산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시 영도구, 3~16쪽, 재구성

② 영도구 생활권별 특징

- 영도구는 남서쪽에 위치한 봉래산, 중리산, 태종산의 생태환경과 4면의 바다가 만나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3개의 생활권역이 형성되어 있음.



(그림) 영도구 생활권별 특징

- 총 11개 동으로 이뤄진 영도구는 2024년 8월 현재, 약 54,000세대 104,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아파트 밀집 지역인 동삼 1동의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표> 영도구의 행정구역별 특징(내국인, 2024.08 기준)

구 분		인구수	세대수	특징
신선·남항 생활권	남항동	10,114	5,5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도대교, 부산대교, 남항대교가 연결된 교통 요충지- 수리조선과 제조업 기반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 대형마트, 대형카페 등 주요 상업시설 소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혼재, 숙박업소의 집중 권역으로 영도구의 시가지 기능- 주요시설 : 갯강이예술마을, 영도문화도시센터, 흰여울문화마을 거점센터 등
	영선1동	3,651	1,825	
	영선2동	7,313	3,524	
	신선동	7,085	4,164	
	봉래1동	6,202	3,198	
	봉래2동	7,218	3,468	
	소계	41,583	21,756	
청학생활권	청학1동	5,386	2,7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항대교 연결 생활권- 고지대의 노후 주택지와 소규모 제조업 밀집 권역- 1950년대 한국전쟁과 부산역전 화재로 다수 이주민 유입- 주요시설 : 영도구청, 청학수변공원 등
	청학2동	16,342	7,714	
	소계	21,728	10,454	

구 분		인구수	세대수	특징
동삼생활권	동삼1동	27,829	13,756	- 태종대 소재지, 고저차가 높으나, 아파트 밀집으로 거주인구 수와 생산인구 수 모두 높음. - 주요시설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고신대학교 영도캠퍼스, 해녀박물관 등
	동삼2동	5,031	2,592	
	동삼3동	8,743	5,494	
	소계	41,603	21,842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접속: 2024.10.21.), <https://kosis.kr>, 재구성

2) 영도문화도시의 특징

■ 영도문화도시 흐름

- 영도문화도시는 2019년에 예비문화도시 시기를 거쳐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는데, 지정 당시 영도구의 도시전략의 바탕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에 있음.

영도구 SWOT분석		외 부 환 경	
		Opportunity(기회)	Threat(위기)
내 부 환 경	Strength(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향통합재개발을 포함하여 영도의 역사, 도시문화적 가치에 주목하는 새로운 문화적 활력 •부산에서 가장 많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난립과 무분별한 개발 욕망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과 •통합적 콘텐츠 전략 부재 •영도 전체의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부재
	SO전략(강점-기회전략)	지역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 -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 형성	ST전략(강점-위협전략)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문화비전 - 생태, 혁신, 주거, 관문지구 등 권역별 특성을 살린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적 비전과 전략의 수립
	Weakness(약점)	WO전략(약점-기회전략) 교류와 협력의 플랫폼 -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기존 산업의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창조인력의 형성	WT전략(약점-위협전략)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 - 공간재생, 창조인력 형성, 지역콘텐츠를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와 문화도시 기반 조성

(그림) 영도구 SWOT 분석과 진단

출처 : 「부산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시 영도구, 24쪽.

- 이는 2016년부터 추진한 “깡깡이에술마을 프로젝트”나 “흰여울문화마을” 등 선행 사업을 통해 영도문화도시의 방향을 설정한 결과임.

<표> 영도문화도시 이전의 사업과 주된 논의

연도	이전 사업	주된 논의
2019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강이예술마을 프로젝트(2016~2018) ■ 현여울문화마을(2015~2019) ■ 제1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생활문화와 근대산업유산 바탕으로 항구도시 부산의 원형 재생 - 문화예술로 도시재생 패러다임 생성 및 낙후된 주거환경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활력증진 -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로 문화도시 추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 ■ 제1차 법정문화도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산의 발굴과 정체성 형성을 주된 과제로 설정 - 권역별 특성화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문화 비전 제시 -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플랫폼 구축 - 공간, 콘텐츠, 사람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형성

■ 성장형 문화도시로서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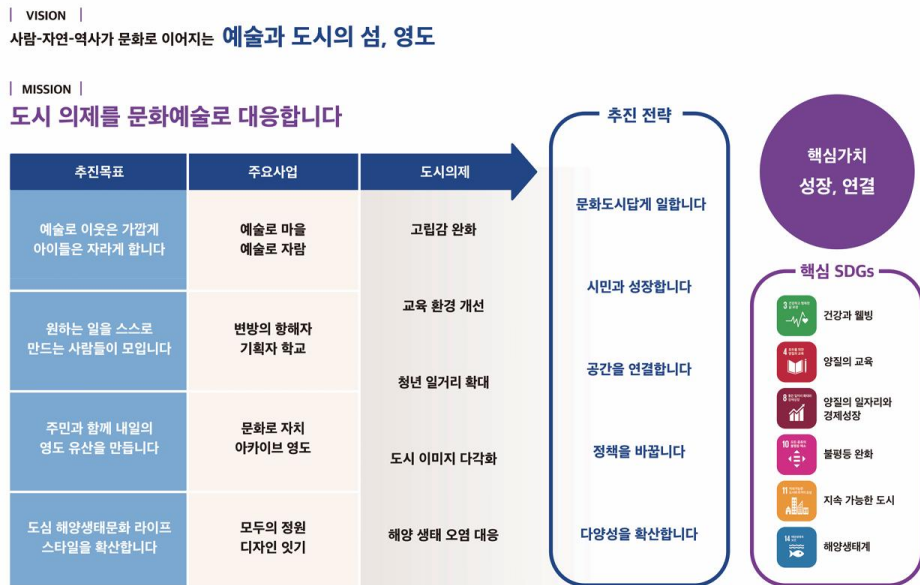
- 영도문화도시는 선정 당시에는, '지역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슬로건으로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를 설정함.
- 이후 법정문화도시 1년 차를 지나면서, 도시의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사람'과 '관계'의 변화를 통해 도시 동력을 촉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설계함.
- 이러한 현상은 비단 1년 차를 지나는 시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5년 전체 과정에서 관찰되는데, 이는 도시 주체와 함께 도시의제를 발굴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을 재구성하는 '성장형 문화도시'의 전형임.
- 따라서, 2021년 이전의 영도문화도시는 '지역의 자산을 발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제'를 본질적 과제를 중심으로 고정된 의제를 구성하였다면, 2021년 '도시의제를 발굴하여 예술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실천 가능한 의제를 통해 도시문제의 본질로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를 정립함.

<표> 영도문화도시 실천 방식의 전환

구분	2021년 이전	2021년 이후
주요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산의 발굴과 정체성 형성 - 권역별 특성화와 장기적 통합적 문화비전 제시 - 교류와 협력의 플랫폼 구축 - 공간, 콘텐츠,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 생태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감 완화 - 교육환경 개선 - 청년 일거리 확대 - 도시 이미지 다각화 - 해양 생태 오염 대응 - 문화유산 보존 - 도시브랜드 확산

■ 영도형 문화도시 모델의 탄생

- 2021년은 ‘문화도시 영도2025’의 수립 시기로,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라는 기존 비전은 유지하되 ‘도시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한다는 미션이 확립되는 시기임.
- 이에 따라, ① 추진목표, ② 주요 사업, ③ 도시의제 ④ 추진전략이 설계되는데, 영도형 문화도시 모델의 특징은 실천 가능한 (혹은 실천해야 하는) 도시의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력과 관계, 도시문화가 변화하도록 구성한다는 점임.



(그림) 문화도시 영도2025 비전체계

출처 : 「문화도시 영도2025」, 영도문화도시센터, 2021, 23쪽

- 또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정하게 해소된 의제는 마무리하고 새로운 의제를 찾는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도시의제는 대체로 ① 고립감 완화 ② 교육 환경 개선 ③ 청년 일거리 확대가 고정되어 있고, 그 외 ④ 도시 이미지 다각화 ⑤ 해양 생태 오염 대응 ⑥ 문화유산 보존 ⑦ 도시브랜드 확산이 유동적으로 등장함.

<표> 영도문화도시의제의 변화

연도	주요 사건	도시의제
2020	영도문화도시센터 설립 및 개소	*추진전략 - 문화적 도시재생 - 협업 플랫폼 - 권역별 특성화 - 지속가능성
2021	의제확정, 브랜드 구축, 워킹 그룹 구성 '영도문화도시센터비전2025' 수립	- 고립감 완화 - 교육환경 개선

연도	주요 사건	도시의제
2022	사업 추진, 공간 운영	- 청년 일거리 확대 - 도시 이미지 다각화(2021~2022)
2023	우수 사업 확산 및 지속 가능 체계 수립 2023 문화도시 박람회	- 해양 생태 오염 대응(2021~2022) - 문화유산 보존(2023) - 도시브랜드 확산(2023)
2024	영도문화도시 2030 수립	- 고립감 완화 - 교육환경 개선 - 청년 일거리 확대 - 도시 이미지 다각화 - 해양 생태 오염 대응

출처 : 「부산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시 영도구, 「영도문화도시센터연차보고서」, 영도문화도시센터, 2020~2023, 「문화도시 영도 2025」, 영도문화도시센터, 2021, 재구성.

■ 영도문화도시의 목표와 사업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영도문화都市는 전체 사업의 추진체계가 정립된 2021년 이후 추진목표와 관련 사업의 일관성을 지님.
- 2024년은 추진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문화의 확산과 인력양성에 비중을 두었던 시기의 다음 과정으로서, 지역 내에서의 활동 자생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임.
- 또한,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문화도시 이후 영도의 미래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영도문화도시의 목표와 주요 사업

연도	추진목표	추진전략	주요사업
2021 ~ 2023	- 예술로 이웃은 가깝게 아이들은 자라게 합니다 - 원하는 일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 문화도시답게 일합니다 - 시민과 성장합니다 - 공간을 연결합니다 - 정책을 바꿉니다 - 다양성을 확산합니다	- 예술로 마을 - 예술로 자람 - 변방의 항해자
2024	- 주민과 함께 내일의 영도 유산을 만듭니다 - 도심 해양생태문화 라이프스타일을 확산합니다	- UN SDGs 지역화를 문화적으로 실천합니다 - 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 의제별 공간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문화다양성을 지지하고 확산합니다 -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 기획자학교 - 문화로 자치 - 아카이브 영도 - 모두의 정원 - 디자인 잇기

출처 : 「부산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시 영도구, 「영도문화도시센터연차보고서」, 영도문화도시센터, 2020~2023, 「영도문화도시센터비전2025」, 영도문화도시센터, 2021, 재구성.

2. 영도문화도시 사업 전후 사회조사 분석

1) 영도문화도시 사업 전후 사회조사 분석 개요

■ 사회조사 개념

- 대부분의 문화도시와 마찬가지로 영도문화도시 또한, 매년 사업의 성과를 정량 혹은 정성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의미를 도출하고 있음.
- 기존의 평가방식과 별도로 영도문화도시 5년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조사 통계를 활용함.
- 사회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및 행복 추구를 정책적 과제로 상정하고 이를 측정하는 방안으로써 매년 실시되는 통계 조사임.
- 조사항목은 시민 생활의 수준과 사회의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2분야 6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분야별 격년제 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시민의식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을뿐더러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사회변화를 유추하기에 쉽다는 특징이 있음.

<표> 부산시 사회조사 개요

구분	내용
최초 실시연도	- 1996년
조사목적	- 시민 생활의 수준과 사회의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 대상가구 : 부산시 거주 17,860 표본가구 - 대상자 : 표본가구 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조사항목	- 총 60~70개 (짹수연도) 건강, 안전, 환경, 가족, 사회통합 분야 (홀수연도) 노동,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분야 ※사회 상황에 따라 조사항목은 일부 이동하거나 추가, 삭제되기도 함.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가구 방문과 배포조사 병행
조사기간	- 매년 9~10월
공표	- 공표주기 : 1년 - 공표시기 : 조사년도 12월 또는 익년 1월 - 공표범위 : 부산시 16개 구·군 - 공표방법 : 국가통계포털(KOSIS), 부산공공데이터포털, 간행물 배부

출처 : Big-데이터웨이브 홈페이지, (접속: 2024.09.24.), <https://data.busan.go.kr>, 재구성

■ 영도문화도시 추진에 따른 도시변화 파악

- 사회조사의 전체 항목 중 ‘문화인력 성장에 따른 임팩트 측정’이라는 본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6개 분야 15개 항목으로 분석 대상을 선별함.
- 대상 항목은 도로, 교통 등의 하드웨어적 도시 인프라와 의료, 환경 등 특수 분야를 제하고, 시민 생활에서의 의식 변화 도출을 주안점으로 두고 선정함.
- 공간적 범위는 부산시 사회조사라는 특성에 따라,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의 평균 응답률과 영도구 거주자의 응답률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함.
- 각 항목에 관한 시계열적 분석 방식을 준용하되, 공통항목에서도 조사 시기가 일관되지 않았을 때 항목별 맥락에 따른 시점을 별도로 적용함.
- 시간적 범위는 영도구가 문화도시에 선정되기 2년 전인 2017년과 가장 최근인 2023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① 2년 이상의 경과 분석 가능한 항목 중 ② 본 연구의 관점에서 맥락화 할 수 있는 시점을 항목별로 유연하게 적용함.
- 도시의 변화를 특정 사업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지만, 문화가치의 확산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문화도시 사업의 목적을 염두에 두었을 때, 해당 시기의 시민의 의식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일은 영도문화도시가 일으킨 사회적 효과를 다층적으로 측정하는 단서가 될 것이라 기대됨.

<표> 부산시 사회조사에서의 선정 항목과 조사 시기

분야	항목	조사 시기 (비교 시점 음영 표기)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강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수준		○		○		○	
안전	부산시 안전 체감도		○		○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		○	
	상황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		○	
교육	학교 교육 외 교육 기회					○		○
	보육환경 만족도					○		○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		○		○
	여가활동 만족도			○		○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용			○		○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	○	○	○	○
사회통합	부산시 정주의사			○	○	○		○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		○	○		○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	○			○		○	
	공동체 의식 정도				○		○	
기타	최우선 추진 정책 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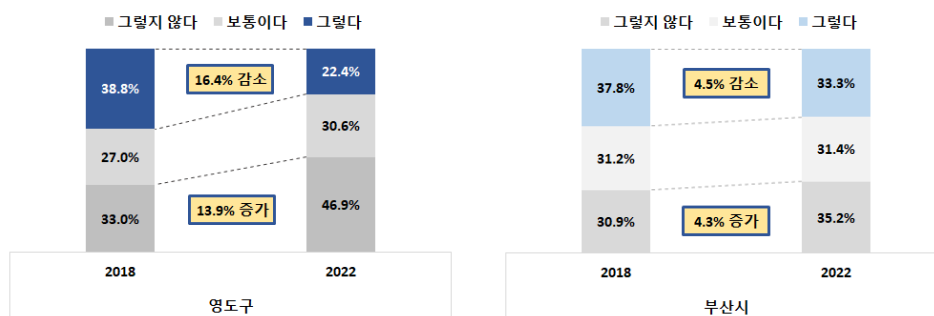
출처 : Big-데이터웨이브 홈페이지, (접속: 2024.09.24.), <https://data.busan.go.kr>, 재구성

2) 영도구 사회조사 시계열적 분석⁹⁾

■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인식

① 직장, 가정,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 부산시 전체에서 “직장, 가정,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2018년과 2022년의 응답을 비교했을 때 ‘보통이다’의 응답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매우/약간 그렇다(그렇다)’라는 응답이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로 이동하고 있어 스트레스 체감도는 완화 추세임.
- 영도구의 경우, ‘매우/약간 그렇다(그렇다)’가 33.8%에서 22.4%로 11.4%가 감소하면서 ‘보통이다’가 근소하게 증가하고,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3.9% 증가하여 영도구민의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감소한 것으로 보임.
- 부산시와 영도구 모두 스트레스 완화 추세이며, 영도구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는 ‘매우/약간 그렇다(그렇다)’를 기준으로 부산시보다 3배 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직장, 가정,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항목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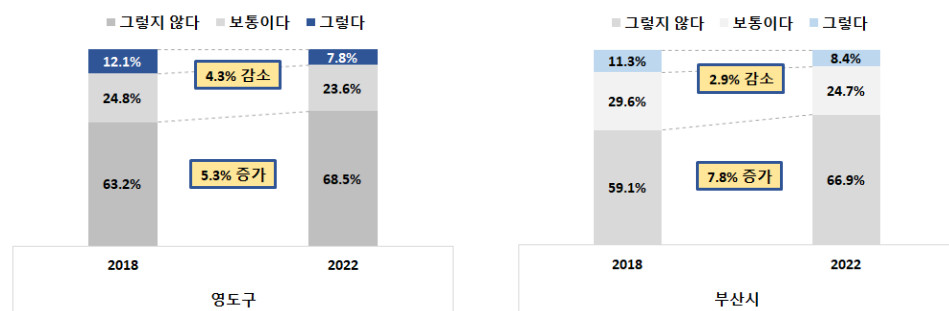
② 스트레스 체감도 완화의 요인

- 이에, 문화활동이나 사회활동, 대인관계의 성숙도에 따른 인식 변화를 추측할 수 있는 ①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②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편이다 ③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항목을 대상으로 선정함.
-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항목의 결과에 따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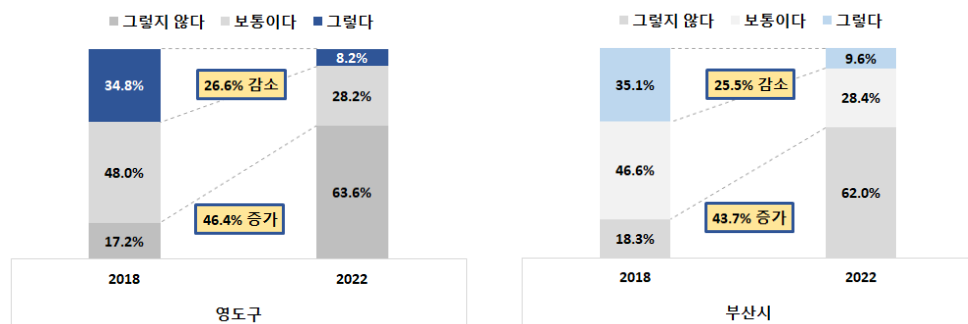
9) 2017~2023년 사이 실시된 부산시의 사회조사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나, 분석 범위는 부산시 평균과 영도구의 결과로 한정했으며, 항목별 조사 시기는 개요 부분을 참조 바람. 사회조사의 응답은 대부분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의 결과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비슷한 응답의 카테고리를 합쳐 3점 척도로 통일하여 그래프를 삽입함. 본문에는 ‘각각의 응답(응답을 합친 새로운 카테고리)’방식으로 표기함. 예를 들어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의 응답을 ‘매우/약간 그렇다(그렇다)’의 방식으로 표기함.

영도구와 부산시는 전체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있다’라는 응답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영도구의 경우 2018년과 2022년 모두 부산시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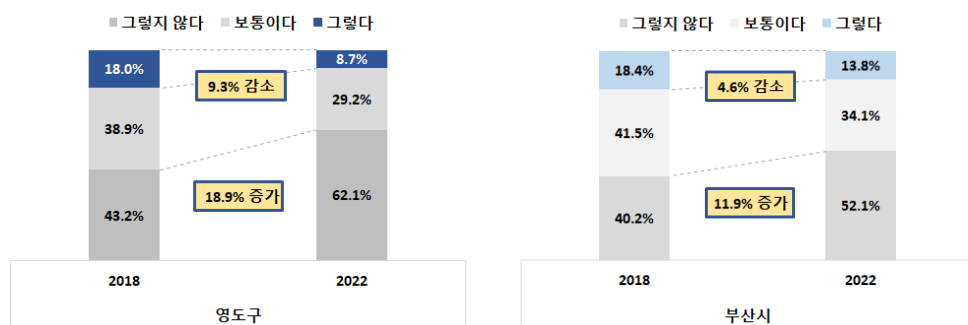
-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편’이라는 항목의 경우 2018년과 2022년의 격차가 큰 편인데, 영도구의 경우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가 2018년 17.2%에서, 63.6%로 46.4% 매우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는 항목의 결과 또한,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영도구의 경우 해당 응답이 모두 부산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스트레스 체감도가 낮아지는 것에는 대화상대나 스트레스 해소, 대인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긍정 방향 응답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영도구의 경우 긍정 방향 답변이 부산시 평균보다 소폭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그림)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항목 응답률



(그림)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편이다' 항목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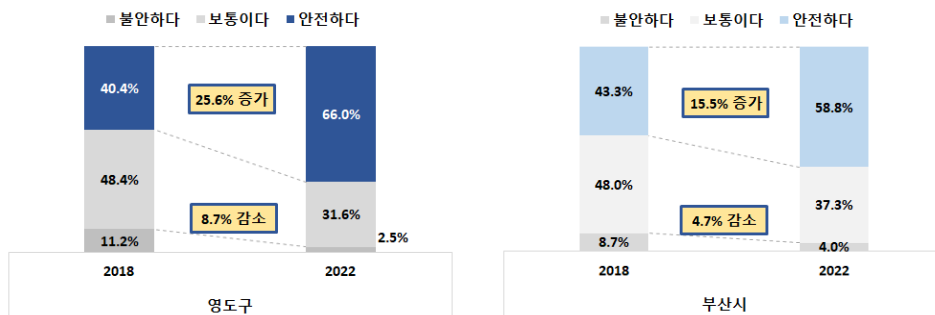


(그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항목 응답률

■ 지역 안전 관련 인식

① 부산시 안전 체감도

- 안전 체감도는 “부산시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지에 관한 항목으로, 기후, 재난, 범죄 위험 등 다양한 요소가 녹아있는 인식의 종합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2018년에 비해 2022년의 부산시 안전 체감도는 부산시 대부분 구·군이 상승하는 추세인데, 영도구의 경우 ‘비교적/매우 안전하다(안전하다)’ 응답이 부산시 평균보다 낮은 40.4%에서 66.0%로 상승하여 부산시 평균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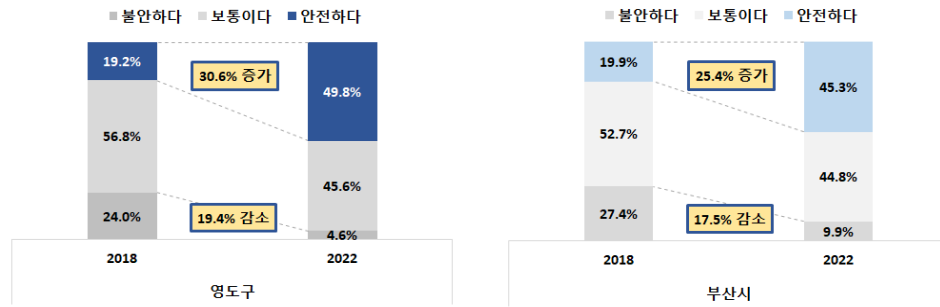


(그림) 부산시 안전 체감도 응답률

②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전반적인 사회안전)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2022년을 기준으로 자연재해, 건축물, 교통사고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총 9개의 분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① 전반적인 사회안전 ②범죄 위험에 관한 항목만을 별도로 분석함.
- 영도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당시 SWOT 분석에 따르면¹⁰⁾ 도시의 위협 요인으로 ‘도시재생의 난립과 무분별한 개발의 욕망’이, 약점 요인으로 ‘조선산업 침체 및 원도심 쇠퇴’, ‘지역경제 쇠락 및 인구감소 추세’가 꼽혔는데, 이는 도시 슬럼화의 요소이기도 함.
- 도시에서의 문화 활동 활성화가 도시의 활력과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온 것을 고려했을 때, 사회안전에도 긍정적인 요인을 미쳤을 거라 가정함.
- 이에, 영도구의 경우 ‘비교적/매우 안전하다(안전하다)’ 응답이 19.2%에서 49.8%로 상승했는데, 이는 원도심 중 가장 높고, 부산시 전체 구·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임.
- 특히 안전하다는 인식이 30.6% 증가하고, 불안하다는 인식이 19.4% 감소한 것은 의식의 비약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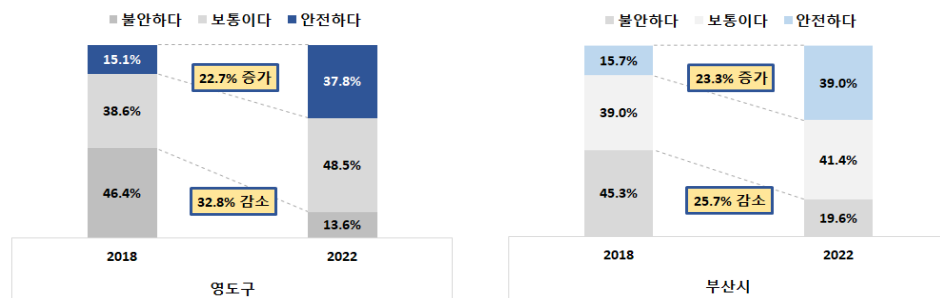
10) 「부산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시 영도구, 24쪽.



(그림)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전반적인 사회안전) 응답률

③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범죄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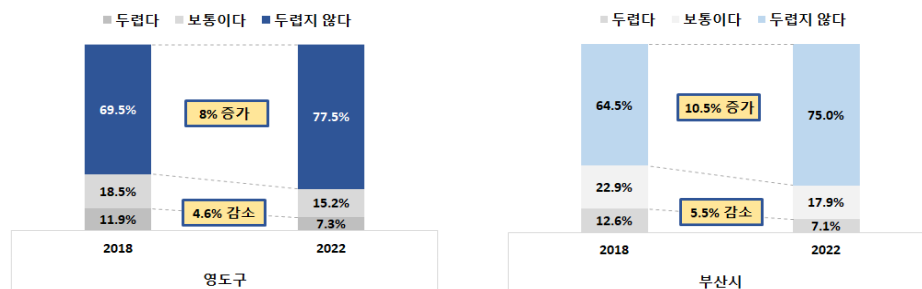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중 범죄 위험에 관한 인식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부산시 전체 구·군에서 ‘비교적/매우 안전하다(안전하다)’라는 응답이 긍정 방향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영도구 또한 부산시와 거의 유사한 증감률을 보임.
- 특히, 영도구의 ‘비교적/매우 안전하다(안전하다)’ 응답률은 2018년 대비 2022년에 22.7%로 상승하여, 이는 원도심에서 가장 높고 부산시 전체에서 세 번째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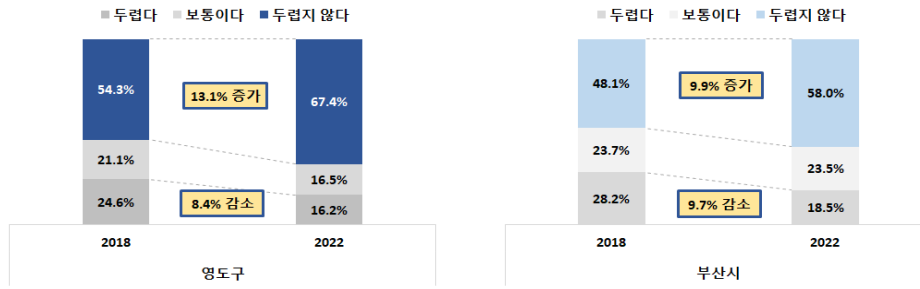
(그림)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범죄 위험) 응답률

④ 상황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 상황별 범죄피해 두려움 관련 항목은 도시 분위기와 대인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① 밤에 혼자 있을 때 ②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로 선정하였는데, 두 항목 모두 ‘전혀 두렵지 않다/두렵지 않은 편이다(두렵지 않다)’ 응답이 부산시 전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밤에 혼자 있을 때’ 항목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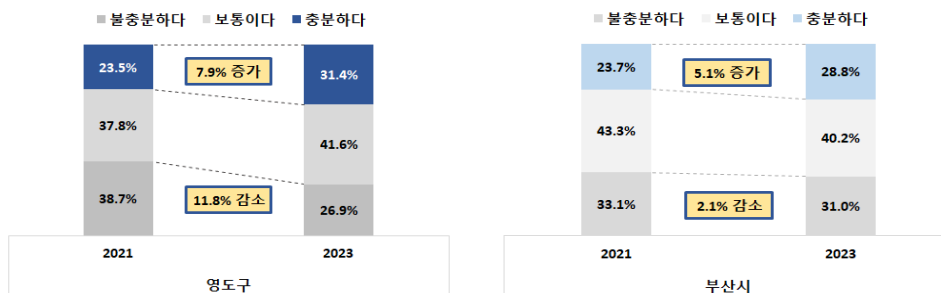


(그림)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항목 응답률

■ 교육 활동 참여기회 관련 인식

① 학교 교육 외 교육 기회 정도

- 영도문화도시는 센터가 조성된 2020년부터 “영도 도시기획자학교(2020)”, “예술로 자람(2021)”, “기획자학교(2021~2023)” 등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분야를 포괄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
- 이에 따라 학교 교육 외 교육 기회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되는데, 영도구의 경우 ‘약간/매우 충분하다(충분하다)’라는 응답이 2021년에 23.5%로 부산시 평균 수준이나, 2023년에는 31.4%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줌.
- 이러한 결과는 ‘보통’이 ‘약간 충분’으로, ‘약간 충분’이 ‘매우 충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나, ‘보통’의 응답률이 37.8%에서 41.6%로 상승한 것 역시 주의해야 할 부분임.
- 이는 ‘학교 교육 외 교육 기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성장한 방증이거나 다양성을 확충해야 하는 시점임을 시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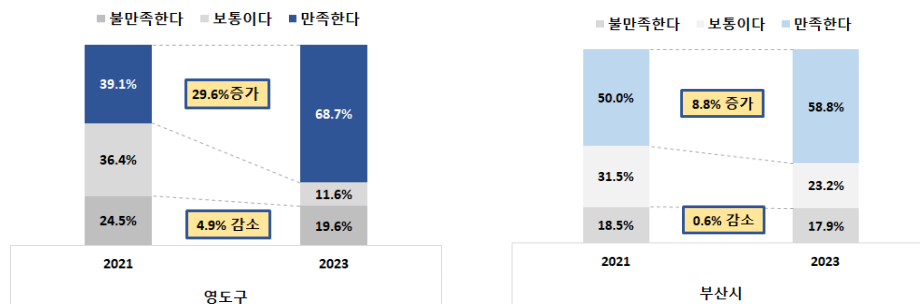
(그림) 학교 교육 외 교육 기회 응답률

② 보육환경 만족 정도

- 보육환경은 기본적으로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가리키며, 이는 가까운 시설에서부터 근린 환경, 전반적인 치안/안전의 만족도, 교육자와 부모의 삶의

질과의 영향 관계인 지표임.¹¹⁾

- 영도구 전반에서 스트레스의 체감도, 사회안전 인식, 교육 기회의 필요성에 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는데, 보육환경 만족도는 조사 시점¹²⁾까지 2021년과 2023년에만 조사되었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남.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영도문화도시는 2021년의 “시민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을 시작한 돌봄동아리가 돌봄 단체로 성장하여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본 연구 FGI를 통해 확인함.
- 또한, 고립 고위험군 주민을 예술가가 방문해 사회 복귀를 독려하는 사업인 “똑똑 똑 예술가”를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이기도 함. 이는 2021년에 설정한 ‘예술로 이웃은 가깝게 아이들은 자라게 합니다.’라는 추진목표와 맞닿아 있음.
- 특히, 보육환경 만족도 조사가 시작된 2021년이 영도문화도시의 돌봄 관련 사업이 본격화되는 해였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지점임.
- 2021년 조사에서 영도구의 보육환경 만족도에 관해 ‘약간/매우 만족한다(만족한다)’ 비율이 39.1% 수준이었으나 2023년 조사 결과는 68.7%로 비약적으로 상승함.
- 이 상승은 특히 부산시 전체 중 하위 네 번째에 해당했던 2021년에 비해, 현재 시점으로 원도심에서 첫 번째, 부산시 전체 중 세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도시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그림) 보육환경 만족도 응답률

■ 문화·여가에 관한 인식

① 문화시설 수 만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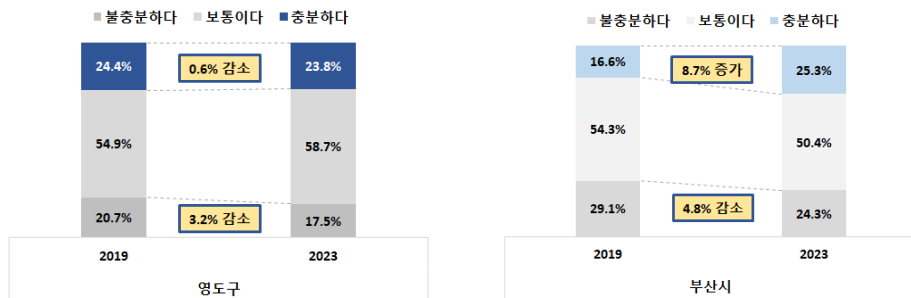
- 문화시설 수에 관한 만족도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영도구 또한 ‘충분/매우 충분하다(충분하다)’는 응답이 소폭 감소함.
-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의 물리적 인프라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규모이며, 구조적

11) 백효진, 「춘천시 도시환경 여건 인식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요 분석 연구」, 강원대학교, 2020.

12) Big-데이터웨이브 홈페이지, <https://data.busan.go.kr>, 2024년 9월 기준.

한계가 있어 문화시설 수에 관한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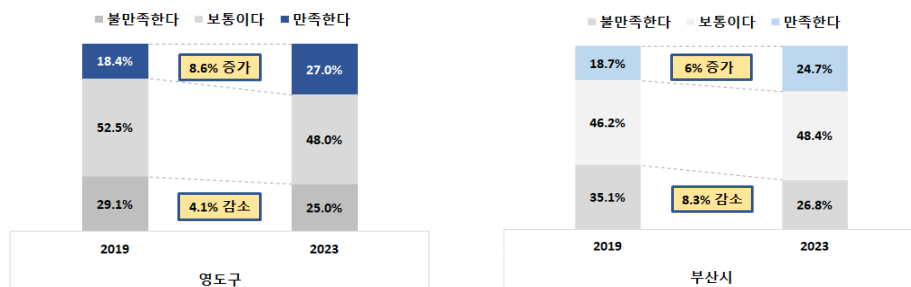
- 반면, ‘불충분/매우 불충분하다(불충분하다)’가 소폭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보통’이 증가세를 보여 부산시 전체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를 읽기 어려움.
- 이에, 영도구의 문화시설 확충이나 운영방안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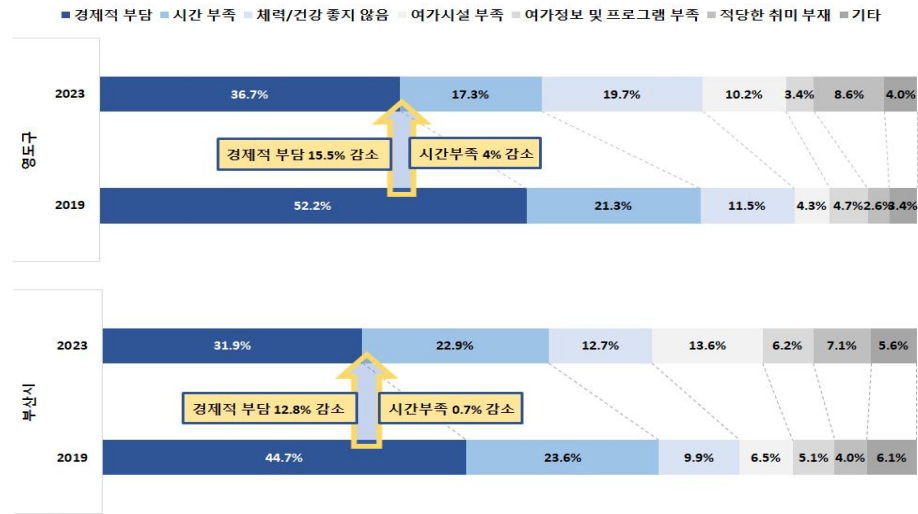
(그림) 문화시설 수 만족도 응답률

② 여가활동 만족도와 불만족 사유

- 문화시설 수 만족도에서 양가적 변화를 보인 것에 반해, 여가활동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약간/매우 만족한다(만족한다)’라는 응답이 8.6% 상승하여 영도구가 부산시보다 높게 나타남.
- 다만, ‘매우/약간 불만족한다(불만족한다)’ 감소 폭이 부산시 전체보다 적게 감소하는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가활동 불만족 사유는 부산시 전체에서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이 압도적이지만, 영도구는 두 응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의미 있음.
- 또한,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에 관한 응답이 줄고, 취미, 체력이나 건강에 관한 응답이 증가하는 등 여가활동에 관한 인식이 환경에서 개인으로 옮겨가고 있어 문화 의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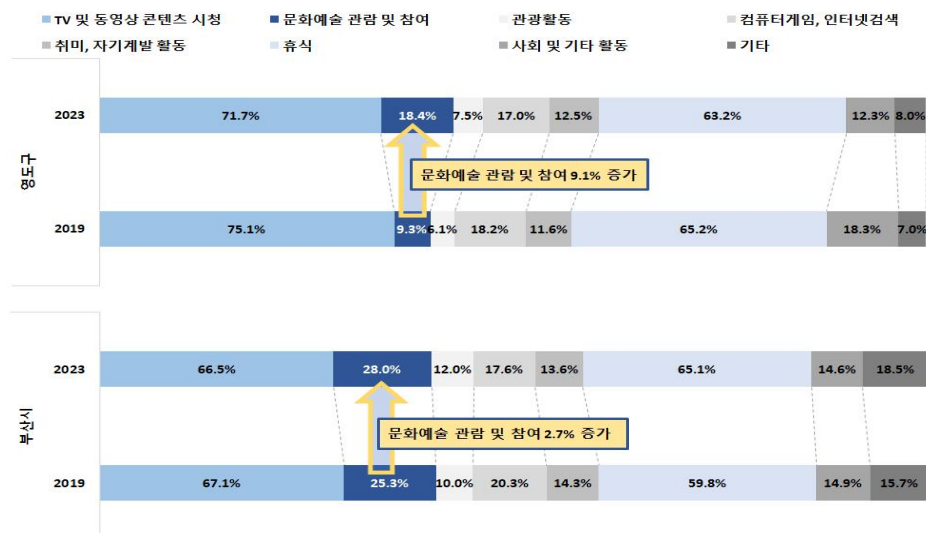
(그림) 여가활동 만족도 응답률



(그림) 여가활동 불만족 사유 응답률(복수응답)

③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용 경향

- 여가 활용 방법은 부산시 전체가 ‘TV/영상 콘텐츠 시청’이 압도적으로 높고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이 그 뒤를 잇는 등 정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이 높게 나타남.
- 그럼에도 위 항목의 응답률이 소폭이나마 감소 추세인 것은,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특히 영도구의 경우,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가 2019년 대비 2023년 큰 증가율을 보였고, 취미와 자기 계발의 활동은 부산시 평균이 감소한 것에 반해, 상승세를 보인 것도 주목할 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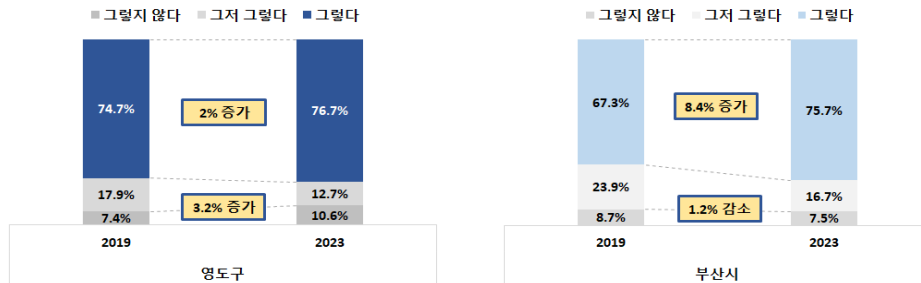


(그림)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용 응답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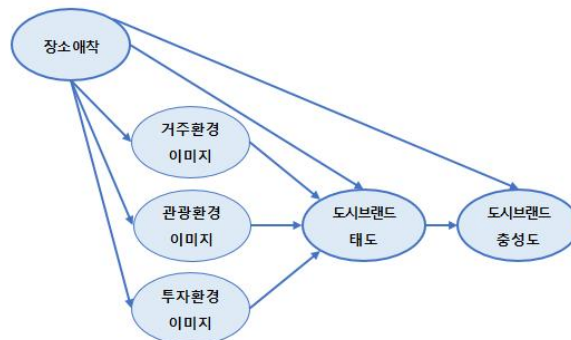
■ 사회통합에 관한 인식

① 지역 정주 의사 정도

- 2019년 조사된 지역 정주 의사에 관해 ‘어느 정도/매우 그렇다(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부산시 평균이 67.3%, 영도구는 74.7%였음. 이때 영도구의 정주 의사는 부산시 전체 구·군 중 8번째에 해당함.
- 2023년 조사 결과, 정주 의사에 ‘어느 정도/매우 그렇다(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부산시 전체 평균이 75.7%로 2019년 67.3%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함.
- 영도구는 2019년에 74.7%였던 ‘어느 정도/매우 그렇다(그렇다)’라는 응답이 2023년에 들어 76.7%로 증가했는데, 이는 부산시 전체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부산시 전반에서 정주 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이나, 영도구의 경우 ‘어느 정도’나 ‘그저 그렇다’라는 비율이 대거 ‘어느 정도/매우 그렇다(그렇다)’로 이동하여 장소 애착이 도시브랜드 태도나 충성도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또한 3.2%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아 도시의 물리적 인프라가 쇠퇴하고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한 여파라고 추정됨.



(그림) 지역 정주 의사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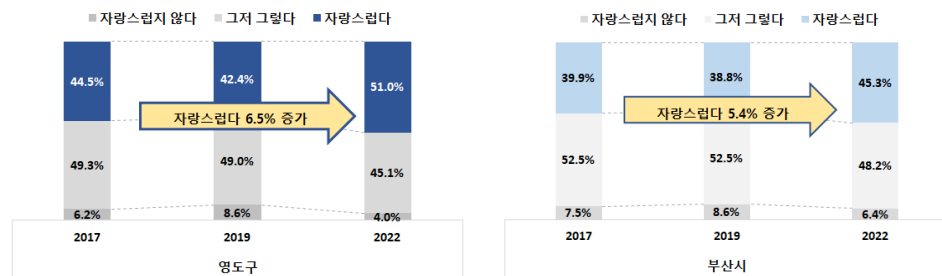


(그림) 장소 애착과 도시브랜드 태도 영향 관계

출처 : 이세규, 「장소애착이 도시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340쪽
 <도시브랜드 효과단계모형>(Keller, 2003) 수정 연구모형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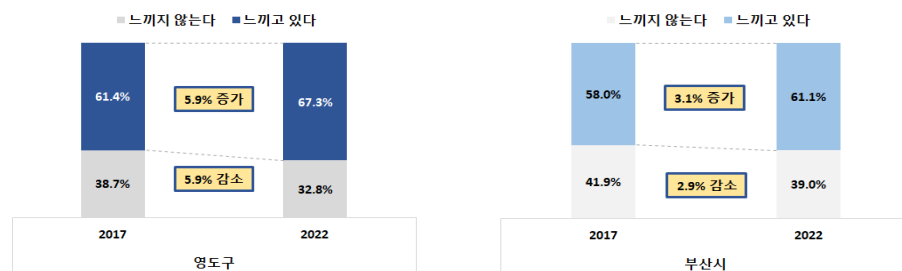
②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지역정체성 정도

- 본 분석의 시간적 범위 내에서,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지역정체성이 함께 조사된 것은 2017년과 2019년, 2022년으로, 2017년과 2022년을 비교 분석함.
- 2017년은 영도구의 도시재생사업인 ‘깡깡이예술마을’, ‘흰여울마을’ 등의 조성 시기로, 현재 영도문화도시의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음.
- 부산시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의 경우 ‘약간/매우 자랑스럽다(자랑스럽다)’는 응답이 39.9%에서 45.3%로 상승하였고, 영도구는 44.5%에서 51.0%로 상승하였음.
- 2017년 영도구의 지역 자부심은 부산시 전체에서 하위 4번째였으나 2023년 부산 전체에서 상위 4번째로, 원도심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변화함.



(그림)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정도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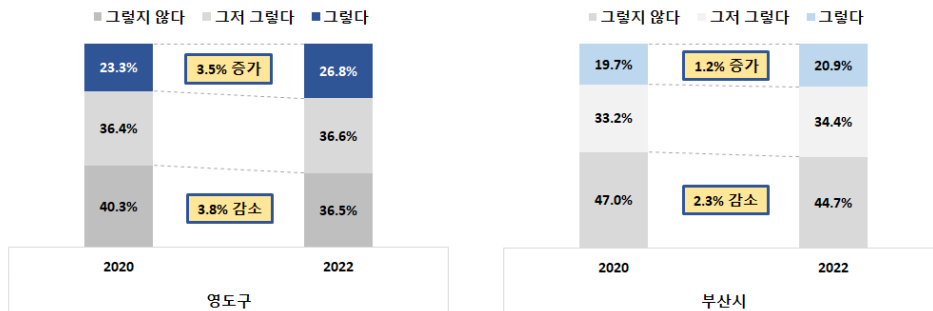
-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영도구민이 지역정체성을 ‘약간/매우 느끼고 있다(느끼고 있다)’라는 응답률이 61.4%에서 67.3%로 상승하여 부산시 전체의 상승률인 3.1%보다 높은 5.9%로 나타남.
- 또한, 지역정체성을 ‘별로/전혀 느끼지 않는다(느끼지 않는다)’라는 비율의 감소도 부산시 전체 감소율 2.9%보다 높은 5.9%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됨.
- 반면, ‘약간/매우 느끼고 있다(느끼고 있다)’가 소폭 상승했는데, ‘별로/전혀 느끼지 않는다(느끼지 않는다)’ 부정 방향 응답이 꾸준히 긍정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읽힘.
- 지역 자부심과 정체성 인식에서 긍정 응답이 높아지는 것은 지역 정주 의지의 상승과 함께, 장소 애착 상승에 따라 도시브랜드 충성도가 성장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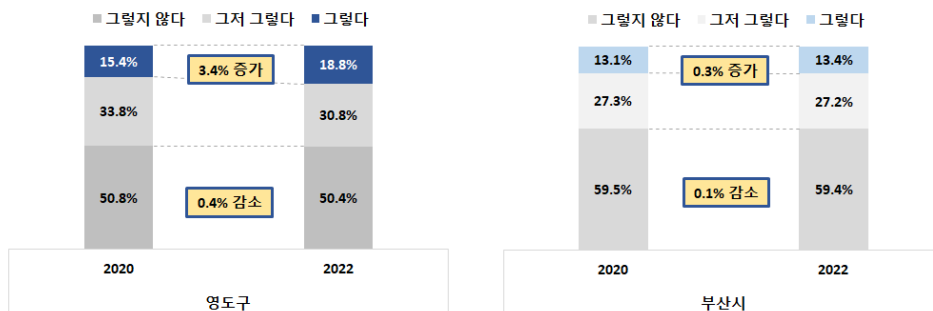
(그림)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 정도 응답률

③ 공동체 의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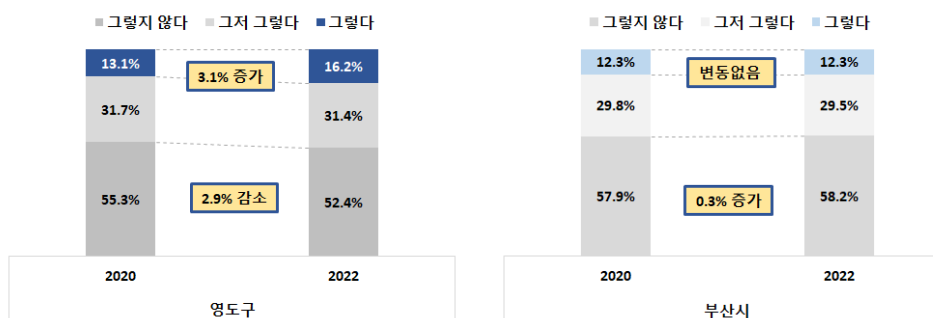
- 2020년과 2022년에 실시된 공동체 의식 정도의 세부 사항은 ①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② 동네 이야기를 자주 한다 ③ 서로 잘 돕는다 ④ 동네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한다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위의 4가지 항목 모두에서 부산시 평균은 그 변화가 미미한 것에 비해, 영도구는 ‘어느 정도/매우 그렇다(그렇다)’라는 긍정 응답이 3.5% 증가하였으며,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라는 부정 응답 비율은 감소하여 종합적으로 부산시 평균보다 공동체 의식의 성장이 엿보임.
-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에 관한 인지 변화는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주민 의식에 주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목으로, 비교적 좁은 시차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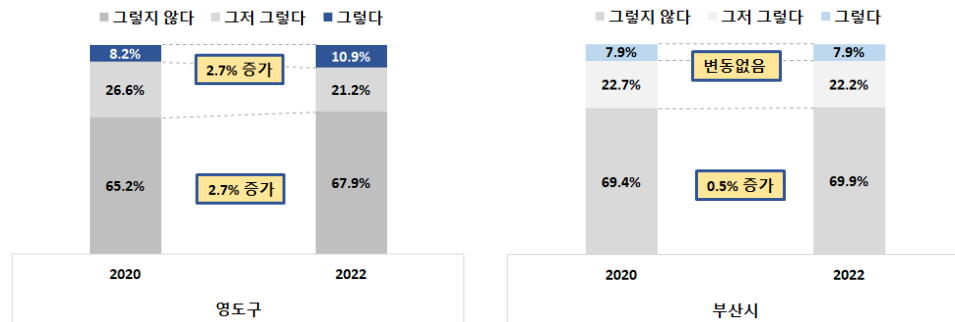
(그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항목 응답률



(그림) '동네 이야기를 자주 한다' 항목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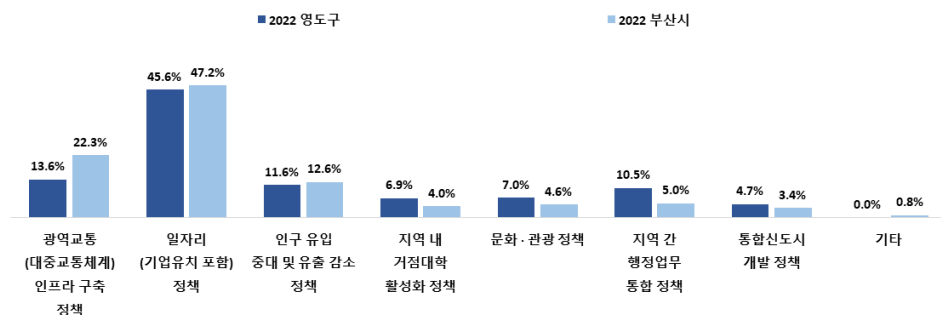
(그림) '서로 잘 돕는다' 항목 응답률



(그림) '동네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한다' 항목 응답률

■ 최우선 추진 정책분야 인식

- 최우선 추진 정책분야는 분석의 시간 범위에서 1회 조사되었는데 부산시 전체에서 '일자리'에 관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다만, 종합 2순위인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영도구의 응답이 부산시 평균보다 8.7% 낮게 나타났고, 인구 유입에 대한 응답도 다소 낮게 나타남.
- 이어, '지역 내 거점대학 활성화', '문화·관광', '지역 간 행정업무 통합' 등에서는 부산시 평균보다 영도구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관광과 행정업무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부산시 전체 구·군에서 가장 높음.
- 일자리와 교통은 도시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물리적 인프라 외부 정세에 더 큰 영향을 받아 문화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항목이기도 함.
- 반면, 교육기관의 활성화, 문화·관광, 행정업무 통합 등 구체적인 인력 상태나 작동 구조의 영향이 큰 정책에 관한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은, 응답자의 사회참여에 관한 주체성과 지역 정책의 유기성에 관한 이해가 높아진 결과로 읽을 수 있음.



(그림) 최우선 추진 정책분야-응답률

IV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이팩트 측정
모니터링

방법 개발

IV.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임팩트 측정 방법 개발

1.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분석

1)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개요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흐름

- 영도문화도시는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필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만들어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문화도시의 방향을 재정립한 2020년을 기준으로 인력 양성사업을 살펴봄.
- 이는 문화도시의 비전과 미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력양성의 관점과 방향이 달라지는데, 영도문화도시의 경우 본도시 지정 첫해인 2020년은 비전 체계를 재구성하였음.
- 따라서, 영도문화도시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담은 본격적인 인력 양성사업은 2021년 이후부터 진행하였음.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개요

- 영도문화도시시는 인력 양성사업이 고정적인 형태로 진행되기보다는 매년 문화도시의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사업에 녹여내는 형태로 진행됨.
- 그러나 이는 2021년 새로운 실험 과정을 통해 초기의 영도문화도시 계획을 재구성한 『문화도시 영도2025』 이후에는 인력 양성사업의 기초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띠지만, 매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함.
- 따라서 영도문화도시의 인력 양성사업은 가장 근간이 되는 “기획자학교(나중에 “기획자의집”으로 연결)”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됨.

<표> 영도문화도시 문화인력 양성사업 연도별 사업 구분

구분	본사업	세부사업
2020년	도시기획자학교 (영도가 문화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생태문화기획자과정- 축제문화기획자과정- 전환 도시문화기획자과정- 지역문화기록자과정- 디자인 기획자과정

구분	본사업	세부사업
2021년	변방의 향해자	- 프로젝트 영도 - 물양장컬렉션 - 봉래동 2X4시간
	기획자학교	- 영도 기획자의 집 - 여성기획자 NEXT STAGE in 영도 - 문화도시 상생협의체
2022년	기획자학교	- 기획자의 집 - 기획자 레지던시 - 동남권 문화인재협의체
2023년	기획자학교	- 기획자의 집 - 기획자 레지던시 - 동남권 문화인재협의체
2024년	기획자학교	- YD문화인클럽 - YD빌드업 클럽 - YD 도시연결자 - 임팩트 측정연구

출처 : 각 연도별 문화도시 추진계획서

2)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세부내용

■ 2020년 문화인력 양성사업

- 영도문화도시는 이론 강좌와 사례 연구, 문화탐방 및 실전 워크숍을 결합한 다층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및 공유 과정을 통해 도시, 문화, 사람을 연결하는 도시문화기획자를 발굴 양성하고자 함.
- “도시기획자학교”는 “영도가 문화학교”라는 사업명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되었으며, ① 도시 생태문화기획자과정 ② 축제문화기획자과정 ③ 전환 도시문화기획자과정 ④ 지역문화기록자과정 ⑤ 디자인 기획자과정 총 5개의 주제로 운영함.
- 2020년은 영도문화도시를 이끌어 갈 다양한 주체의 발굴이 요구되는 시기였으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거나 다른 활동에 종사하던 기획인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음.

① 도시 생태문화기획자과정

- 이 과정은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의 생태문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사례를 탐구하는 도시 생태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과정임.

계획수립	과정 진행	결과 및 분석
○ 지역생태계 진단	○ 오리엔테이션	○ 생태도시 동향(조사)연구
○ 커리큘럼 관련 자문 진행	○ 전문가 특강	○ 연구기획 및 파일럿 운영
○ 프로젝트 운영주체 발굴	○ 생태분야 사례공유	○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진행
○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지역 생태 탐방	○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진행
○ 각 분야별 전문가 섭외	○ 분야별 전문가 매칭	

(그림) 도시 생태문화기획자과정 사업 운영 흐름

출처 : 영도문화도시 내부자료, 「영도문화도시센터 연차보고서(2020)」, 2021, 32쪽

② 축제문화기획자과정

- 이는 축제 본연의 의미를 되짚어보며 비대면 이후의 새로운 축제 형태를 고민해 보고 기획해 보는 축제문화기획자 양성과정으로, 특강, 워크숍, 멘토링, 결과공유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음.

<표> 축제문화기획자과정 사업 운영 내용

구분	내용
Review WEEK(특강)	- 강사 초청을 통해 담론강연 및 토론 진행(총 5회)
ReFresh CAMP(워크숍)	- 조별 활동을 통한 기획자 네트워크 형성(1박 2일 1회)
ReGane WEEK(멘토링)	-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밀착교육 진행 (총12회)
축제기획발표	- 최종 기획발표회 (결과공유회)

출처 : 영도문화도시 내부자료, 「영도문화도시센터 연차보고서(2020)」, 2021, 34쪽

③ 전환 도시문화기획자과정

- ‘전환 도시문화기획자과정’은 새로운 문화를 궁리하고 영도의 지속 가능한 문화적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강의와 실습 및 멘토링으로 구성된 “도시기획자 학교”의 메인 과정임.

<표> 전환 도시문화기획자과정 사업 운영 과정

구분	내용
실습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킹 및 개별 특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습 워크숍 진행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니어 문화기획자 및 청년 문화기획자 섭외 - 지역문화 주제강연 및 포럼 : 주제별 강연 및 주제 토론 - 기획 활동 실습 : 퍼실리테이터 협력을 통한 기획서작성 실습 - 기획서 발표 : 영도 지역문화 기반 기획서 발표, 평가 및 컨설팅

구분	내용
문화기획 온라인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획 입문에 필요한 태도, 공감력, 감수성에 대한 개념 정의 - 문화다양성, 지역문화, 동시대 예술, 예술기획연구, 젠더 및 성인지감수성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섭외 - 추후 특화주제 콘텐츠 개발 시 기반 될 수 있는 상세한 사례제공
특화주제별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주제별 커리큘럼 기획 및 참여자 매칭 - 그룹별 커리큘럼 운영 → 맞춤형 강연, 실습, 현장답사, 회의 등 - 과정 개발 및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 과정별 공유회

출처 : 영도문화도시 내부자료, 「영도문화도시센터 연차보고서(2020)」, 2021, 36쪽

④ 지역문화기록자과정

- ‘지역문화기록자과정’은 다양한 시각에서 영도를 탐구하고, 자신의 시각으로 기록해 나가는 예비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임.

<표> 지역문화기록자과정

구분	내용
강의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총 6강 강의 진행 - 아카이브의 의미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강의 구성
현장 조사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의 영도 현장 실습을 위한 팀제 워크숍 운영 - 현장 실습을 통한 기록자원 체험과 지역에 대한 이해도 상승
자율 설계 실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개인의 아카이브 기획안 작성을 위한 개인 리서치 기간 - 기획안 작성 중, 참여자가 원하는 분야 혹은 명사를 센터에 신청하여 참여자-명사를 온라인으로 매칭 하는 강의 형태 - 총 3건의 자율설계 강의 매칭 완료

출처 : 영도문화도시 내부자료, 「영도문화도시센터 연차보고서(2020)」, 2021, 38쪽

⑤ 디자인 기획자과정

- 이 과정은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신이 기획한 사업을 더욱 빛나게 브랜딩해보는 디자인 기획자 양성과정임.

<표> 디자인 기획자과정

구분	내용
디자인의 이해(4회)	디자인의 역사, 언어, 문자의 해석, 디자인의 언어적 바탕 살펴보기
IMJ 작업파일 열어보기(4회)	2003년 칼아트 프렉티컴 강연시리즈 포스터, 워크 메이드 인 발렌시아 포스터, '종이와 콘크리트'전시포스터, 현대백화점 상품권 살펴보기
타입에 관한 비평(4회)	휴머니스틱한 고전, 모던스타일, 신 타이포그래피의 원칙, 좀비모더니즘 살펴보기

구분	내용
타이포그래픽 실습(3회)	타이포그래피 수평, 수직 대각선그리드 실습
영도 시각언어툭아보기(1회)	참여자들이 느낀 영도의 시각언어를 사진으로 살펴보며 영도의 매력을 공유

출처 : 영도문화도시 내부자료, 「영도문화도시센터 연차보고서(2020)」, 2021, 40쪽

■ 2021년 문화인력 양성사업

- 2021년 문화인력 양성사업은 “변방의 항해자”와 “기획자학교” 사업으로 운영되었는데, 2020년에 발굴된 인력의 상호 네트워크 기회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영도구가 지역 내외를 아우르는 문화인력의 성장기반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다짐.
- 2021년 사업은 영도구 도시 차원의 창조역량을 확장하고 양성사업의 안정성 강화를 도모하는 시기로, 인력 양성사업이 ‘기획자학교’라는 이름을 처음 달고 추진된 해이기도 함.

① 변방의 항해자

- “변방의 항해자”는 창작자들이 교류하는 기회의 확대와 영도 독립 기술자 역사성의 문화적 계승, 도시의제의 창작적 표현 등을 추진 방향으로 삼음.
- 영도의 예술인, 독립워커, 주민이 어우러지며 지역의제와 예술이 교차하는 담론을 형성하고 창조적·참여적 작업으로 이으며 영도구의 창조역량 강화를 도모함.
- 독립워커는 영도문화도시의 핵심 목표인 ‘원하는 일을 스스로 찾는 사람들’을 정체성화한 호칭임.
- 이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프로젝트 영도”, “물양장컬렉션”, “봉래동2X4시간”을 추진함.

<표> 변방의 항해자 사업 세부내용

구분	세부사업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자가 활동하기 좋아야 도시가 발전합니다. - 영도는 독립 기술자들이 성장시킨 도시입니다. - 갭장이예술마을로 문화예술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실천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자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찾아오도록 합니다. - 독립 기술자 역사성을 문화적으로 계승합니다. - 공론하고 실험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영도주민, 전국의 독립워커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영도 : 예술가 및 영도주민과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실천 및 담론 형성 - 물양장컬렉션 : 물양장 기반의 전국 독립워커 및 영도민의 교류와 연대 형성 - 봉래동2X4시간 : 영도 예술가들의 교류 촉진과 봉래동 물양장의 문화적 재해석

출처 : 영도문화도시 내부자료, 「영도문화도시 2025」, 2021, 26~28쪽,

② 기획자학교

- 법정문화도시 선정 당시 영도구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는 1.83%수준으로, 문화도시를 추진할 인적자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었음.
- 이에, 영도의 도시의제를 대응하며 전업/겸업을 막론한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인재의 양성이 영도문화도시의 핵심과제로 설정되었고, “기획자학교”라는 이름의 인력 양성사업이 정식 추진됨.
- 세부사업으로 “영도 기획자의 집”, “여성기획자 NEXT STAGE in 영도”, “동남권 문화인재협의체”를 추진하여, 문화기획자의 발굴과 성장이라는 양성체계가 정립되었고 네트워크 축진이 지속됨.
- 세부사업인 “영도 기획자의 집”의 경우, 사업대상을 문화기획 입문자로 한정해 접근성을 대폭 낮추고, 기관의 일자리 제공이 아닌 일자리 창출 주체를 양성하기 위한 단계별 성장 촉진 환경을 설계하는 등 문화인력의 발굴과 성장 체계를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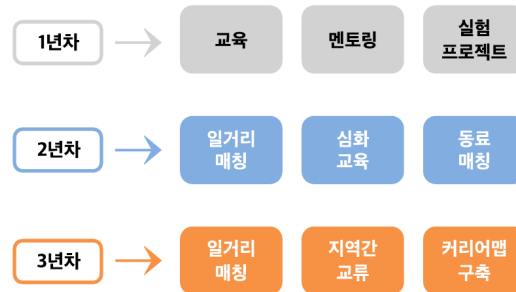
<표> 기획자학교 사업 세부내용

구분	세부사업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도구 사업체와 종사자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낮은 비율 - 사회문제로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기획자의 필요성 증대 - 기존의 노동제를 벗어난 대안 일거리, N잡 현상 등 심화
실천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도 문화기획자를 성장시킵니다 - 기획자 레지던시로 동네를 바꿉니다. - 동남권 문화인재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도 기획자의 집 : 문화기획 입문자 - 여성기획자 NEXT STAGE in 영도 : 여성문화기획자 및 문화예술계 여성종사자 - 동남권 문화인재협의체 : 전국 문화도시 실무자 및 관계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도 기획자의 집 : 도시의제를 문화적으로 대응하는 기획자의 성장, 동료 탐색, 일거리 연결 - 여성기획자 NEXT STAGE in 영도 : 영도 기반의 전국 여성기획자 네트워크 초석 마련 - 동남권 문화인재협의체 :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 및 공동사업 참여

출처 : 영도문화도시 내부자료, 「영도문화도시 2025」, 2021, 28~30쪽,
「영도문화도시센터 연차보고서(2021)」, 2021, 42~47쪽, 재구성

- 2021년 실험을 통해 영도문화도시는 인력 양성사업의 방식을 거의 완성하는데, 그것은 교육과 멘토링, 실험 프로젝트, 일거리 매칭, 심화교육, 동료 매칭, 지역 간 교류, 커리어 맵 구축으로 이어지는 성장 지원방식임.
- 이러한 과정 설계는 이후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기본 형태가 되며, 영도 문화도시 크루들은 이를 지원, 매개, 촉진, 연결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됨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됨.



(그림) 영도 기획자의 집 운영 방식

출처 : 「문화도시 영도2025」, 영도문화도시센터, 2021, 30쪽

■ 2022년~2023년 문화인력 양성사업

- 2020~2021년 문화인력 양성사업은 별개의 사업들로 구성되었으며, 사업 담당자 또한 사업별로 구성되어 있었음.
-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획자학교”라는 이름으로 문화인력 양성사업이 통합되고, 담당자도 일원화되어 운영되었으며, 2021년 “기획자학교”의 추진배경을 계승함.
- 2022년~2023년의 “기획자학교”사업의 세부사업은 ① 기획자의 집 ② 기획자 레지던시 ③ 동남권 문화인재협의체 총 3개의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연도별로 사업의 명칭은 같으나 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변화가 존재하였음.
- 2022년도 사업의 개선점으로 ① 입문 과정 종료 후 졸업생 지원 프로세스 체계화 ② 후속 지원의 경우 단순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양 ③ 졸업생 간 커뮤니티 형성 강화 ④ 일거리 확장에 도움 되는 도시 간 교류 추진을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문화인력 양성사업의 변화가 다소 이루어짐.

① 기획자의 집

- 2022년과 2023년 “기획자의 집” 사업은 2021년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일거리 연결을 통해 지역문화인력 발굴 및 전문역량을 성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음.

<표> 2022년~2023년 기획자의 집 사업 세부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대상	- 문화기획 1년 미만 입문단계 시민
추진전략	- 신규 문화기획자 발굴 - 기획자 교육과정 개설

구분	사업내용	
	- 문화적 일거리 연결	
사업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생태, 모두의여행, 아카이브, 성평등 총 5개 특화과정, 7개 분과별 멘토링 및 공통 워크숍 진행 - 실험 프로젝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커뮤니티생태, 모두의여행, 아카이브, 성평등 총 5개 특화 과정 운영 - 지역탐사, 워크숍, 기획 멘토링, 특강 등 공통과정 운영 - 지역자원 활용한 소규모 실험 프로젝트 지원

출처 : 영도문화도시 내부자료, 「영도문화도시센터 연차보고서(2022)」, 2022, 42~43쪽,
「영도문화도시센터 연차보고서(2023)」, 2023, 40~41쪽, 재구성

② 기획자 레지던시

- “기획자 레지던시” 사업은 기존의 예술가 레지던시의 틀을 벗어나 영도 내 문화기획자들의 활동 정주 여건(공간, 네트워크, 활동 기회 등) 마련 및 강화에 중점을 둠.
- 2022년 사업은 “기획자의집” 수료생들의 문화적 일거리를 연결해주는 “기획자 커리어맵”, 지역 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연결공간 MOU”와 영도 문화기획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연결기획자 지원사업”으로 구분됨.
- 이중 “연결기획자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에는 기획자의 집 수료생 및 문화기획 입문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2023년도에는 영도 내 활동 의지가 있는 3년 이하 문화기획자로 그 폭을 넓혀 운영하였음. 즉 2023년에는 사업대상의 폭을 넓히면서, 지역 내 문화기획자 양성에 집중한 것으로 보임.

<표> 기획자 레지던시 사업 세부내용

구분	2022년	2023년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자 커리어맵: 기획자의집 수료자 - 연결공간 MOU: 영도 내 공간 운영자 - 연결기획자 지원사업: 기획자의집 수료자 및 1년 이상 문화기획 활동 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공간 MOU: 영도 내 공간 운영자 - 연결기획자 지원사업: 영도 내 활동 의지가 있는 3년 이하 활동 초기 단계 문화기획자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자 커리어맵: 졸업생 문화적 일거림(일거리) 연결 - 연결공간 MOU: 연결공간 발굴 및 협약 - 연결기획자 지원사업: 기획자 활동공간 매칭 및 프로젝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공간 MOU: 연결공간 발굴 및 협약 - 연결기획자 지원사업 : 기획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기획자 활동공간 매칭 및 프로젝트 지원
사업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자 커리어맵: 졸업생 일거리 연결 및 후속 경력관리 - 연결공간 MOU: 영도 내 기획자 활동공간 발굴 및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공간 MOU: 문화예술인 프로젝트 공간 발굴 및 해당 공간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자 매칭 - 연결기획자 지원사업: 활동 공간 매칭 및

구분	2022년	2023년
	- 연결기획자 지원사업: 영도 내 활동 의지가 있는 기획자 공간, 프로젝트 지원	프로젝트 지원, 컨설팅, 네트워크 등 지역 기반 활동 기획자 인큐베이팅

출처 : 영도문화도시 내부자료, 「영도문화도시센터 연차보고서(2022)」, 2022, 44~45쪽, 「영도문화도시센터 연차보고서(2023)」, 2023, 42~43쪽, 재구성

③ 동남권 문화인재협약체

- “동남권 문화인재협약체” 사업은 동남권 지역문화 도시들과 문화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사업과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문화예술인력 협력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 2022년도에는 지역문화인력의 활동성과 및 일거리 담론을 나누고 참여 도시 간 협력을 강화했다면, 2023년에는 지역 내 문화인력 양성 협력체계 강화 및 지역과 장르를 벗어나 동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표> 동남권 문화인재협약체 사업 세부내용

구분	2022년	2023년
사업대상	- 전국 문화기획자 및 문화예술 종사자 - 부산 내 문화도시 추진 기관	- 전국 문화도시 내 활동 문화기획자 - 부산 내 문화 창업 관련 기관
추진전략	- 기획자 교류사업 추진 - 양성사업 제도개선 및 성과확산 - 부울경 내 활동 기획자 참여 확대 - 인재협약체 구축	- 부산 지역 인재 협약체 구축 - 전국단위 기획자 교류사업 추진 - 문화분야 일거리 교류 담론 확산
사업 세부내용	- 월간포럼 아무튼 기획자 어워드 : 청년 문화기획 활동사 시상 - 문화도시 영도 일거리 포럼 : 문화전문인력양성 의제 및 문화적 일거리 담론 확산 - 부울경 문화기획자 넥스트 스테이지 : 부울경 내 활동 기획자 교류 - 부산문화도시협약체 : 부산 내 문화도시 확산 및 협력강화	- 부산 문화 창업 생태계 조성 MOU : 영도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창업자 교육 업무 협약 - 로컬문화인 쇼케이스&살롱 : 전국 활동 문화기획자 쇼케이스 및 네트워킹

출처 : 영도문화도시 내부자료, 「영도문화도시센터 연차보고서(2022)」, 2022, 46~47쪽, 「영도문화도시센터 연차보고서(2023)」, 2023, 44~45쪽, 재구성

■ 2024년 문화인력 양성사업

- 2023년 문체부는 지역문화 정책 중점 추진과제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창의적인 문화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설정하여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로 정책 기조를 설정함.
- 이런 기조 변화와 연결하여 영도문화도시 문화인력 양성사업 또한 지역문화 창업 특화 교육 제공 및 지원사업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전략을 세움.

① YD문화인클럽

- “YD문화인클럽”은 지역문화인들의 교류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도 지역 문화인재 파트너데이’를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인력들의 플랫폼 역할을 만들고자 함.

<표> YD문화인클럽 사업 세부내용

구분	내용
사업대상	- 기획자학교 수료생 및 문화도시 참여 지역문화인
추진방향	- 지역문화 창업 특화 교육 진행 - 지역문화인재 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사업 세부내용	- 지역문화 창업교육 - 지역문화인 살롱 개최 - 영도 지역문화인재 파트너데이 개최

출처 : 영도문화도시 내부자료, 「2024년 기획자학교 기본계획」, 8쪽

② YD빌드업클럽

- “YD빌드업클럽”은 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로컬기반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는 스케일업 실무교육을 진행하고자 함.

<표> YD빌드업클럽 사업 세부내용

구분	내용
사업대상	- 지역 내 로컬기업 및 지역문화창업 희망자
추진방향	- 로컬기반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스케일업 지원 - 지역문제 및 사회적 가치 제고하는 프로젝트 추진
사업 세부내용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로컬비즈니스 주제 공모사업 추진 - 지역 커뮤니티 브랜드 개발 및 홍보 - 로컬기업 공동 프로젝트 발굴

출처 : 영도문화도시 내부자료, 「2024년 기획자학교 기본계획」, 9쪽

③ YD도시연결자

- “YD도시연결자” 사업은 지역문화인력들의 시야 확장을 위하여 타도시 지역문화 창업가 교류 및 현장 탐방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상호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표> YD도시연결자 사업 세부내용

구분	내용
사업대상	- 기획자학교 수료생 및 문화도시 참여 지역문화인
추진방향	- 지역문화 활동 시야 확대 - 지역문화인재 교류 네트워크 다각화
사업 세부내용	- 부울경 권역 문화도시 실무자 대상 지역문화인재플랫폼 역할 및 교류워크숍 추진 - 타 도시 지역문화 창업가 교류탐방 운영

출처 : 영도문화도시 내부자료, 「2024년 기획자학교 기본계획」, 9쪽

④ 임팩트 측정연구

- 영도문화도시를 통해 성장한 지역문화인력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했는지에 관한 지표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표> 임팩트 측정연구 사업 세부내용

구분	내용
사업대상	- 문화도시 영도를 통해 성장한 지역문화인 및 양성과정 수료생
추진방향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성장한 주체들 변화 활동 결과 추적 - 지역문화인재 양성사업을 통한 도시변화 및 경제적 효과 측정
사업 세부내용	- 임팩트 측정연구 지표 설계 및 측정 - 임팩트 측정 성과평가 및 개선점 도출 - 향후 개선과제 솔루션 제언 및 임팩트 확산

출처 : 영도문화도시 내부자료, 「2024년 기획자학교 기본계획」, 9쪽

2.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운영원리 분석

1)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관계자 그룹인터뷰 분석

(1) 영도문화도시 그룹인터뷰 경과

■ 그룹인터뷰 개요

- 일 시 : 2024년 8월 14일(수)
- 장 소 : 깡깡이생활문화센터 1층 대평마을다방
- 목 적 : 영도문화도시센터 문화인력 양성사업의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요인 발견

■ 그룹인터뷰 대상 선정

- 영도문화도시센터의 문화인력 양성사업과 주체의 성장 및 영향 관계를 다각도로 탐색하기 위해 그룹인터뷰 대상을 설정함.

<표> 영도문화도시센터 그룹인터뷰 대상

일시	구분	진행자	참여자
8/14(수) 10:00	문화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2020~2021)	최혜자	- 한수련 (라이스케이팅 대표) - 정윤주 (20년 디자인과정 졸업) - 한정석 (영도한마음선원 재직/ 20년 문화학교 기록과정 졸업) - 이유미 (꽃기리네대표/ 22년 커뮤니티과정 졸업)
8/14(수) 10:00	문화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2022~2023)	심한기	- 이혜지 (22년 성평등 과정/ 22~23 기획자학교 협력 크루) - 이성영 (블루몬트페인팅 공방 운영/ 23년 커뮤니티 과정 졸업) - 김성윤 (협력크루 /23년 아카이브과정 졸업) - 서윤미 (함께키움 대표 /22년 커뮤니티과정 졸업)
8/14(수) 16:00	문화인력 양성사업 외 성장인력	최혜자	- 황수정 (스스로고 대표/ 센터 디자인 관련 메인파트너) - 김유화 (콘서트하우스 공간 운영중/ 똑똑똑 예술가 참여) - 김미정 (모드니공방운영/ 24년 연결공간 지원사업 참여) - 배영건 (영도로컬문화비즈니스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
8/14(수) 16:00	예술마을PD	최혜자	- 박태양 (예술마을PD) - 김순자 (예술마을PD) - 김정미 (예술마을PD)
8/14(수) 13:00	문화인력 양성사업 담당자	최혜자	- 전소영 (영도문화도시센터 문화팀 파트장 /기획자학교) - 이수정 (영도문화도시센터 문화팀 /예술로자람) - 한예리 (영도문화도시센터 도시팀 파트장 /향해캠프) - 이가인 (영도문화도시센터 도시팀 /예술로마을)

■ 인터뷰 주요 내용

- 사업 참여자의 그룹인터뷰는 ‘진입과정’, ‘성장기점’, ‘영향관계’, ‘변화 체감도’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개인별로 정리하되 중복된 의견은 공통 의견으로 정리함.
- 사업 담당자의 경우, 담당 업무를 중점에 두고 ‘개인’, ‘사업 소개 및 평가’, ‘운영 특징’, ‘변화 지점’, ‘문제의식’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함. 담당자 인터뷰 역시 개인별 정리를 원칙으로 하되, 중복 의견은 공통 의견으로 정리함.

<표> 그룹인터뷰 키워드

구분		키워드
사업 참여자	문화인력 양성사업 (2020~2021) 참여자	① 진입과정 : 성장환경을 통한 개인차 도출, 이전에 하던 일과 영도문화 도시를 만난 계기
	문화인력 양성사업 (2022~2023) 참여자	② 성장기점 : 개인차 기반의 성장과정 도출 혹은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차 도출 (참여사업 변화, 새로운 인사이트, 변화 결심 계기, 역할 변화 계기 등)
	문화인력 양성사업 외 성장인력	③ 영향관계 :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관계의 구체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 도출, 외화된 효과 감지 (센터와 나, 크루들과 나, 센터와 우리, 센터와 영도, 나와 영도 혹은 부산)
	예술마을PD	④ 변화체감도 및 기타의견 : 문화도시 만남 전과 후에 대한 자기/주변 인지 차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사업, 활동, 구체적인 자기 역할 등
사업 담당자	문화인력 양성사업 사업 담당자	① 개인 : 기본 소개와 특징, 진입과정 ② 사업 소개 및 평가 ③ 운영 특징 : 영도문화도시센터 전반을 다루되 “기획자학교”를 중심으로 논의 ④ 변화 지점 ⑤ 문제의식 : 문화도시 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의식 전반과 대응 방안 등

(2) 영도문화도시 그룹인터뷰 분석

■ 영도문화도시 활동 진입은 대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이 계기

- 인터뷰 대상자들이 영도구에 사는 계기는 개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① 영도에서 출생하고 줄곧 사는 경우, ② 결혼으로 인해 영도에 거주하는 경우 ③ 영도 태생이나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거주하는 경우 등 다양하며, 부산 다른 지역에 살다 영도로 거주하게 되어도 ‘외지’라고 표현하는 경향을 보임.

- 영도문화도시 활동은 대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한 것이 계기로 작동하지만, 본래의 활동으로 인해 영도문화도시에서 활동을 제안받은 예도 있음.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면서 활동의 연결 지점이 만들어짐.
-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이 활동을 시작한 시점에서 가시적인 활동 경력을 가지게 되는데, 인력 양성사업을 마치게 되면 보다 많은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문화기획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됨.
-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영도문화도시 활동을 통해 기획자 혹은 활동가로서의 경험을 만들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결지점에는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라는 영도문화도시센터 ‘크루의 권유’가 등장함.

■ 스스로 성장하는 즐거움과 주변의 지지로 이웃, 지역, 환경 등 관심 영역 확장

- 인터뷰 대상자들은 영도문화도시에 참여하면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경험이 다양해지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 영도문화도시 크루들의 권유 이후에도 그들의 지지로 활동에 대한 자극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활동의 즐거움과 성장의 욕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물론, 인터뷰 대상자들은 활동에 참여하면서 피곤함도 있다는 이야기, 더 많은 기회를 받고 싶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웠다는 이야기도 존재하였으나 활동 기회를 받은 경험은 일치함.
- 특히, 예술마을PD 역할을 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은 영도문화도시를 통해 마을, 이웃, 공동체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환경, 생태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등 자기 삶과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음.

■ 경험과 관계의 확장은 신뢰 관계의 강화로 이어져 공동의 신뢰 자본 형성으로 외화

- 인터뷰 대상자들은 영도문화도시 참여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참여자, 주민 등으로 나타났던 피상적 정체성이 이웃, 동료로 전환되고 일상적 신뢰 관계로 확장되는 것을 경험함.
- 영도문화도시 사업 참여 특징은 크게 관심사와 욕구의 외화 경험에 따른 자기효용감 강화, 협업 역량의 내재화로 나타나며, 관련 경험이 증가할수록 ‘나와 영도문화도시 혹은 다른 대상자 혹은 기타 주민’과의 관계 범위와 밀도가 강화됨.
- 경험의 획득과 누적의 지속 요인은 진입 과정에서의 참여자 관찰 및 공통 역량 개발, 개별진단 및 활동 인프라 지원, 향후 활동 유도라는 일련의 과정이 센터의 지속적 운영 방식으로 작동했기 때문으로 보임.

■ 관계 확장과 신뢰 자본의 축적은 도시를 재인식하는 역량으로 전화

- 관계 확장의 영향에 관한 응답은 크게 ① 일상의 변화 ② 일의 변화 ③ 도시문제 대응의 적극성 변화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일상의 변화는 타인에 대한 태도 변화와 생활 범위의 확장에 따른 상호돌봄이나 공동 살림 활동 등으로 나타남.
- ② 일의 변화는 영도구의 문화예술 감수성 성장과 개인, 도시의 브랜드가치 향상으로 인한 일거리의 다변화로 이어졌는데, 인터뷰 대상자들은 영도문화도시 참여를 통해 상대적으로 사적이고 지엽적인 활동에서 협업 기반의 새로운 일거리로 일의 깊이와 규모를 전환 시켜옴.
- ③ 도시문제 대응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일에 대한 감각을 유기적으로 성장하게 함으로써, 영도구를 지속적인 삶의 터전으로 재인식하는 결과를 만들고 이는 다시 환경, 안전 등 도시문제에 대한 적극성을 만들게 됨.

■ 개인과 도시 간 문화 역량의 관계 재구성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강화

- 인터뷰 대상자들은 영도문화도시의 다양한 협업 경험을 통해 도시의 내외부적 성장을 크게 실감했는데, 이는 크게 영도구의 ① 문화·예술적 감수성 향상 ② 브랜드가치 성장으로 구분됨.
- ①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향상되는 과정은 영도문화도시 운영방식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다양성 부각’ → ‘관심사를 통한 관계 형성’ → ‘일거리로의 전환’이라는 운영방식에 기인함.
- 문화·예술적 감수성 향상은 문화다양성, 성평등, 환경문제, 예술 가치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점의 심화를 포함하는데, 이는 콘텐츠의 다변화, 타겟층의 확장 등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남.
- ② 브랜드가치 성장은 영도문화도시에 관한 외부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듣거나 영도구에서 쌓은 일경험을 통한 타 지역·기관 등과의 협업 성사, 일거리 확장 등으로 나타남.
- 영도구의 문화·예술적 감수성 향상과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인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는 참여자에게 개인의 성장과 도시의 문화 역량 성장의 연결지점을 실감하게 하며, 이는 ‘사적 자아’에서 ‘공적 자아’로의 전환을 일으킴.
- 예술 가치, 협력, 일상과 일거리, 도시문제의 변화에 종합적으로 감응하는 문화적 역량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논의와 미래 설계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는, “문화도시 종료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 탐색”,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도시가 되는 역할” 등의 발언으로 구체화 됨.

(3) 인력 양성사업 사업 담당자 FGI 이슈별 분석

■ 영도문화도시 동력으로써의 인력 양성사업, “기획자학교”

- 영도문화도시 담당자들의 영도문화도시 사업 결합 과정은 크게 영도문화도시 설립 초기부터 구성원인 경우와 영도문화도시의 사업 참여자로 진입 후 협력크루, 공채 등을 통해 아이크루로 전환¹³⁾되는 경우로 구분됨.
- 인터뷰 대상자들은 크루로서의 담당 사업이 각각 다르나, 모두 기획자학교의 설계에 참여했거나 기획자학교 참여자로 진입하여 크루로 전환된 경우였음.
- 영도문화도시의 인력 양성사업은 초기 설계에 참여한 크루와 참여자에서 크루로 전환된 이들의 협력체가 운영의 주체가 되면서, 개별 크루의 성장이 사업 전반의 문제의식 심화와 개선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작동함.
- 이와 같은 작동방식은 주민의 욕구를 구체화하고 잠재적 문화인재를 발견하는 초기의 “영도가 문화학교”(2020) 등의 사업이 “기획자학교”(2021)로 통합·개선되고 지속하는 결과로 이어짐.
- 이는, 영도문화도시의 인력 양성사업(이하 “기획자학교”)이 인재 양성을 통한 영도구의 미래 준비뿐 아니라 영도문화도시의 실시간 추진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인력 양성사업의 핵심은 문화도시 종료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지역문화 주체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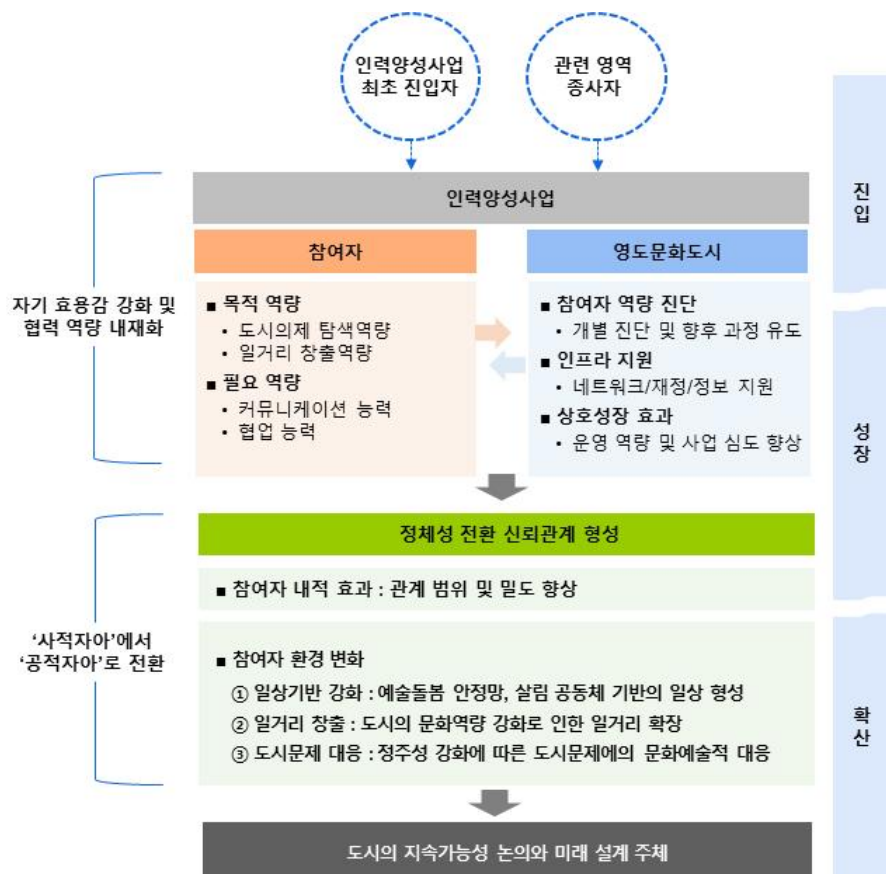
- “기획자학교”는 영도구의 고령화 및 지역쇠퇴에 대응하는 문화인재의 양성을 초기 목표로 삼았는데, 사업 초기 당시 영도구에 문화인재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에서 기인함.
- 이에 더하여, 영도문화도시의 일반적인 인력 양성사업이 과정 종료 후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① 지원 기반 ② 관계와 시간 단절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일거리 창출 역량 강화와 도시의제 발굴 역량을 지속하여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확장함.
- 이에, 문화인재의 탐색과 잠재적 문화인재의 확장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는 방식을 고민하였으며, 센터의 크루들은 관련 종사자의 탐색과 섭외, 진입자의 낮은 경험 상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문화인재의 진입과 성장을 유도함.
- “기획자학교”를 수료한 참여자는 영도문화도시 전체와 도시 인프라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거나 크루들의 일거리 제안을 통해 영도구 문화인재로서 역할을 확장해온 것으로 나타남.

13) 영도문화도시센터는 한 배에 탄 동료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구성원을 ‘크루(Crew)’라고 호칭하는데, 크루들은 각 역할에 따라 상근직인 ‘아이크루(I-CREW)’와 주 1회 이상 센터에 근무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협력크루(W-CREW)’로 구별함.

- 앞선 참여자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참여자가 영도문화도시의 제안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 가치의 자기화를 거쳐 확산의 주체로 성장함.

■ 참여자 성장에 따라 참여자에서 협력자로의 문화인력의 위치 변화

- 영도구의 고령화 및 인구소멸, 지역쇠퇴라는 도시문제는 영도문화도시 문화 주체의 절대 수 부족이라는 문제로 연결되었음.
- 이에, 영도문화도시는 2020~2021년의 초기과정을 문화 주체의 탐색과 진입 유도로 잡고, 자체 기획한 사업을 지역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2022년부터는 진입 과정을 거친 참여자가 지역과 지원하는 협력자의 위치로 변화함.
- 이는, ‘도시 생태문화’, ‘전환도시’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주제를 통해 운영되었던 2020년의 “도시기획자학교”가 ‘참여자 주도형 문화기획 교육’ 등을 거쳐, 2022년 “기획자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읽을 수 있음.
- 개인의 욕구 및 관심사의 발견과 영도구에서 실현가능한 형태의 사업화라는 구조를 지닌 “기획자학교”의 운영을 통해, 영도문화도시는 이슈와 필요의 제안자가 아닌 관계망이나 도시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실험 비용 지원 등 인프라 지원에 집중하는 협력자의 위치로 이동함.



(그림)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작동 개념도

2) 영도문화도시 개별인터뷰 분석

(1) 영도문화도시 개별인터뷰 경과

■ 개별인터뷰 개요

- 일 시 : 2024년 10월 15일(화)
- 장 소 : 깡깡이마을 여행자센터
- 목 적 : 영도문화도시 문화인력 양성사업의 과정에 대한 그룹인터뷰 결과를 확인하고 운영원리를 분석하기 위한 검증

■ 개별인터뷰 대상 선정

- 영도문화도시의 문화인력 양성사업과 주체의 성장 및 영향 관계를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해 개별인터뷰 대상을 설정함.

<표> 영도문화도시 개별인터뷰 대상

일시	구분	진행자	참여자
10/15(화) 11:30	문화인력 양성사업 사업 담당자	김선애	- 전소영 (영도문화도시센터 문화팀 파트장 / 기획자학교)
10/15(화) 14:00	문화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김선애	- 김정미 (예모팩토리 대표) - 윤지현 (파란나비공방 운영)

(2)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담당자 개별인터뷰 분석

■ 영도문화도시에서 인력 양성사업의 의미와 위상

- 「문화도시 영도2025」에도 나와 있듯이, 영도문화도시는 ‘문화도시 종료 후에도 문화도시를 만들어 갈 사람들을 남기겠다’라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음.
- 이에, 인력 양성사업은 주민에게 도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과 경험을 만들어주는 일이면서, 센터의 동료로 만드는 일이기도 함.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특징

- 사람의 변화를 사업의 변화로 연결하고, 사람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따라서,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으며, 구성원이나 조직의 상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음.
- 도시의제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발견하고 구현하는 방식이라 거버넌스 효과가 창출되기도 함.

■ 다른 인력 양성사업과의 차이와 영향

- 입문 과정에서는 관심 주제와 지역에서의 활동 욕구를 찾는 일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여기에 기반을 둔 네트워킹에 중점을 둠.
- 입문 과정 수료자가 다음 해의 협력 크루나 다른 사업 참여자로 결합하며 영도문화도시 전체 사업의 심도를 깊게 하고 일거리 연계, 팀 구성 등을 도모함.
- 네트워크의 확장과 일거리 연계가 축으로 작동하는 사업이라 영도문화도시의 브랜딩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 인력 양성사업에서의 다양한 성장의 확장

- 참여자들은 초기엔 교육이나 모임에 단순 참여하는 수동적인 상태를 거쳐 커뮤니티 조직, 지원사업 도전, 사업체 등록 등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함.
- “기획자학교” 수료 후엔 조직에 들어가기보다 영도에 공동체를 만드는 경우가 많음.
- “기획자학교”는 크루 또한 배움과 성장에 대한 욕구가 뚜렷해야 하며, 이로 인해 담당자 성장을 동반하는 사업임.
- 다만, 고정된 PM이 없는 구조가 장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수행과정의 밀도가 높아 일정 기간 내엔 과정과 성과를 데이터화할 시간이 부족함.

(3) 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개별인터뷰 분석

■ 성장기반

-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통으로 영도문화도시의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성장 기반으로 꼽음.
- 개인의 역량 발휘뿐 아니라 영도의 문화·예술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고 느낌.

■ 문화·예술 생산자로서 문화도시를 만났음에도 느낀 차별지점

- 영도문화도시 참여 전부터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인 경우도 있으나, 영도문화도시와의 만남 이후 네트워크를 통한 일거리의 비약적인 확장을 경험함.
- 즉, 영도문화도시와의 경험은 협업-관계 형성-경력 누적-일의 확장-관계 확장이

라는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룸.

■ 인력 양성사업에서의 네트워크가 서로의 성장을 이끌거나 본 경험

- 센터를 통해 형성된 관계망이 개인과 타인의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작동함.
- 이를 통해 영도문화도시센터의 핵심 가치인 ‘성장과 연결’을 체감했으며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타인과의 ‘연결’이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견인하였음을 확인함.

■ 인력 양성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경험

- 단순 참여가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으로 이어지며 더 큰 성장을 느낌.
- 입문자/비경험자로 만났던 동료들이 현재는 지역 주요 축제에 예술인으로 참여하거나 예술인증명을 받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 한 사례로, “영도가 문화학교”에서 만난 참여자가 사비로 사랑방을 운영하며 동네 어르신들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고연령 세대가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사례로 보이며, 참여자는 센터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길 희망함.
-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주민들에게 문화 돌봄을 실천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경험한 참여자들은 센터 운영 종료 후에도 문화 돌봄의 주체로 나아갈 거라 기대함.

3)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운영원리

■ 성장형 문화도시에 맞게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

- 영도문화도시는 ‘도시의제를 예술로 대응한다’라는 미션에 맞는 실천 가능한 도시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지역 주체와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함.
- 이는 지역문화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발굴한 지역 주체들의 주요 활동 내용이 되기 마련인데, 초기 도시 이미지에 기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시 주체로서의 효용감과 성취감을 공유하게 됨.
- 이는 영도문화도시의 리더 그룹과 돈독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도시의 미션을 보다 명징하게 이해하는 기초가 됨.

■ 교육과 성장지원, 기회 제공이라는 풀세트 인력양성모델

- 영도문화도시는 초기 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예비 기획자에게 다양한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고, 세부 사업에 배치하는 등 ‘다음 스텝’ 과정을 구성함.
- 이는 문화도시 1년 차와 2년 차 사이에 연결과정을 설정하는 실험을 통해 이후 하나의 틀로 자리를 잡는데, ① 문화도시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② 동남권

문화기획자와의 자기 성장과정, ③ 개인 여건에 맞는 활동으로의 포섭 과정으로 볼 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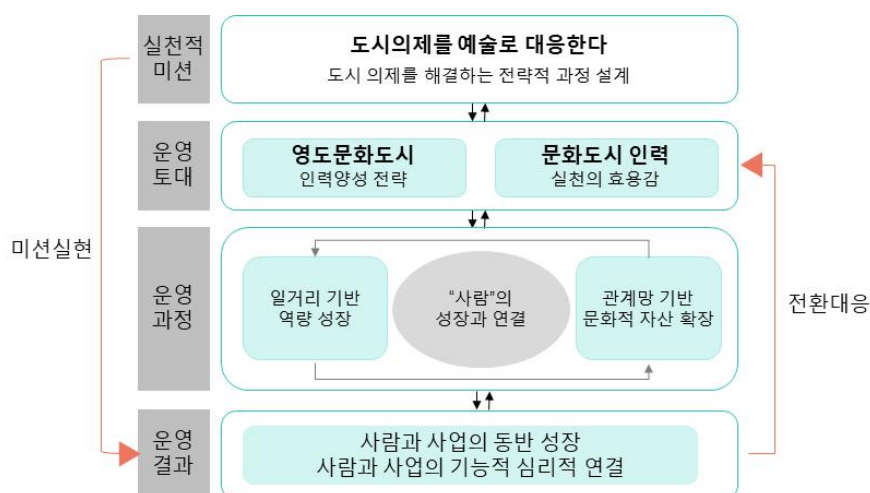
- 이 과정은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담당자뿐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의 일상 관찰과 지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영도문화도시 내 실무자(크루)에게는 일상적인 인력기획 역량이 요구되었음.

■ ‘사람’을 중심으로 역량 성장과 도시 자산 확장하는 방식

- 인력 양성사업의 운영은 단순히 단일사업으로서의 운영이 아닌 영도문화도시 사업 전체의 ‘일거리’를 연계하며 참여자가 커리어를 확장하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로 인해 일거리 기반으로 참여자의 역량 성장이 이루어짐.
- 일거리 연계를 통한 동료 협력, 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외 “YD빌드업클럽” 같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참여자들은 다양한 관계망을 기반하여 문화적 자산을 확장하게 됨.

■ 사람과 사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문화 생태계 기반 구축모델

- 일거리 기반 역량 성장 및 관계망 기반 문화적 자산 확장의 결과로 참여자들은 문화도시 사업의 연속성과 별개로 독자적인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언급했으며, 영도문화도시를 사람을 남긴다는 미션을 수행함.
- 센터-참여자 간 구축된 신뢰의 강화는 사람과 사업의 기능적 연결 외 심리적 애착 형성이 일어남.



(그림)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운영원리

3. 임팩트 측정의 기본 골격과 방향 도출

1) 문화·예술계 “일”의 특성과 “일자리”에 관한 영도문화도시의 접근

■ 문화·예술분야 인력 양성사업의 성격

-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분야 인력 양성사업은 문화·예술정책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며 공공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운영되는 성격을 가짐.
- 특히, 문화도시 사업에서의 인력 양성사업은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사업의 목표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문화전문인력 양성, 지역 특화분야 인력양성, 문화인력 네트워크 강화, 일거리 연계 등 지역별 다양한 특징을 가짐.
- 그러나 수요가 형성되기 어려운 문화·예술분야의 특성과 문화인력이 전문성을 획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영역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새로운 문화·예술분야 ‘일’을 탐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하였음.
- 문화·예술분야 특성에 기초하여 제기된 문제의식은 ① 문화·예술분야는 마치 취업 기회가 있는 일반 사회영역과 다르다는 점이며 ②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역할이 구축되는 영역이라는 점 ③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갈 문화인력은 창의성 기반의 교육설계와 실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22년 영도문화도시는 문화인력의 양성과정과 양성된 문화인력의 ‘일’ 현황을 살펴보고 문화·예술분야 ‘일’ 정책을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음.



(그림) 2022년 영도문화도시 일자리 포럼 사진

■ 영도문화도시에서 제기한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의 관점

- 2022년 개최한 ‘문화도시 영도 일거리포럼’에서는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 문화·예

술분야 노동의 특징, 인력 양성사업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문화도시 사업에서의 인력 양성사업의 성격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도시 정책 실현의 주효한 방법으로, 대부분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인력계획을 수용하는 관료성 중간조직과 달리, 문화도시는 새로운 인력을 발굴하거나 유입해야 하는 당장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 둘째 지역사회의 가치실현의 관점에서, 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중요역할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살리는 문화도시 사업 전체의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셋째 네트워킹 및 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인력 양성사업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 멘토와의 관계 구축,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러한 관계망은 참여자들이 지역문화 생태계 내에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넷째 노동시장과의 관계성과 연계하여, 현대노동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되고 있으며, 일과 취향(여건)이 결합 된 방식의 노동이 새롭게 등장함. 문화분야 일의 작동방식은 불안정하고, 매뉴얼화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인력 양성사업은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문화인력이 전통적 일자리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나 창의적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다섯째 문화인력의 역량지표와 관련하여, 인력 양성사업에서 지원해야 할 역량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갈음할 수 있으며, 인력양성 주체는 문화인력의 역량지표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설계해야 할 것으로 제안함.

<표> 문화인력의 역량지표 예시

역량단계	역량의 내용	해설
7단계 역량	문화 생태계 선순환 이해, 미래 가치와 현재의 결합	- 문화예술계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 미래 가치를 이해하고, 전환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6단계 역량	업무 맥락과 효과 구상, 내 외부 관계 기획	- 사업의 맥락을 파악하고 그 효과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 사업수행을 둘러싼 내 외부 관계를 기획할 수 있다.
5단계 역량	업무 기획, 내 외부 자원과 협력망 구축	- 사업 전반을 구상하고 사업의 기대효과를 기획할 수 있다. - 내부의 자원과 외부의 관계망을 적절하게 결합하고 배치할 수 있다.
4단계 역량	업무의 서사 구성, 외부와 논의 조정	- 사업의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디테일을 심화시킬 수 있다. - 외부와 사업 운영을 조정하고 사업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3단계 역량	업무에 대한 논리적 구성, 업무체계 이해	- 사업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 사업의 진행 시 책임 관계를 이해하고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2단계 역량	업무에 대한 이해, 언어 변별과 해석	- 사업의 언어를 이해하고 자료를 분류할 수 있다. - 자료나 정보의 경중을 파악하고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역량단계	역량의 내용	해설
1단계 역량	존중과 협력, 기한 준수, 업무 완결성	- 경쟁과 배제가 아닌 존중과 협력의 자세를 갖춘다. - 자기업무를 기한 내 완수한다.

출처 : 최혜자, 「생태계적 관점에서 보는 인력 양성사업 성과 및 개선방향」, 영도문화도시포럼, 2022, 33쪽

- 마지막, 문화인력양성의 기본구조와 관련하여, 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은 문화기획자, 예술경영인, 커뮤니티 아티스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새롭게 반영해야 하는 것은 인력 양성과정의 목표, 장기성, 매개 장치 등은 미래 가치를 탑재해야 할 것이며, 문화인력양성의 기본구조를 다음과 같이 도출함.

<표> 인력양성의 기본구조

구분	내용	비고
인력양성의 목표	다양한 일거리를 탐색할 수 있는 역량 함양	문화 일자리 취업이 아닌 일거리를 탐색하는 과정
인력양성의 설계	인력의 성장을 고려한 연속사업으로서 설계	단순 프로그램 과정의 한계 극복
인력양성의 내용	입문단계, 경험단계, 기획단계 등 단계별 내용을 통해 인력 성장의 프로세스 구성	문화 외적 상황에 의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과정 필요
인력양성의 매개	문화인력 간의 네트워크, 멘토링을 통해 자기진단과 해석	이후 문화인력 네트워크(플랫폼)은 동료이자 사업 협력망으로 작동

출처 : 최혜자, 「생태계적 관점에서 보는 인력 양성사업 성과 및 개선방향」, 영도문화도시포럼, 2022, 32쪽

2)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에서 임팩트 측정 방향

■ 임팩트 측정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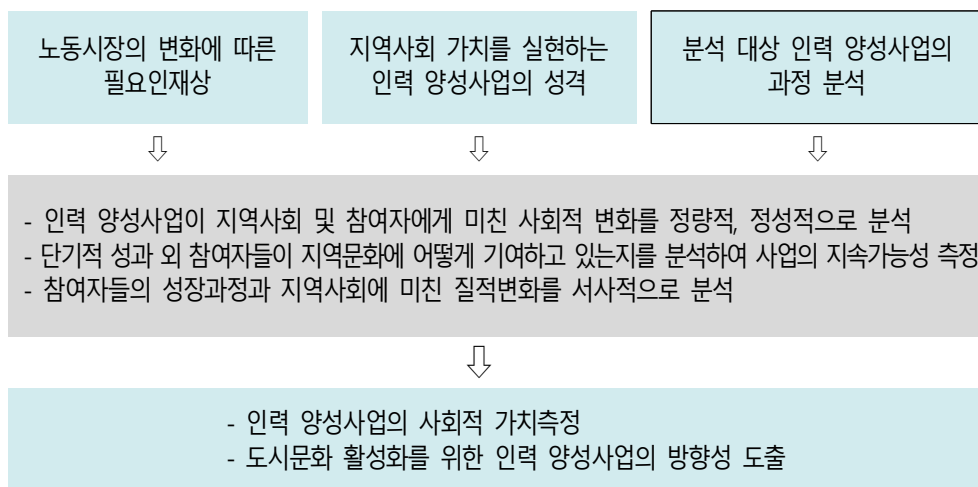
- 평가측정지표에 대한 핵심적인 우려는 임팩트 측정을 위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생성하는 일인데, 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임.
- 지표의 객관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그것이 대내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며, 대외적인 신뢰도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임.
- 따라서, 지표를 세분화하거나 사회적 임팩트를 화폐화 혹은 지수화하는 시도를 하는데, 무엇을 평가하는가에 따라 방법이 다를 수 있음.
- 그러나 세분화가 곧 신뢰성을 증대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식화가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리어 정형화 혹은 관료화의 우려도 존재함.

- 도리어 SK 등 다수의 앞선 기업들이 실제적인 사회변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임팩트 개념과 접근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특히,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과 같이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때는 오히려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과 임팩트 연구의 관계

- 문화도시는 구체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명확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문화도시에서 추진한 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화도시의 비전, 미션에 기반하여 분석해야 함.
- 문화도시에서 인력 양성사업이 문화도시 정책의 주요한 방법으로서 문화도시 사업 전체와의 연계성,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역할, 지역사회의 가치실현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 인력 양성사업은 단순히 사업 자체의 정량적, 정성적 측정만으로 성과분석이 어려움.
- 따라서, 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임팩트 측정은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되는데, “임팩트가 무엇이다”라고 ‘정의(definition)’하는 접근보다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창출되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생성”하는 ‘서사(narrative)’를 만드는 접근이 요구됨(김정태 외, 2014, 3쪽).
- 서사적 접근방식의 임팩트 연구 방식은 인력 양성사업의 성격 외 노동시장의 변화와 문화·예술분야 노동의 특징과의 관계성, 인력 양성사업의 현재성과 미래 지향점을 동시에 살필 필요가 있음.

<표> 인력 양성사업에서 임팩트 연구의 접근방식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측정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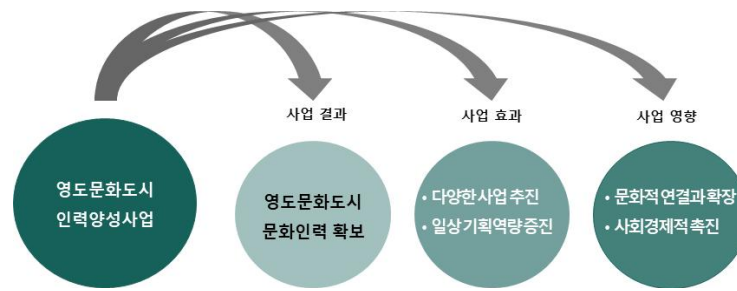
- 영도문화도시시는 ‘도시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하는 미션을 실현하는 핵심 가치로 시민과 센터가 함께 크며 사람을 남기는 ‘성장’,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망을 만드는 ‘연결’을 핵심 가치로 두어 사람을 키우는 인력양성의 방식을 핵심 전략으로 언급하고 있음
- 이러한 핵심 가치는 조직문화와 인력 양성사업의 목적에 반영되어 있으며, 일거리 연계 방식으로 시행되어 영도문화도시에서의 인력 양성사업은 조직의 미션을 실현하는 추진방식이자 목표로서의 위상을 가짐.

<표> 영도문화도시 비전과 인력 양성사업의 주요 언어

구분	내용
센터 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션 : 도시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합니다. - 고령화, 청년감소, 교육문제, 해양오염, 이미지 개선 문제를 문화로 대응합니다. - 마을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며, 도시 매력을 발견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다양한 도시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해 도시발전과 문화적 삶을 도모합니다.
센터 핵심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 법정문화도시 지정사업 종료 후에도 문화도시를 만들어 갈 사람들을 남기겠습니다. - 초대하고, 공부하고, 교류하고, 일하면서 삶과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시민과 센터가 함께 크겠습니다. ■ 연결 :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느슨하면서도 서로를 지켜봐 주는 관계망을 만들겠습니다. - 나다움은 잃지 않고 타인을 이해하며 나의 재미가 전달되고, 쓰임이 공유되도록 서로를 매개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조직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도문화도시센터 크루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가치와 동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고 실천하는 기획집단이 되려 합니다.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합니다. 1) 유연하고 능동적인 학습 방식으로 '성장 마인드셋' 조직 문화 2) 일하는 방식 주목, 행정·기획·협업 분야 성장 지표 수립
인력 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일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 변방의 항해자&기획자학교: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예술 기획자들이 영도를 새롭게 해석하며 꾸준히 활동하도록 동료로서 연결되어 협력 관계를 만듭니다. - 내일의 항해캠프 영도 기획자의 집 기획자 레지던시 동남권 문화인재협의체

출처 : 영도문화도시 내부자료, 「영도문화도시센터 연차보고서(2023)」, 2023, 8~11, 20쪽, 재구성

- 그런 의미에서 단위 사업으로서 인력 양성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영도문화도시에서 인력 양성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음.
- 따라서, 인력 양성사업을 사업 단위로 평가 혹은 측정하기보다 영도문화도시의 조직 미션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팩트를 연구하고, 문화도시 사업의 도시적·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 중요성이 있음.



(그림)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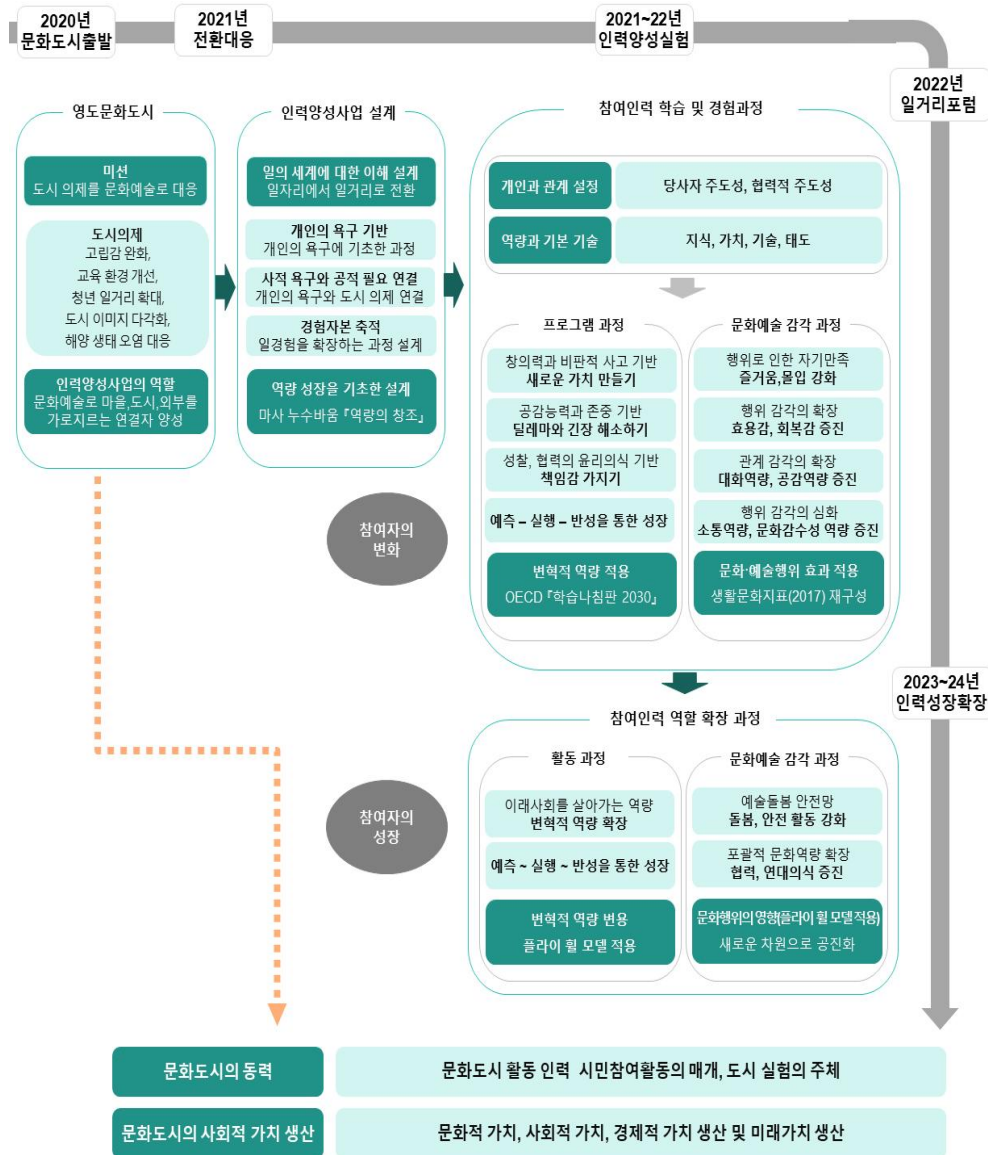
■ 지표를 구성하는 개념

- 이에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특징인 사람과 사업이 연결되면서, 사람의 활동을 높이는 방식을 보이는 ‘교육과 성장지원, 기회 제공이라는 풀세트 인력양성 모델’을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모델로 설정하고, 각 과정을 분석할 근거를 구성함.

<표> 종합적인 지표 구성

비고	측정영역	측정내용	주요 키워드	비고
	① 영도문화도시 미션	도시의제, 문화도시 인재상	지역사회 외화로 연결	-
	② 인력 양성사업 설계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설계	일거리 창출 개념	-
		역량 성장을 기초한 설계	마사 누수바움 10대 역량 중 7가지 역량 도출	-
	③ 참여인력 학습과정	변혁적 역량에 기초한 설계	새로운 가치 창출, 갈등과 딜레마 조정, 책임 의식, (변혁적 역량)	변혁적역량 뒤에서 평가
		문화행위 전환 모델 1단계	즐거움, 몰입, 효용감, 회복감	-
	④ 참여인력 경험과정	변혁적 역량에 기초한 설계	새로운 가치 창출, 갈등과 딜레마 조정, 책임 의식, (변혁적 역량)	변혁적역량 뒤에서 평가
		문화행위 전환 모델 2단계	대화역량, 공감역량, 소통역량, 문화감수성	-
	⑤ 참여인력 역할확장	변혁적 역량을 기초한 설계	(새로운 가치 창출, 갈등과 딜레마 조정, 책임 의식), 변혁적 역량	변혁적역량 중심 평가
		문화행위 전환모델 3단계	돌봄, 안전, 협력, 연대	-
	⑥ 지역사회 외화	문화적 가치 창출	도시문화의 활력화	-
		사회적 가치 창출	공동화, 고령화, 양육환경의 개선	-
		경제적 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
		미래 가치 창출	도시 지속가능성	-

- 이러한 종합적인 지표의 구성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상호 연결되어 다양하게 작동하게 됨.



(그림)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측정 지점

- 영도문화도시의 미션과 인력 양성사업의 설계 과정을 시작 지점으로 설정하고 “기획자학교” 참여자의 행위 진행을 구성할 수 있음.
- 이를 하나의 서사 구조로 구성하여 출발과 과정, 결과의 영도문화도시 미션과 연동된 사회적 가치를 과정별로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인력 양성사업 사회적 임팩트 측정 지표

영역	구분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측정방법
① 영도문화도시 미션		임팩트 측정의 기준	
② 인력 양성사업 설계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설계	① 고용개념에서 창업, 협업개념으로 전환 ② 인식의 진전과 활동 기회의 일치	정성
	역량 성장을 기초한 설계	③ 재미와 상상을 끌어주는 지식과 표현생성 ④ 자기 인식과 실천을 통한 영역 확장 ⑤ 타인과 상호작용 및 비인간주체와 관계 구상	
③ 참여인력 학습과정 ④ 참여인력 경험과정	개인	⑥ 당사자의 자기 질문과 욕구 반영	
	관계	⑦ 상호 간 대화와 작업의 개방성	
	역량	⑧ 문화기획의 관점과 태도 습득	
	핵심기초	⑨ 즐거움과 몰입으로 자기인정 경험 ⑩ 기획방식과 사업 운영 기술 습득	
		⑪ 주변과 나눌거리 증가 및 교류 확장 ⑫ 새로운 발견을 운용하는 기술 습득	
	확장	⑬ 실행으로 예측과 성찰하는 경험	
⑤ 참여인력 역할확장	변혁적 확장	⑭ 도시문제에 대한 기획역량 확장 ⑮ 새로운 자원을 연결하는 기술 습득	
	변혁적 학습방식	⑯ 실행으로 도시미래를 상상하는 역량 증진	
⑥ 지역사회 외화	문화적 가치 창출	⑰ 문화인력 활성화 ⑱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⑲ 도시 이미지 다각화*	정량
	사회적 가치 창출	⑳ 고립감 완화* ㉑ 공동체 활성화 ㉒ 교육 환경 개선*	
	경제적 가치 창출	㉓ 청년 일거리 확대* ㉔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가치 창출	㉕ 도시 지속가능성 ㉖ 해양 생태 오염 대응*	

*표는 영도문화도시에서 선정한 도시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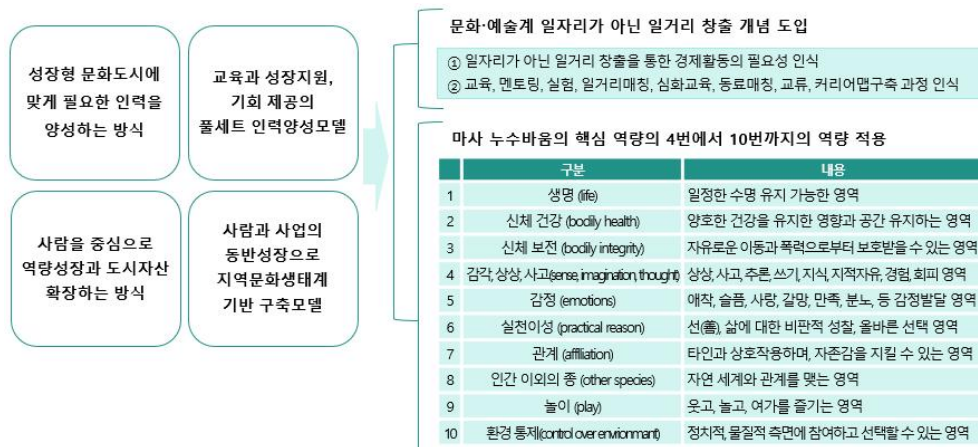
■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 내용

① 영도문화도시 미션

- 영도문화도시는 도시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설정하고, “원하는 일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이 모이고, 성장과 연결의 과정을 함께 설계함으로써 일로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 이에 따라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임팩트 측정의 핵심은 이러한 일 이 일어났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하는 것임.

②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설계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설계는 ① 성장형 문화도시에 맞게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 ② 교육과 성장지원, 기회 제공이라는 플세트 인력양성모델 ③ 사람을 중심으로 역량 성장과 도시 자산 확장하는 방식 ④ 사람과 사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문화 생태계 기반 구축모델로 설계됨.
- 따라서, 이에 대한 임팩트 측정방식은 이러한 설계 의도가 잘 반영되어 실제 작동하는가를 중심으로 읽을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두 가지 접근방식을 결합하였는데, ① ‘일’에 대한 개념 변화의 작동 여부이며, ②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 구성 여부임.
- ① ‘일’에 대한 개념 변화의 작동 여부는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서 만드는’ 개념을 가진 과정으로의 설계를 살펴봐야 함.
- 또한 ②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 구성 여부는 마사 누수바움의 역량 (capabilities)을 창조하게 하는 10대 핵심 중 우리나라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요소를 제외한 7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봄.



(그림) 인력 양성사업 설계 과정 평가모델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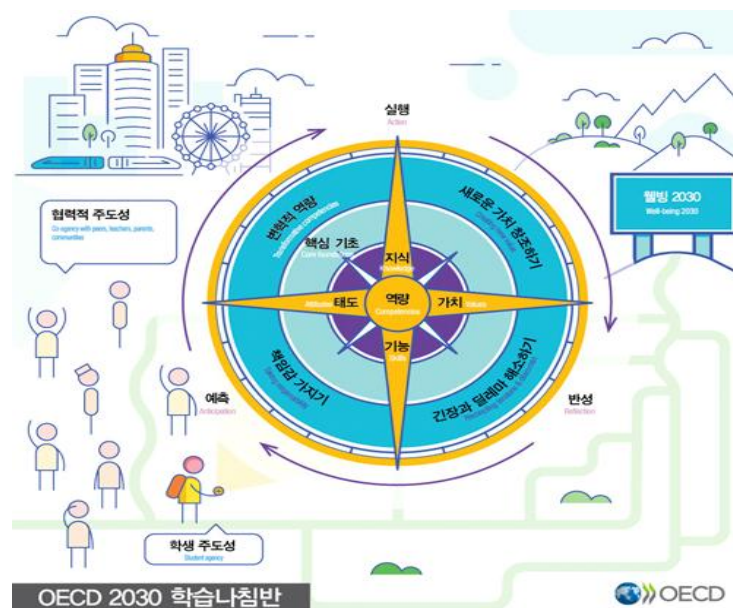
- 인력 양성사업의 설계 과정에 대한 임팩트 측정의 지표는 성장과 변화의 주체인 참여자가 그 의미를 수용하고 자기화하였는가를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표> 인력 양성사업 설계 과정의 사회적 임팩트 지표

구분	주된 이슈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설계	일자리에서 일거리로의 전환	① 고용개념에서 창업, 협업개념으로 전환
	성장, 실험, 연결, 전문화	② 인식의 진전과 활동 기회의 일치
역량 성장을 기초한 설계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하는 즐거움(4,9)	③ 재미와 상상을 끌어주는 지식과 표현생성
	가치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자기 기획(5,6,10)	④ 자기 인식과 실천을 통한 영역 확장
	사람, 세계와의 관계맺기와 확장(7,8)	⑤ 타인과 상호작용 및 비인간주체와 관계 구상

③ 참여인력 학습과정, ④ 참여인력 경험과정

- 참여인력 학습 및 경험과정의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주체적 성장 모델로서 ① ‘OECD 학습 나침반2030(OECD Learning Compass 2030)’ 모델을 참고하고 ② 문화·예술 행위 효과분석을 고려하였음.
- ① ‘OECD 학습 나침반2030(OECD Learning Compass 2030)’ 모델은 OECD가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학습 프레임 워크를 2단계로 구성한 것임.
- 2015년부터 2018년에 걸쳐 진행된 1단계 프로젝트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2019년 발표된 2단계 프로젝트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미경, 2022)
- 2단계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학습 나침반2030은 비고츠키 교육학의 이론적 배경을 둔 모델로서, 참여자가 자신의 비전을 설정하게 하고, 그 비전에 비추어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하며, 확신을 두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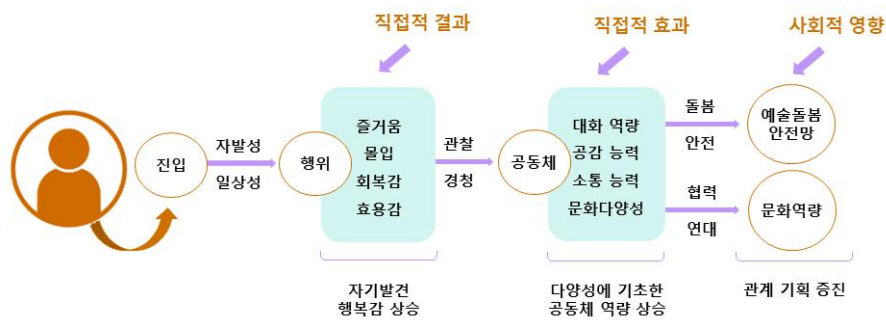
(그림) OECD 학습나침반2030 모델

출처: 김종운(2019), 이미경, “OECD Education 2030 학습 프레임 워크에 기반한 우리나라 교사의 역량 개발 방향 탐색”. 교육광장홈페이지, (접속:2024.11.13.), <http://kice-magazine.co.kr/>에서 재인용

- OECD 학습 나침반2030은 학습의 지향점을 웰빙(well being)으로 두고, 학생 당사자의 역량(competenies)으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제시하고, 학생의 문해력, 수리력, 데이터 리터러시 등의 ‘핵심 기초 역량’으로 설정함.
- 또한, 이러한 역량은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기’, ‘책임감 갖기’, ‘변혁적 역량’으로 확장하면서, ‘예측-실행-반성’이라는 틀 속에서 미래역량

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 모든 과정에 학생 주도성과 협력적 주도성을 강조함.

- 이는 영도문화도시의 인력 양성사업이 견지하는 방향에 비추어보아, 적용 가능한 평가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② 문화·예술 행위 효과분석은 2017~2018년 경기문화재단에서 연구한 생활문화지표 개발 연구를 기반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진입하게 될 때 발생하는 순기능 키워드를 분석함. (최혜자외, 2016)
- 문화·예술활동은 진입 시 자발성과 일상성에 기반하여 행위를 통해 즐거움, 몰입감, 회복감, 효용감을 생성하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주변을 관찰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 대화역량, 공감능력, 소통능력,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증진 효과를 낳음.
- 이러한 활동의 영향으로 돌봄-안전이라는 예술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협력-연대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함.



(그림) 문화예술 행위 효과분석 모델

- 인력 양성사업에서 참여인력 학습과정과 경험과정에 대한 임팩트 측정의 지표는 참여자의 인식과 감각에서 재구성되므로 이 역시 참여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

<표> 참여인력 학습 및 경험과정 사회적 임팩트 지표

구분	OECD 학습 나침판	문화예술적 접근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개인	당사자 주도성		⑥ 당사자의 자기 질문과 욕구 반영
관계	협력적 주도성		⑦ 상호 간 대화와 작업의 개방성
역량	지식, 가치, 기술, 태도		⑧ 문화기획의 관점과 태도 습득
핵심기초	일을 수행하는 기술	즐거움, 몰입, 회복감, 효용감	⑨ 즐거움과 몰입으로 자기인정 경험
			⑩ 기획방식과 사업 운영 기술 습득
확장	새로운 가치 창출, 갈등과 딜레마 조정, 책임 의식	대화역량, 공감능력, 소통능력, 문화다양성	⑪ 주변과 나눌거리 증가 및 교류 확장
			⑫ 새로운 발견을 운용하는 기술 습득
학습방식	예측, 실행, 반성	행위	⑬ 실행으로 예측과 성찰하는 경험

⑤ 참여인력 역할 확장

- 참여인력 학습 및 경험과정은 OECD 학습 나침반 모델과 문화·예술 행위 효과분석 모델을 참조하여 구성하였지만, 각각의 모델은 행위의 비약적 성장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
- OECD 학습 나침반 모델은 변화하는 미래사회 속에서 예측, 실행, 반성을 통해 ‘변혁적 역량’을 강조한 반면, 문화·예술행위 효과분석 모델 역시 행위의 결과와 효과가 마침내 ‘돌봄-안전, 협력-연대’라는 사회적 가치로 확장되는 모델임.
- 따라서 참여인력의 역할 확장영역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향을 명확하기 위해 플라이 휠(Fly Wheel) 모델을 적용하였음.
- 플라이 휠 모델은 아마존이 제국(일종의 생태계)을 건설하기까지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아마존의 CEO 제프 베저스(Jeff Bezos)가 냅킨에 메모를 해서 유명해진 개념임.
- 고객이 만족하는 최저가 구조로 확장을 반복하면 일종의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고, 이 생태계가 결국 지속 가능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아마존만 찾는 ‘고객 경험’은 결국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갖게 한다는 전략임.
- 다양한 상품의 최저가 공급으로 아마존 제국을 건설한 사례를 준용하여, 문화인력의 성장과 연결의 생태계를 전후좌우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음.



(그림) 플라이 휠 모델의 발상과 개념

출처: 머니투데이, “아마존 성장전략의 키워드 ‘플라이 휠’”(강기준, 2018.3.13.), (접속: 2024.11.22.)
「2023 경기 마을임팩트 보고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4, 58쪽

- 참여인력 역할 확장에 대한 임팩트 측정의 지표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발화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참여자들이 자기활동의 질적 성장으로 새로운 순환고리를 만듦으로써 생태계가 확장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표> 참여인력 역할 확장 과정 사회적 임팩트 지표

구분	OECD학습 나침반	문화예술적 접근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변혁적 확장	변혁적 역량	돌봄, 안전, 협력, 연대	⑭ 도시문제에 대한 기획역량 확장 ⑮ 새로운 자원을 연결하는 기술 습득
변혁적 학습방식	예측, 실행, 반성	행위	⑯ 실행으로 도시미래를 상상하는 역량 증진

⑥ 지역사회 외화

-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은 영도문화도시의 사업 그 자체이며, 영도문화도시의 미션 자체가 양성된 인력의 활동 내용이기도 함.
- 그러나, 해외 여러 관련 프레임 워크를 적용할 때 평가 결과는 좋지만,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하는 사례(서울시NPO지원센터, 2014, 71쪽)가 왕왕 존재한다는 것은 프레임에 갇히는 것에 대한 경계를 의미함.
- 실제, 문화도시를 추진한 5년은 인력 양성사업의 결과와 효과 외 문화·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는지 파악하는데 쉽지 않으며, 논리적 정합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음.
- 따라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은 영도문화도시의 미션을 기반으로 문화, 사회, 경제,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추출할 필요가 있음.

<표> 지역사회 외화 과정의 사회적 임팩트 지표

구분	주된 이슈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문화적 가치 창출	도시문화의 활성화	⑰ 문화인력 활성화
		⑱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⑲ 도시 이미지 다각화*
사회적 가치 창출	공동화, 고령화, 양육환경의 개선	⑳ 고립감 완화*
		㉑ 공동체 활성화
		㉒ 교육 환경 개선*
경제적 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㉓ 청년 일자리 확대*
		㉔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가치 창출	도시 지속가능성	㉕ 도시 지속가능성
		㉖ 해양 생태 오염 대응*

*표는 영도문화도시에서 선정한 도시의제

■ 종합적으로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임팩트 측정은 총 26개 지표를 중심으로 정량과 정성지표로 구성됨.
- 정성지표는 “기획자학교”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측정지표에 타당한 구조화된 설문을 구성하여 진행함.
- 정량지표는 각종 국가통계를 활용하여 변화와 정도를 살펴보는 방향을 구성하여 일부 결과는 직접 생산하여 구성함.

<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사회적 임팩트 측정방법

영역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측정	측정내용
인력양성 사업 설계	① 고용개념에서 창업, 협업개념으로 전환		- 사회변화와 문화예술분야 일 특성 이해 정도
	② 인식의 진전과 활동 기회 여건의 일치		- 성장의 과정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 제공 정도
	③ 재미와 상상을 끌어주는 지식과 표현생성		- 창의활동을 발현하는 재미와 상상의 여건 정도
	④ 자기 인식과 실천을 통한 영역 확장		- 자기기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 정도
	⑤ 타인과 상호작용 및 비인간주체와 관계 구성		- 사람, 세계와 관계 맺는 방법과 표현의 확장 정도
참여인력 학습 및 경험과정	⑥ 당사자의 자기 질문과 욕구 반영	정성	- 개인의 문제의식을 끌어가는 욕구와 사유 정도
	⑦ 상호 간 대화와 작업의 개방성		- 참여자 상호 간의 대화와 협업의 원활 정도
	⑧ 문화기획의 관점과 태도 습득		- 기획의 관점과 그 관점을 구체화하는 습득 정도
	⑨ 즐거움과 몰입으로 자기인정 경험		- 문화기획에 대한 흥미와 그 흥미의 지속 정도
	⑩ 기획방식과 사업 운영 기술 습득		- 문제의식 기반 기획구상과 사업 수행기술 습득 정도
	⑪ 주변과 나눌거리 증가 및 교류 확장		- 지역 네트워크의 양적·질적 확장 정도
	⑫ 새로운 발견을 운용하는 기술 습득		-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실천의 확장 정도
	⑬ 실행으로 예측과 성찰하는 경험		- 일 경험 기반 사전 기획과 사후 성찰의 원활 정도
참여인력 역할확장	⑭ 도시문제에 대한 기획역량 확장		- 도시문제를 기획에 담고 이를 확장하는 정도
	⑮ 새로운 자원을 연결하는 기술 습득		- 사람이나 자원을 파악하고 연결하는 유능 정도
	⑯ 실행으로 도시미래를 상상하는 역량 증진		- 실천을 통해 도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정도
지역사회 외화	⑰ 문화인력 활성화	정량	- 양성된 문화인력의 사업 연계 정도 - 문화 관련 산업의 종사자 수의 변화 - 예술활동증명자 수(만 명당)의 변화
	⑱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 여가활용 만족도의 변화 - 문화·예술활동 향유의 변화 - 협력한 문화·예술 공간의 변화
	⑲ 도시 이미지 다각화*		- 영도문화도시 내부 인지도의 변화 - 영도문화도시 홍보 도달 정도의 변화 - 영도문화도시 협력/연계 도시의 변화
	⑳ 고립감 완화*		- 고립감 완화 관련 사업 참여자의 변화 - 참여자 고립감 완화의 변화 - 사회적관계소통에서 고령자의 변화
	㉑ 공동체 활성화		- 고립감 완화 관련 사업 참여자의 변화 - 참여자 고립감 완화의 변화 - 사회적관계소통 정도의 변화 -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의 변화 - 공동체 의식 정도의 변화

영역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측정	측정내용
	㉔ 교육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된 문화인력의 사업 연계 정도 - 보육환경 만족도의 변화 - 학교 외 교육기회 만족도의 변화
	㉕ 청년 일거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자학교 연계 일거리 연계 정도 - 문화 관련 산업의 종사자
	㉖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가구소득의 변화 - 문화 관련 산업 사업체의 변화
	㉗ 도시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인지도의 변화 -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의 변화 -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의 변화
	㉘ 해양 생태 오염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문화 사업 참여자의 변화 - 해양산업 중 문화 관련 사업체의 변화

V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임팩트
측정 과정

V.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임팩트 측정 과정

1. 임팩트 측정 방법 설계

1) 정성지표 측정

■ 정성지표 측정 방법

- 본 연구의 2장과 3장에 걸쳐 임팩트 연구 방법 탐구,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인력 양성사업에서 임팩트 연구, 영도문화도시 사업의 이해 및 사업 전후 사회조사 분석,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분석 및 관계자 그룹 인터뷰 분석에 따른 인력 양성사업 운영원리 분석을 함.
- 각 분석의 시사점을 토대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임팩트 측정의 기본 골격과 방향을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4개 영역 26개 지표를 구성함.
- 이 중 정성지표는 3개 영역 16개 지표(추가로 1개 영역 별도 진행)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함.
- 정성과 정량으로 구분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임팩트 측정지표를 통해 전반적인 서사구조에서 영도문화도시의 미션이 관찰되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외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설문 구조화 내용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임팩트 측정 영역, 지표를 구성하는 개념 및 세부 방향에 따라 설문 문항을 구성함.
- 조사지의 구조는 인력 양성사업 설계, 참여인력 학습 및 경험과정, 참여인력 역할 확장 영역 순으로 진행함.

<표> 임팩트 측정지표별 측정내용 구성

구분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측정내용	문항수
인력양성 사업 설계	① 고용개념에서 창업, 협업개념으로 전환	1. 사회변화와 문화예술분야 일 특성 이해 정도	1
	② 인식의 진전과 활동 기회 여건의 일치	2. 성장의 과정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 제공 정도	1
	③ 재미와 상상을 끌어주는 지식과 표현생성	3. 창의활동을 발현하는 재미와 상상의 여건 정도	1

구분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측정내용	문항수
	④ 자기 인식과 실천을 통한 영역 확장	4. 자기기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 정도	1
	⑤ 타인과 상호작용 및 비인간주체와 관계 구상	5. 사람, 세계와 관계맺는 방법과 표현의 확장 정도	1
참여인력 학습 및 경험과정	⑥ 당사자의 자기 질문과 욕구 반영	6. 개인의 문제의식을 끌어가는 욕구와 사유 정도	1
	⑦ 상호 간 대화와 작업의 개방성	7. 참여자 상호 간의 대화와 협업의 원활 정도	1
	⑧ 문화기획의 관점과 태도 습득	8. 기획의 관점과 그 관점을 구체화하는 습득 정도	1
	⑨ 즐거움과 몰입으로 자기인정 경험	9. 문화기획에 대한 흥미와 그 흥미의 지속 정도	1
	⑩ 기획방식과 사업 운영 기술 습득	10. 문제의식 기반 기획구상과 사업 수행기술 습득 정도	1
	⑪ 주변과 나눌거리 증가 및 교류 확장	11. 지역 네트워크의 양적·질적 확장 정도	1
	⑫ 새로운 발견을 운용하는 기술 습득	12.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실천의 확장 정도	1
	⑬ 실행으로 예측과 성찰하는 경험	13. 일 경험 기반 사전 기획과 사후 성찰의 원활 정도	1
참여인력 역할확장	⑭ 도시문제에 대한 기획역량 확장	14. 도시문제를 기획에 담고 이를 확장하는 정도	1
	⑮ 새로운 자원을 연결하는 기술 습득	15. 사람이나 자원을 파악하고 연결하는 유능 정도	1
	⑯ 실행으로 도시미래를 상상하는 역량 증진	16. 실천을 통해 도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정도	1
도시의제		17. 영도문화도시 도시의제의 진전 정도에 대한 의견(별도문항)	1
일반현황		성별, 거주지, 연령, 직업 및 경력	5
총 문항 수			22

- 각 문항의 응답은 응답자의 답변 방식이 일정하고,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점 척도로 응답을 수집함.

<표> 임팩트 측정지표별 구성된 설문 내용

측정 내용	구성된 설문
1. 사회변화와 문화예술분야 일 특성 이해 정도	영도문화도시센터는 기성 일자리를 찾기보다 일거리를 만드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하였다.
2. 성장의 과정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 제공 정도	영도문화도시센터는 교육, 멘토링, 실험, 일거리 매칭, 동료 매칭 등 단계적으로 과정을 만들었다.
3. 창의활동을 발현하는 재미와 상상의 여건 정도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참여자의 흥미를 관찰하고, 참여자가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4. 자기기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 정도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참여자가 자기 가치와 목표를 통해 새로운 활동영역에 진입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5. 사람, 세계와 관계맺는 방법과 표현의 확장 정도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참여자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는 물론 생태, 기술, 기후 등 관심과 관계를 확장하게 만들었다.
6. 개인의 문제의식을 끌어가는 욕구와 사유 정도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하며 하고 싶은 일,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다.
7. 참여자 상호 간의 대화와 협업의 원활 정도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동료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좀 더 자극을 받고 성장하게 되었다.
8. 기획의 관점과 그 관점을 구체화하는 습득 정도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가치,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관점이나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9. 문화기획에 대한 흥미와 그 흥미의 지속 정도	나는 성장지원 과정이 재미있었고, 스스로 과정에 몰입하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10. 문제의식 기반 기획구상과 사업 수행기술 습득 정도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기획하는 방법, 실행하는 절차 및 행정 기술 등 실제 역량이 높아졌다.
11. 지역 네트워크의 양적·질적 확장 정도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형성된 인간관계, 각종 네트워크로 인해 생각과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
12.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실천의 확장 정도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주변 사람이나 사물을 보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등 실천적인 역량이 높아졌다.
13. 일 경험 기반 사전 기획과 사후 성찰의 원활 정도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으로 새로운 일을 예측하고 기획하며 전체를 성찰하는 역량이 높아졌다.
14. 도시문제를 기획에 담고 이를 확장하는 정도	나는 도시의제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나의 취향에 기반한 기획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획을 구상할 수 있다.
15. 사람이나 자원을 파악하고 연결하는 유능 정도	나는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방식을 인식하고 있으며, 주변 동료와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16. 실천을 통해 도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정도	나는 도시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으며, 도시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기 위해 내가 서 있는 영역에서 실천을 만들어갈 수 있다.
17. 영도문화도시의제의 진전 정도에 대한 의견(별도문항)	지속 가능한 실천이 필요하지만, 당신은 영도문화도시가 선택한 도시의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설문조사의 실시

- 사전에 작성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임팩트 지표를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한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중에서 기획자학교를 중심으로 연결된 심화 과정, 교류과정에 참여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도문화도시센터 내부자료인 ‘영도문화도시센터 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데이터’에 기반함.
- 이때 영도문화도시센터 사업 추진기간(2020년~2024년) 중 대상자의 사업 참여가 중복된 경우, 진입연도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인원을 제외하여 설문 대상은 총 382명임.

<표> 설문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임팩트 정성지표 측정
조사 기간	- 2024년 11월 22일(수) ~ 12월 4일(수) / 13일간
조사 대상	- 인력 양성과정 참여자 382명
조사 방법	- 비대면 온라인 조사
대상 사업	- 영도가 문화학교 전 과정 - 2021~2023 기획자학교 전 과정 - 2024 YD문화인클럽, YD빌드업클럽, YD도시연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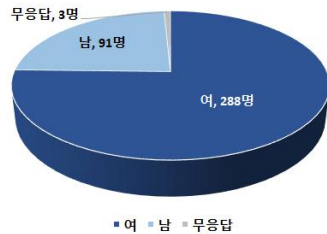
■ 설문조사 대상자 유형

- 인력 양성사업은 2020년 “영도가 문화학교”를 시작으로, 2021년 2개, 2022년 4개, 2023년 3개, 2024년 3개의 사업이 진행됨.
- 이중 “영도가 문화학교”에 전신을 둔 “기획자의집”은 도시의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화인력의 성장을 돕는 대표적인 인력 양성사업으로, 3년 연속 진행되었음.
- 2024년의 “기획자학교”의 경우, 문화인력의 일거리 창출과 네트워크 확장에 초점을 맞춰, 사업 대상자를 기획자학교 수료생 및 문화도시 사업 참여자(‘YD문화인클럽’, ‘YD도시연결자’) 혹은 로컬비즈니스 (희망)주체(‘YD빌드업클럽’)에 한정함.
- 2020년 이후 설문 대상자들의 사업 참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업에도 참여하는 경향을 보여줌.
- 이를 통해 대상자의 첫 사업 참여가 이후의 다른 사업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개인별 성장 및 네트워크 확대가 단발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은 것으로 읽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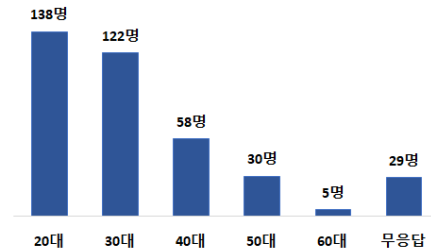
<표> 설문조사 대상자 사업참여 유형

구분		참여인원(명)	
		진입연도 기준(대상자 중복X)	참여연도 기준(대상자 중복O)
2020	영도가 문화학교	63명	63명
	소계	63명	63명
2021	기획자의집	47명	53명
	여성기획자 NEXT STAGE in 영도	45명	51명
	소계	92명	104명
2022	기획자의집	51명	53명
	기획자 레지던시	4명	15명
	부울경 문화기획자 NEXT STAGE in 영도	71명	85명
	내일의 향해	6명	6명
	소계	132명	159명
2023	기획자의집	28명	33명
	기획자 레지던시	19명	29명
	로컬문화인 쇼케이스&살롱 W.W.W	-	15명
	소계	47명	77명
2024	YD문화인클럽	32명	67명
	YD빌드업클럽	16명	21명
	YD도시연결자	-	4명
	소계	48명	92명
총계		382명	495명

-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288명, 남성 91명이며, 연령대는 20대(138명)와 30대(122명)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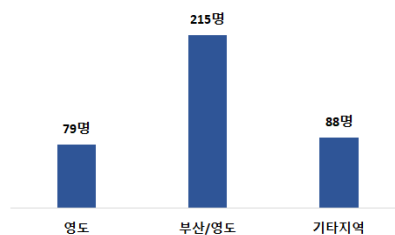


(그림) 설문조사 대상자 성비



(그림) 설문조사 대상자 연령대

- 대상자의 거주지는 영도구 79명, 영도구 외 부산지역 215명, 부산 외 지역 88명으로,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영도구 내 생활인구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읽을 수 있음.



(그림) 설문조사 대상자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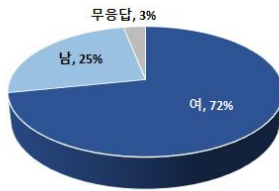
■ 설문조사 응답자 분석

- 설문조사는 인력 양성과정 참여자 38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163명이 설문
에 응하여 42.6%의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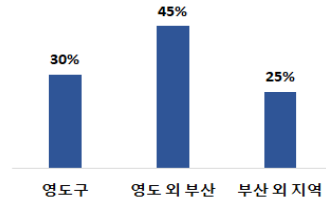
<표> 설문조사 응답 결과 개요

구분	내용	응답률
설문조사 대상자	인력 양성과정 참여자 382명	
설문조사 응답자	인력 양성과정 참여자 163명	42.6%

- 설문에 응한 응답자 성별을 보면, 여자 72%, 남자 25%, 무응답 3%로 나타났으며,
거주지는 영도구 거주 30%, 영도 외 부산 거주 45%, 부산 외 지역 2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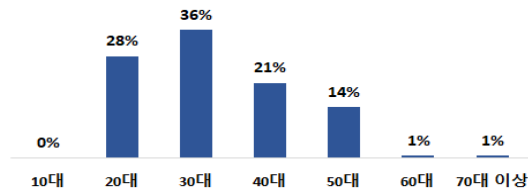


(그림) 설문조사 응답자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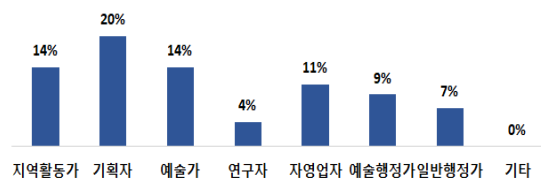
(그림) 설문조사 응답자 거주지

- 설문 응답자 연령대를 보면, 30대 36%, 20대 28%, 40대 21%, 50대 14% 순으로
나타나, 설문 대상자의 연령 분포가 높았던 2030세대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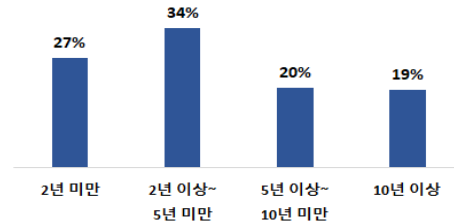
(그림) 설문조사 응답자 연령대

- 설문 응답자 직업군은 기획자 20%, 지역활동가 및 예술가는 각 14%, 자영업자
11%, 예술행정가 9% 순으로 나타나, '기획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응답자의 비
율이 가장 높음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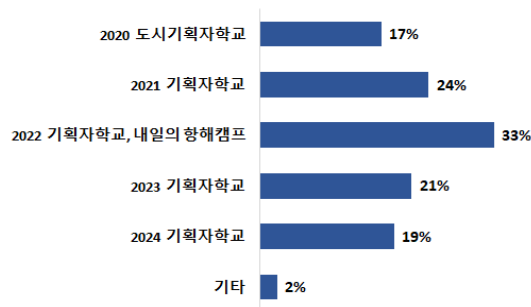
(그림) 설문조사 응답자 직업군

- 설문 응답자가 현직에 종사한 기간에 대해 2년 이상 5년 미만이 34%로 나타났으며, 2년 미만이 27%로 나타나 5년 미만의 종사자가 전체의 61%에 해당함.



(그림) 설문조사 응답자 직업 종사/경력 기간

- 설문 응답자가 처음 참여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과정은 2022년이 33%, 2021년 24%, 2023년 21%, 2024년 19%, 2020년 17% 순으로 나타남.



(그림) 설문조사 응답자 참여 사업

2) 정량지표 측정

■ 정량지표 측정방법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2장과 3장에 걸쳐 탐구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을 임팩트 측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영도문화도시의 인력 양성사업의 운영원리를 분석함.
- 정성평가는 영도문화도시의 미션과 인력양성의 관점의 구성 방식과 그것이 과정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거나 구현되었는지를 내러티브 방식의 지표로 구성하였다면, 정량평가는 그것의 외화된 결과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었는가에 있음.
- 영도문화도시가 인력 양성사업의 참여자들이 활동을 통해 도시에 각인된 영향을 구축하기를 기대한 바를 곧장 결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음.
- 실제 영도문화도시 예산은 영도구민 1인당 5년간 약 1,869원 수준의 혜택을 의미하며,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문화인력은 1인당 영도구민 약 283명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사람의 성장이 도시의 변화를 이끈다는 영도문화도시의 기본 관점에 입각하여, 인력 양성사업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외화된 사회적 임팩트로 명명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외화 결과 내용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지역사회 외화 결과는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에 해당하는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 이 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변화과정과 연동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놓는 일과 달리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과정은 사람의 성장을 통해 역할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임.

<표> 임팩트 측정지표별 조사 항목의 구성¹⁴⁾

영역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측정내용	조사 항목 수
지역사회 외화	⑰ 문화인력 활성화	- 양성된 문화인력의 사업 연계 정도 - 문화 관련 산업의 종사자 수의 변화 - 예술활동증명자 수(만 명당)의 변화	3
	⑱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 여가활용 만족도의 변화 - 문화·예술활동 향유의 변화 - 협력한 문화·예술 공간의 변화	3
	⑲ 도시 이미지 다각화*	- 영도문화도시 내부 인지도의 변화 - 영도문화도시 홍보 도달 정도의 변화 - 영도문화도시 협력/연계 도시의 변화	3
	⑳ 고립감 완화*	- 고립감 완화 관련 사업 참여자의 변화 - 참여자 고립감 완화의 변화 - 사회적관계소통에서 고령자의 변화	3
	㉑ 공동체 활성화	- 고립감 완화 관련 사업 참여자의 변화 - 참여자 고립감 완화의 변화 - 사회적관계소통 정도의 변화 -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의 변화 - 공동체 의식 정도의 변화	5
	㉒ 교육 환경 개선*	- 양성된 문화인력의 사업 연계 정도 - 보육환경 만족도의 변화 - 학교 외 교육기회 만족도의 변화	3
	㉓ 청년 일거리 확대*	- 기획자학교 일거리 연계 정도 - 문화 관련 산업의 종사자	2
	㉔ 지역경제 활성화	- 월평균 가구소득의 변화 - 문화 관련 산업 사업체의 변화	2
	㉕ 도시 지속가능성	- 문화도시 인지도의 변화 -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의 변화 -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의 변화	3

14) 각 항목 중 임팩트 지표에 가장 부합하는 항목으로 조사 내용이 간추려질 예정

영역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측정내용	조사 항목 수
	㉔ 해양 생태 오염 대응*	- 생태문화 사업 참여자의 변화 - 해양산업 중 문화 관련 사업체의 변화	2

- 각 항목에 관한 조사는 국가통계와 부산시, 영도구의 내부 통계, 영도문화도시의 내부자료를 활용함.
- 조사 결과는 2018년 대비 2023년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되, 통계의 조사 시점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나 대상 사업이 단순 증가 여부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표> 임팩트 측정지표 조사 항목 내용과 방법

영역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측정내용	측정방법
지역사회 외화	⑰ 문화인력 활성화	- 양성된 문화인력의 사업 연계 정도 - 문화 관련 산업의 종사자 수의 변화 - 예술활동증명자 수(만 명당)의 변화	- 내부자료와 국가통계 - 2018~2024년 유효 수치
	⑱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 여가활용 만족도의 변화 - 문화·예술활동 향유의 변화 - 협력한 문화·예술 공간의 변화	- 내부자료와 국가통계 - 2018~2024년 유효 수치
	⑲ 도시 이미지 다각화*	- 영도문화도시 내부 인지도의 변화 - 영도문화도시 홍보 도달 정도의 변화 - 영도문화도시 협력/연계 도시의 변화	- 내부자료 - 2020년과 2023년 비교
	㉑ 고립감 완화*	- 고립감 완화 관련 사업 참여자의 변화 - 참여자 고립감 완화의 변화 - 사회적관계소통에서 고령자의 변화	- 내부자료와 국가통계 - 2018~2024년 유효 수치
	㉒ 공동체 활성화	- 고립감 완화 관련 사업 참여자의 변화 - 참여자 고립감 완화의 변화 - 사회적관계소통 정도의 변화 -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의 변화 - 공동체 의식 정도의 변화	- 내부자료와 국가통계 - 2020~2024년 유효 수치
	㉔ 교육 환경 개선*	- 양성된 문화인력의 사업 연계 정도 - 보육환경 만족도의 변화 - 학교 외 교육기회 만족도의 변화	- 내부자료와 국가통계 - 2020~2024년 유효 수치
	㉕ 청년 일거리 확대*	- 기획자학교 일거리 연계 정도 - 문화 관련 산업의 종사자	- 내부자료와 국가통계 - 2020~2024년 유효 수치
	㉖ 지역경제 활성화	- 월평균 가구소득의 변화 - 문화 관련 산업 사업체의 변화	-
	㉗ 도시 지속가능성	- 문화도시 인지도의 변화 -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의 변화 -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의 변화	-
	㉔ 해양 생태 오염 대응*	- 생태문화 사업 참여자의 변화 - 해양산업 중 문화 관련 사업체의 변화	-

2. 정성평가 측정 결과

1) 정성평가 종합결과 분석

■ 설문 결과를 기반한 지표별 계량화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과정의 사회적 임팩트 측정을 위한 지표 중 정성지표 영역의 분석 결과를 각 세부 지표별 100점 만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정성지표의 결과는 80점대가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84.4점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 임팩트 측정 취지는 각 세부 혹은 영역지수의 높낮이보다 지수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함.

<표> 정성지표 환산 결과

영역지표		영역지표별 계량화	세부 지표	세부 지표 내용	세부지표별 계량화
정성지표		84.4		인력 양성과정 정성평가 평균	84.4
인력양성 사업설계	일 개념	83.7	1	고용개념에서 창업, 협업개념으로 전환	82.9
			2	인식의 진전과 활동 기회의 일치	84.4
	역량축진	87.1	3	재미와 상상을 끌어주는 지식과 표현생성	86.8
			4	자기 인식과 실천을 통한 영역 확장	87.1
			5	타인과 상호작용 및 비인간 주체와 관계 구상	87.4
참여인력 학습과정	학습과정	85.9	6	당사자의 자기 질문과 욕구 반영	84.0
			7	상호 간 대화와 작업의 개방성	85.6
			8	문화기획의 관점과 태도 습득	88.0
참여인력 경험과정	경험과정	83.2	9	즐거움과 몰입으로 자기 인정 경험	86.6
			10	기획방식과 사업 운영 기술 습득	82.7
			11	주변과 나눌거리 증가 및 교류 확장	82.3
			12	새로운 발견을 운용하는 기술 습득	82.0
			13	실행으로 예측과 성찰하는 경험	82.6
참여인력 역할확장	역할확장	82.8	14	도시문제에 대한 기획역량 확장	84.1
			15	새로운 자원을 연결하는 기술 습득	82.2
			16	실행으로 도시 미래를 상상하는 역량 증진	82.1

- 정성지표와 별도로 진행된 영도문화도시의 도시의제 추진 정도를 설문하였는데, 이는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지수보다 낮은 78.6점이 나타남.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사회적 임팩트 측정에서 영도문화도시의 도시의제 추진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인력 양성사업 자체가 도시의제를 ‘문화에 솔로 대응’하는 동력이기 때문임.

<표> 영도문화도시 도시의제 추진 정도 환산 결과

영역지표	의제	세부 지표 내용	의제별 계량화
도시의제		영도문화도시 도시의제 추진 정도	78.6
	1	도시 이미지 다각화	85.2
	2	고립감 완화	81.5
	3	교육 환경 개선	79.6
	4	청년 일거리 확대	73.5
	5	해양 생태오염 대응	73.0

■ 정성지표의 종합분석

① 인력 양성과정과 활동 결과 간의 차이 발생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과정은 인력 양성과정의 설계-학습-경험-확장 과정의 종합 지수가 84.4점이지만, 영도문화도시의 도시의제 추진 정도에서는 78.6점으로 나타나 5.8점의 차이를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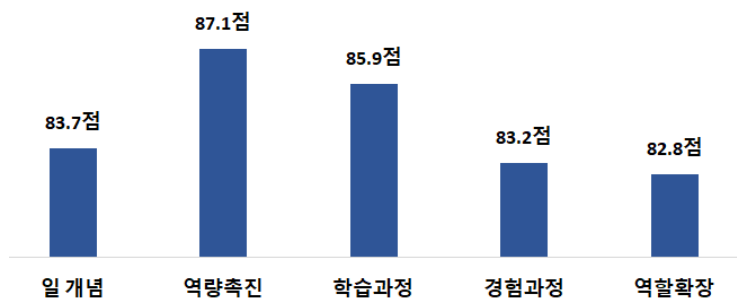
<표> 인력 양성과정과 활동 결과 간의 차이

구분	내용	계량화 수치
정성지표 환산결과	인력 양성과정의 세부 지표 평균	84.4
도시의제 추진정도 인식 환산 결과	영도문화도시 도시의제 추진 정도	78.6

- 이는 ① 인력양성의 역할이 실제 활동을 통해 가시화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② 영도문화도시 도시의제에 따라 가시화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어느 경우라도,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과정에서는 인력 양성과정과 인력의 활동 결과 간에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

②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성을 보이는 역량 촉진 설계와 학습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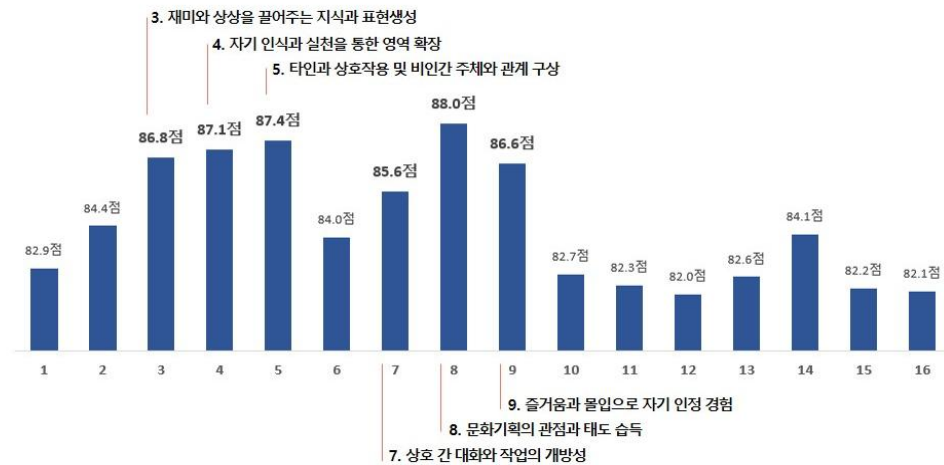
- 인력 양성과정에서는 두 가지 지점에서 높은 지수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력 양성사업설계에서 참여자들의 역량을 촉진하는 지점이며, 다른 하나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지점임.
- 두 지점은 평균 지수인 84.4점보다 높은 과정으로 인력 양성사업설계의 역량 촉진 87.1점, 학습과정은 85.9점을 나타냄.
- 이는 인력 양성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개인의 학습과 기술 습득, 관계 형성 등의 성취에 비해, 경험과정이나 역할 확장은 한 단계 높은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 경험과정과 역할 확장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일 개념의 전환과 연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 개념의 전환(83.7점)과 경험과정(83.2점), 역할 확장(82.8점) 등은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그림) 인력 양성과정의 영역지표별 지수 분포

③ 가장 높게 평가된 문화기획의 관점과 태도 및 즐거움, 상상력, 관계 형성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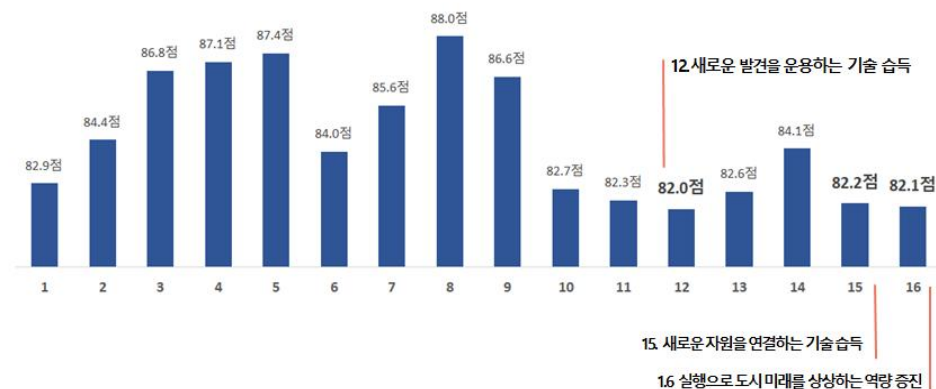
- 참여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지표는 ‘문화기획의 관점과 태도 습득(88.0점)’, ‘타인과 상호작용 및 비인간 주체와 관계 구상(87.4점)’로 기획자로서의 자리매김에 해당하는 지표임.
- 뒤를 이어, ‘자기 인식과 실천을 통한 영역 확장(87.1점)’, ‘재미와 상상을 끌어주는 지식과 표현생성(86.8점)’, ‘즐거움과 몰입으로 자기 인정 경험(86.6점)’, ‘상호간 대화와 작업의 개방성(85.6점)’이 뒤를 이음.
- 이러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참여의 즐거움과 효용감을 기반으로 문화기획 역량을 높여나가는 과정의 긍정성을 의미하며, 참여자 만족감과 효용감 및 성장감이 충족되는 “상당히 재미있는 과정”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그림) 높은 평가를 받은 세부지표

④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과 전환을 통해 미래를 기획하는 과제를 가진 문화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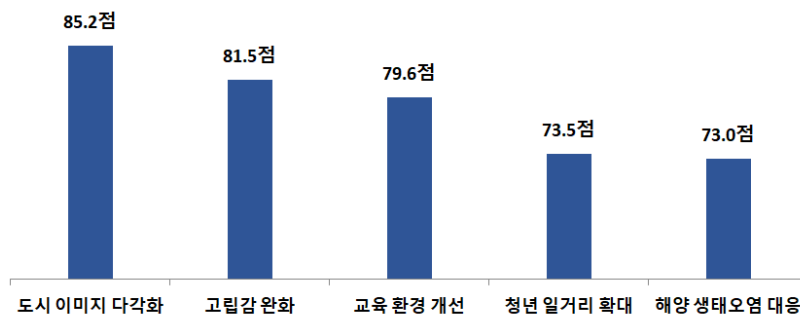
- 참여자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지표는 ‘새로운 발견을 운용할 기술 습득(82.0점)’으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산 혹은 기획 역량에 대한 부족감을 지목함.
- 뒤를 이은 상대적 낮은 평가를 받은 세부지표를 보면, ‘실행으로 도시 미래를 상상하는 역량 증진(82.1점)’, ‘새로운 자원을 연결하는 기술 습득(82.2점)’으로 나타남.
-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의 역량에 주목하는 지표가 아니라, 주로 탐색과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것이나 미래 가치를 감각하는 기획 역량에 해당함.
- 따라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참여자들은 현재의 문제의식을 구현하는 기획 역량은 높아졌지만, 새로운 가치와 영역을 만드는 기획은 “일종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낮은 평가를 받은 세부지표

⑤ 문화인력이 대응하고 있는 도시의제의 난이도의 차이

- 영도문화도시는 도시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하는 미션으로 설정하였지만, 이는 곧 방법론이기도 함.
- 도시의제를 발굴하는 실천의 영역에서 활동할 주민과 예술가, 기획자가 필요한 것은 물론, 도시의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도시문화를 만드는 문화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인력 양성사업은 영도문화도시 사업의 한 부분이지만, 전체를 움직이는 인적 동력을 확보하는 영역이며 동시에 이들의 역할 확장이 곧 도시의제를 해결하는 과정임.
- 정성평가의 과정에서 도시의제 추진 정도(혹은 달성 정도)를 확보한 결과, 5개 도시의제 평균이 78.6점으로 나타남.
- 그중 '도시 이미지 다각화', '고립감 완화', '교육 환경 개선'은 평균보다 높은 긍정이 나타났지만, '청년 일거리 확대', '해양 생태오염 대응'은 평균보다 낮은 긍정을 보여줌.
- 이는 영도문화도시 도시의제 난이도의 차이, 활동이 가시화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 과도 관련이 있지만, 청년 일거리 확대는 대규모 고용이 아닌 스스로 일거리를 만드는 전환개념이라는 측면에서, 해양 생태오염 대응은 각종 제도와 여건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낮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그림) 도시의제 대응에 대한 세부지표

2) 영역 지표별 분석

■ 인력 양성사업 설계 영역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설계는 문화도시 추진 인력의 부족이라는 절박한 요구에서 시작해 영도문화도시에서 문화인력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면서 완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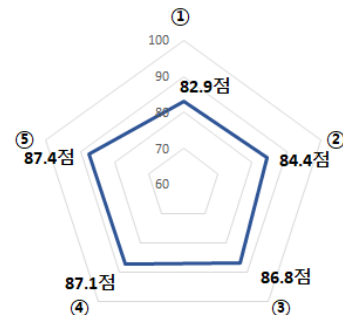
<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설계의 특징

- ① 성장형 문화도시에 맞게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
- ② 교육과 성장지원, 기회 제공이라는 풀세트 인력양성모델
- ③ 사람을 중심으로 역량 성장과 도시 자산 확장하는 방식
- ④ 사람과 사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문화 생태계 기반 구축모델

- 인력 양성사업 설계에 관한 임팩트 측정은 이러한 설계 의도가, 실제 작동하는가를 중심으로 읽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일’에 대한 개념 변화의 작동 여부와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 구성 여부를 지표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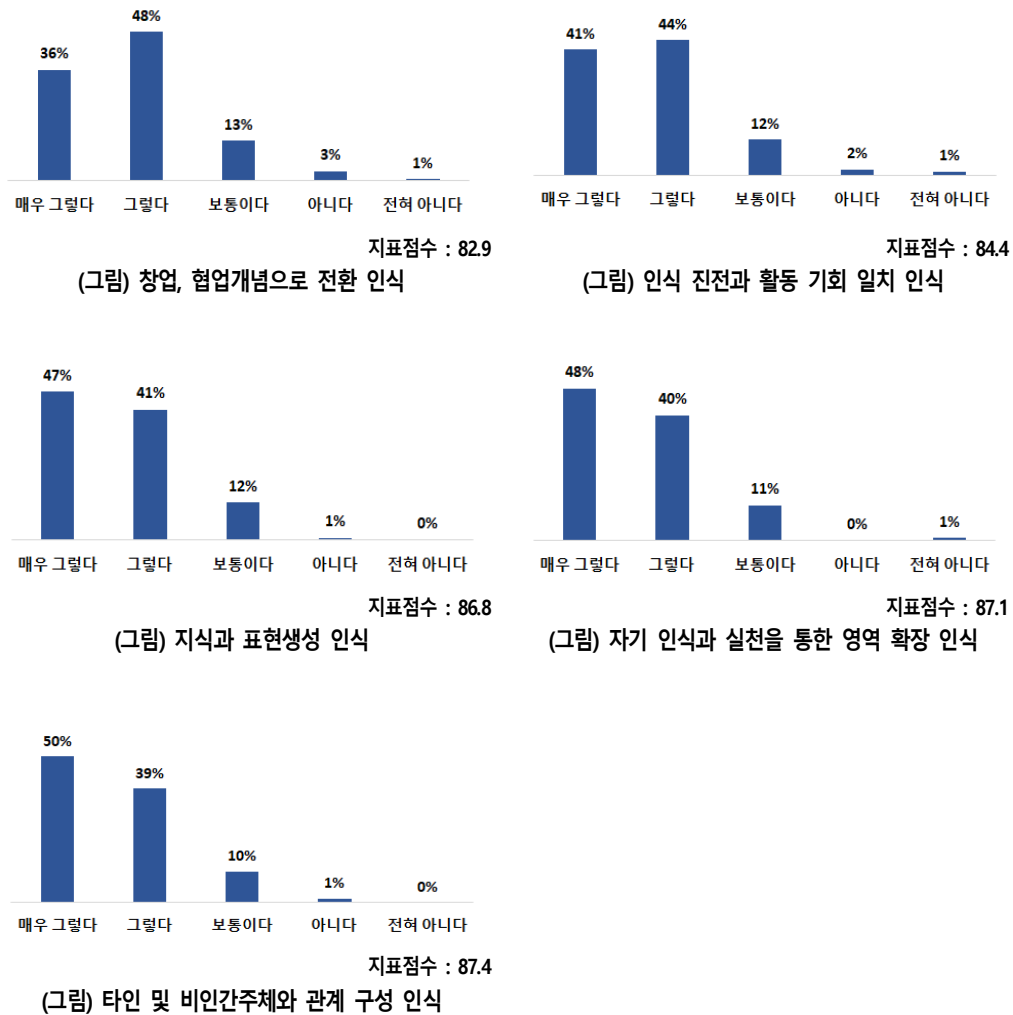
<표> 인력 양성사업 설계에 관한 측정결과

구분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설계	① 고용개념에서 창업, 협업개념으로 전환
	② 인식의 진전과 활동 기회의 일치
역량 성장을 기초한 설계	③ 재미와 상상을 끌어주는 지식과 표현생성
	④ 자기 인식과 실천을 통한 영역 확장
	⑤ 타인과 상호작용 및 비인간주체와 관계 구상



- 각 세부지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부지표별로 계량화 점수의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전체적으로 일 개념 전환과 관련된 설문에는 적극적인 긍정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참여자 중심의 설계 여부에서는 적극적인 긍정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인력 양성설계에 대해 긍정하고 있으나, 일 개념의 전환이나 단계별 성장과정 설계 여부를 참여자들이 적게 감지하고 있으며, 개인과 노동, 사회 구조를 연결하여 사유하는 것의 어려움을 의미함.
- 그럼에도 노동의 변화 특히 문화·예술계 노동의 성격, 미래 노동의 변화 예측 등에 관한 참여자의 이해 촉진은 ‘문화예술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표> 인력 양성사업 설계의 세부지표별 응답 결과



■ 참여인력 학습과정 영역

- 참여인력 학습과정과 경험과정은 뚜렷한 구별이 어려운 영역이나, 영도문화도시 분석을 기반으로 참여자의 주체적 성장 모델로 'OECD 학습 나침반2030' 모델과 '문화·예술 행위 효과분석 모델'을 활용함.
- 영도문화도시 참여인력 학습과정은 이러한 모델의 앞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당사자성에 기초하여 관점과 태도를 갖추고, 기초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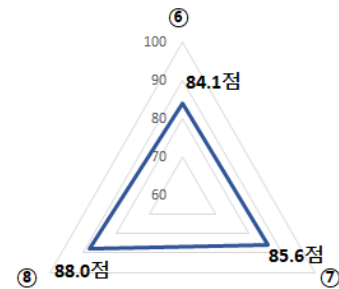
<표> 영도문화도시 참여인력 학습과정의 특징

- ① 당사자의 역량으로 문화예술 지식, 기능, 태도, 가치 강화
- ② 소통과 협력적 작업으로 관계의 개방성 강화
- ③ 실용적 역량으로 핵심 기초 역량 증진

- 참여인력 학습과정은 참여인력의 입문(入門) 과정이기도 하지만, 문화인력으로서 인문(人文)과정이자, 성장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설정될 수 있으므로 문화인력으로서 자질을 구성하는 지표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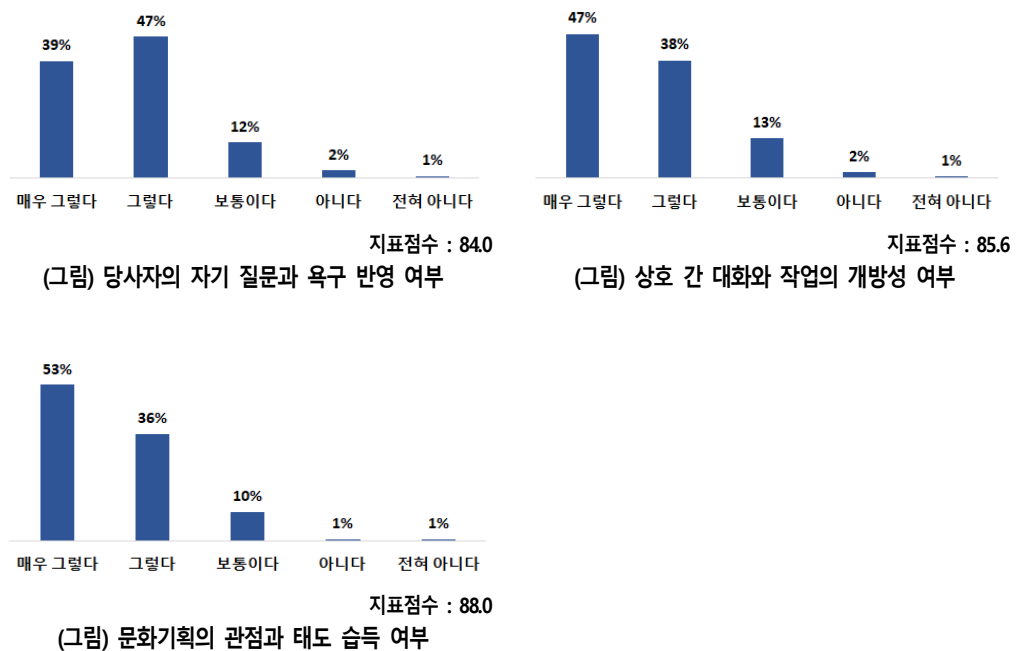
<표> 참여인력 학습과정에 관한 측정결과

구분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개인 (당사자 주도성)	⑥ 당사자의 자기 질문과 욕구 반영
관계 (협력적 주도성)	⑦ 상호 간 대화와 작업의 개방성
역량 (지식 가치 기술 태도)	⑧ 문화기획의 관점과 태도 습득



- 각 세부지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지표(6번)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문화기획의 관점이나 태도 습득(8번)은 높은 점수를 드러냄.
- 영도문화도시는 주체적 참여 기반 인력양성을 의도하고 있지만, 참여자 준비 정도 차이, 학습-활동 과정에서 자기 욕구나 당사자성을 발견하는 등 변수가 존재함.
- 반면, 협력학습의 여부와 기획의 관점과 태도 습득은 적극적 긍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명확한 효용감을 보여줌.

<표> 참여인력 학습과정 세부지표별 응답 결과



■ 참여인력 경험과정 영역

- 참여인력 경험과정은 앞 단계인 학습과정의 연장이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 역시 참여자의 주체적 성장 모델인 ‘OECD 학습 나침반2030’ 모델과 ‘문화·예술 행위 효과분석 모델’을 활용함.
- 영도문화도시 참여인력 경험과정은 이러한 모델의 뒤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과정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질문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음.
- 대체로 이 과정을 통해 문화인력으로 자리를 잡는 경험을 하게 되며, 사례비를 받고 자기활동을 한다든지, 의뢰를 받고 기획, 디자인, 강의, 토론, 전시, 공연, 집필 등을 협업하게 된 과정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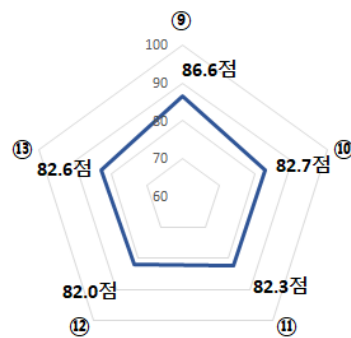
<표> 영도문화도시 참여인력 경험과정의 특징

- ① 활동·수행·실용 역량의 강화 과정에서 예술적 감각과 창조적 정서 감각 증진
- ② 전환적 사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 발견 및 협력, 소통, 다양성 감수성 증진
- ③ 예측, 실행, 반성을 통해 활동의 고도화 진전

- 참여인력 경험과정은 학습과정을 통해 관점과 자세를 갖추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흥미를 확장하고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기로서,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고 새로운 모색을 해나가는 지표로 설정하였음.

<표> 참여인력 경험과정에 관한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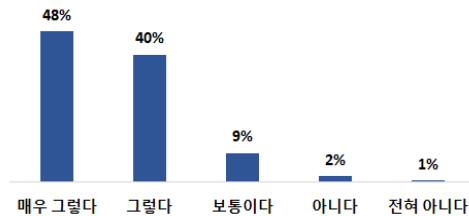
구분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핵심기초 (일 수행 역량과 창의적 감각)	⑨ 즐거움과 몰입으로 자기인정 경험
	⑩ 기획방식과 사업 운영 기술 습득
확장 (전환적 역량과 연결 역량)	⑪ 주변과 나눌거리 증가 및 교류 확장
	⑫ 새로운 발견을 운용하는 기술 습득
학습방식 (성찰적 행위 조직)	⑬ 실행으로 예측과 성찰하는 경험



- 전반적으로 학습과정보다 점수 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천 활동을 통해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실험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드러나 있음.
- 특히, ‘새로운 발견을 운용하는 기술 습득’의 경우, 변화하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며, 역량으로 이를 경험하고 경험치를 자기 역량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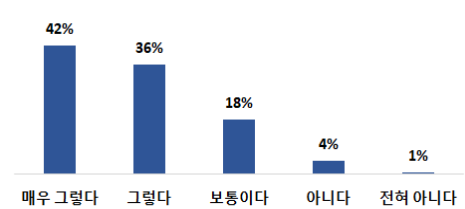
- 영도문화도시는 인력 양성과정 참여자가 자기 문제의식을 드러낼 때 새로운 일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경험과정으로 연결하였는데, 많은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남.

<표> 참여인력 경험과정 세부지표별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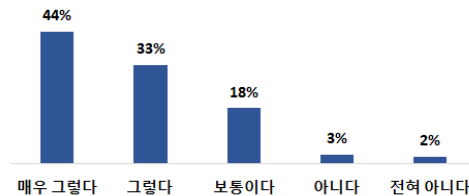
지표점수 : 86.6

(그림) 즐거움과 몰입으로 자기인정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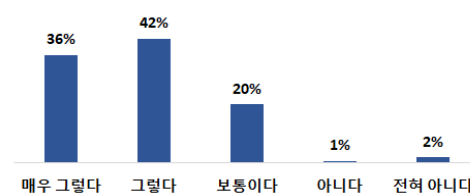
지표점수 : 82.7

(그림) 기획방식과 사업 운영 기술 습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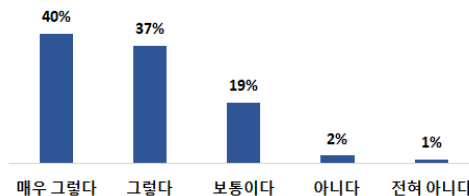
지표점수 : 82.3

(그림) 주변과 나눌거리 증가 및 교류 확장 여부



지표점수 : 82.0

(그림) 새로운 발견을 운용하는 기술 습득 여부



지표점수 : 82.6

(그림) 실행으로 예측과 성찰하는 경험 여부

■ 참여인력 역할 확장 영역

- 참여인력의 역할 확장은 학습과 경험과정을 한 단계 질적 전환하는 플라이 휠 모델을 적용하여 설계된 과정임.
- 영도문화도시의 참여인력 역할 확장은 일상적이고 다소 정형화된 의식과 행위를 한 단계 확장하는 것이며, 그 확장을 통해 도시의 문화 역량을 구축구축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 혹은 지역의 고질적 이슈와 연결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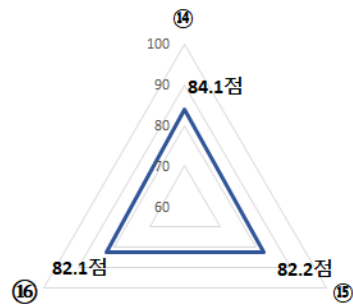
<표> 영도문화도시 참여인력 역할 확장 과정의 특징

- ① 도시의제를 기획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역량 확장
- ② 다양한 자원, 기술, 전통, 일상을 연결하는 역량 확장
- ③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는 안목의 확장

- 참여인력 역할 확장은 정형화된 활동 영역에서 벗어나 비정형, 무정형 혹은 새로운 정형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함.
- 또한, 이는 폭력적인 떠밀림에 저항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며, 변화에 대응하는 자원 연결 역량과 관계되는 영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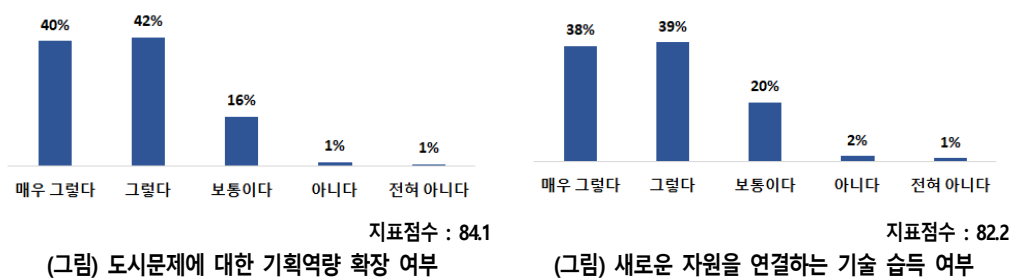
<표> 참여인력 역할 확장에 관한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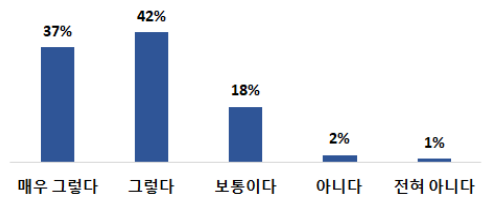
구분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변혁적 확장 (돌봄, 안전, 협력, 연대)	⑭ 도시문제에 대한 기획역량 확장
	⑮ 새로운 자원을 연결하는 기술 습득
변혁적 학습방식 (성찰적 행위)	⑯ 실행으로 도시미래를 상상하는 역량 증진



- 전반적으로 참여인력 경험과정과 유사한 점수대가 나타나는데, 이는 경험과정과 역할 확장을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거나, 역할 확장 영역을 크게 상상하지 않은 이유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새로운 자원을 연결하는 기술 습득’과 ‘실행으로 도시미래를 상상하는 역량 증진’ 지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세부 지표임.
- 이는 ‘새로운’, ‘미래’라는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과제 영역에 해당하는데, 영도문화도시 인력양성 참여인력도 과제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표> 참여인력 역할 확장 세부지표별 응답 결과





지표점수 : 82.1

(그림) 실행으로 도시미래를 상상하는 역량 증진 여부

3. 정량평가 측정 결과 분석

1) 정량평가 종합결과 분석

■ 정량평가 측정자료의 내용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지역사회 외화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데,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내부자료와 외부 통계 자료의 교차 측정 결과를 활용함.
- 내부 자료는 영도문화도시 보고서를 활용하였으며, 국가통계는 사회조사, 경제 관련 조사, 관광데이터, 예술활동증명 등의 통계를 활용함.

<표> 정량평가 활용자료

구분	활용자료	세부내용	활용 수치
사회조사 (국가통계)	- 부산시 사회조사 - 영도구 통계연보 - 영도구 사회조사	- 여가활용 만족도 - 사회적관계소통 정도 -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 공동체 의식 정도 - 보육환경 만족도 - 학교 교육 외 교육 기회 - 월평균 가구소득 -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 -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긍정 응답 합산
경제 (국가통계)	- 해양사업체조사	- 3개 산업군 수산 / 해양관광 / 기타해양및해양자원 의관리보전에관한산업	사업체 수
	- 전국사업체조사	- 9개 산업군 조사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 출판업 /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연구개발업 / 전문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창작·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협회및단체	종사자 수 사업체
	- 한국관광데이터랩 <방문자 수>	- 관광 방문자 - 관광 소비	방문자 연평균 소비액 연평균
기타 (국가통계)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예술활동증명 통계	영도구 예술인 수
내부	- 영도문화도시 보고서 - 사업 참여자 명단	- 기획자학교 수료자 - 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연계 - 연차별/미션별 사업과 참여자 - 지역 내 문화공간 협력 - 문화도시 인지도 - 영도홍보 도달 수 - 도시 간 네트워크 참여 도시 수 - 고립감 완화 정도	항목별 수치 기존 성장률

출처: 각 기관 누리집 및 영도문화도시 내부자료

■ 정량평가 측정자료의 산출

- 각 자료를 해석하고 이를 정량적 평가값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자료의 성격에 맞는 산출 방식을 별도로 적용함.
- 따라서 자료에 따라, 증감률, 연계율 혹은 성장률을 적용하여 수치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각 자료의 특성에 따라 수치 변화가 다양함.

<표> 정량평가 산출 방식

산출 방식	산출 수식	대상 항목	내용
증감률	$(\text{비교값} - \text{원값}) / \text{원값}$	국가통계 내부자료	원값 대비 최근값의 가감 정도
연계율	$\text{비교값} / \text{원값}$	내부자료	원값 대비 비교값의 연결 정도
(연차별)성장률	$((\text{비교값} / \text{원값}) - 1)^{1/n(\text{연차})}$	내부자료	연차별 평균 성장률

■ 정량평가 측정자료의 환산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과정의 사회적 임팩트 측정을 위한 지표 중 사회적 외화 영역은 국가통계와 내부자료의 측정내용 교차를 통해 증감률, 연계율, 연차별 성장률을 측정하고 평균을 성장률로 봄.
- 이를 정성평가 영역과의 균형을 위해 세부 지표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리하기 위해 지표의 환산 구간을 설정함.

<표> 정량지표 점수 구간

성장률	10%미만	10~20%	20~30%	30~40%	40~50%	50% 이상
점수	50	60	70	80	90	100

■ 통계 자료를 기반한 정량평가 지수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과정의 사회적 임팩트 측정의 지역사회 외화 부분을 4개의 영역, 10개의 세부지표로 나누어 분석 결과를 각 세부 지표별 100점 만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이를 토대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지역사회 외화에 관한 지수는 평균 85점이 산출되었는데, 지표별 출처 자료가 워낙 다양하여 분포 구간이 넓게 포진됨.
- 이를 보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 자체가 일종의 왜곡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산출된 비율을 중심으로 점수를 산정함.

<표> 정량지표 계량 전 비율표

영역지표		영역지표별 측정값(%)	영역지표별 한산(지수점)	세부 지표	세부 지표 내용	세부지표별 측정값(%)	영역지표별 한산(지수점)
정량지표					인력 양성사업 정량평가 평균	64.4	85
문화적 가치 창출	도시문화의 활력화	102.0	100	17	문화인력 활성화	57.0	100
				18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136.4	100
				19	도시 이미지 다각화*	112.6	100
사회적 가치 창출	공동화, 고령화, 양육환경의 개선	44.7	90	20	고립감 완화*	41.0	90
				21	공동체 활성화	39.2	80
				22	교육 환경 개선*	53.8	100
경제적 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27.7	70	23	청년 일거리 확대*	39.3	80
				24	지역경제 활성화	16.2	50
미래 가치 창출	도시 지속가능성	74.4	100	25	도시 지속가능성	17.5	50
				26	해양 생태 오염 대응*	131.34	100

■ 정량지표의 종합분석

① 높은 문화적 임팩트와 지역적 외화

- 5년간 이루어진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과정은 문화인력의 양성과 활동 그리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과정을 포괄하여 지역사회에 외화됨.
- 문화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도시 이미지 다각화’는 큰 폭으로 변화가 나타남.
- 이는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의제에 대응하는 기초 취지처럼 문화예술의 활성화 자체가 도시의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며, 양성된 인력의 활동 역시 문화예술 영역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② 지역사회에 확장되는 사회적 변화

-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대체로 ‘고립감 완화’, ‘공동체 활성화’, ‘교육 환경 개선’ 등에서 고르게 긍정성을 보여줌.
- 이는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과 활동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영향이 사회 저변으로 확장되었거나 되고 있는 중으로 판단됨.

③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임팩트와 미래 가치에 대한 대응

- 경제적 가치 창출과 미래 가치 측면에서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도 대체로 일정한 변화가 감지되지만, 그것이 지역의 구조나 변화를 끌어내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나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임팩트를 남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문화예술의 한계’ 혹은 ‘충분한 시간 부족’ 등 다양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음.
- 다만, 정량평가의 내용과 정성평가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

2) 지표별 분석

■ 문화인력 활성화

- 문화인력 활성화는, 인력의 활동 지속성과 영도구 전반의 문화적 일거리 생태계, 역량의 성장과 일거리 연계를 통한 변화를 보고자, “기획자학교” 수료자의 후속활동 연계율, 문화 유관 산업의 종사자 수, 예술활동 증명현황의 변화를 측정함.
- “기획자학교”는 문화인력양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2020~2023년 사이에는 신진 기획자의 양성을 추진하고 2024년은 기존 양성인력들의 후속활동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추진됨. 이에 2020~2023년 사이 누적 참여자의 2024년 연계율을 측정함.

<표> 문화인력 활성화 측정방법

측정내용(단위)	시점	원값	비교값	결과(%)	산출방식
기획자학교 수료자의 후속사업 참여(명)	원값 2020~2023 비교값 2024	204	106	52.0%	연계율
문화 관련 산업 종사자(명)	원값 2018 비교값 2022	8,948	10,578	18.2%	증감률
예술활동 증명현황 (만 명당)	원값 2020 비교값 2024	12.2	24.5	100.8%	증감률
			평균	57.0%	

■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는 영도 전반의 문화·예술활동의 만족도와 영도문화도시센터 사업과 문화활동에의 접근성을 살피고자 사회조사의 여가활용 만족도, 영도문화도시센터의 전체 사업 수 대비 참여자 수, 지역 문화공간 협력 수의 변화를 측정함.

- 지역 문화공간 협력 수는, 영도구 내 영도문화도시센터와 협력한 민간 문화공간의 수로, 센터 운영 종료 후에도 문화 거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측정내용으로 채택하여 연차별 평균 성장률을 적용함.

<표>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측정방법

측정내용(단위)	시점	원값	비교값	결과(%)	산출방식
여가활용 만족도(%)	원값 2019 비교값 2023	18.4%	27.0%	46.7%	증감률
전체사업수 대비 참여자 수(명)	원값 2020 비교값 2023	287.9	5747.3	208.7%	성장률
지역 문화공간 협력 (곳)	원값 2020 비교값 2023	10	66	153.8%	성장률
			평균	136.4%	

■ 도시이미지 다각화

- 도시이미지 다각화는 영도문화도시센터에서 문화도시 인지도를 연차별로 측정한 바 있어 해당 수치에 증감률을 적용해 측정함.
- 이에, 인지도 측정 결과와 함께 온라인 홍보, 도시 간 네트워크가 일어난 수치의 변화를 측정하여 내외부의 인지도와 접근 정도를 함께 살피고자 함.

<표> 도시이미지 다각화 측정방법

측정내용(단위)	시점	원값	비교값	결과(%)	산출방식
영도문화도시 인지도(%)	원값 2020 비교값 2023	25.3%	41.6%	64.4%	증감률
영도문화도시 온라인 홍보(건)		26,912	159,544	149.0%	성장률
도시 간 네트워크(수)		7	24	124.8%	성장률
			평균	112.8%	

■ 고립감 완화

- 고립감 완화는 영도문화도시에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3년에는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연결성 척도검사>¹⁵⁾를 실시함.
- 이에, 위 검사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더해 고립감 완화 사업 참여자 수의 변화, 사회적관계소통 정도를 함께 살핌.

15) 문체부, 2023, 27쪽

- 영도구의 경우, 부산시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하였고 부산시 1인 가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40%가 넘는 유일한 도시로, 고령자 응답을 적용함.

<표> 고립감 완화 측정 방법

측정내용(단위)	시점	원값	비교값	결과(%)	산출방식
사회적 연결성 척도 참여자 고립감(%)	단일값 2023	-	-	25.0%	내부지표
고립감 완화 사업 참여자(명)	원값 2020 비교값 2023	418	1131	114.3%	성장률
사회적관계소통 정도 _고령(%)	원값 2019 비교값 2022	60	70.2	17.00%	증감률
			평균	52.1%	

■ 공동체 활성화

- 공동체 활성화는 사회적 고립감과 공통점이 있되, 핵심 영역을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하는 사회적 고립감보다 넓은 영역을 봐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고립감 완화 항목과 공통으로 관련 사업의 참여자 수의 성장률을 적용함.
- 외부 지표로, 사회조사에서의 사회적 관계 소통 정도와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공동체 의식 정도의 증감률을 적용함.

<표> 공동체 활성화 측정방법

측정내용(단위)	시점	원값	비교값	결과(%)	산출방식
고립감 완화 사업 참여자(명)	원값 2020 비교값 2023	418	1131	114.3%	성장률
사회적관계소통 정도(%)	원값 2019 비교값 2022	69.1	74.5	7.8%	증감률
공동체 의식 정도(%)	원값 2020 비교값 2022	17.3	20.6	19.1%	증감률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원값 2018 비교값 2023	45.3	52.4	15.7%	증감률
			평균	39.2%	

■ 교육환경 개선*

- 교육환경 개선은 영도문화도시의 핵심미션으로, 내부자료를 통해 기획자학교 수료자의 사업 연계율을 측정하고, 사회조사에서의 보육환경만족도, 학교 교육 외 교육 기회를 함께 살핌.

- 사회조사는 5점 척도의 4.5점을 긍정응답으로 보고 합산하여 증감률을 적용함.

<표> 교육환경 개선 측정방법

측정내용(단위)	시점	원값	비교값	결과(%)	산출방식
기획자학교 수료자의 후속사업 참여(명)	원값 2020~2023 비교값 2024	204	106	52.0%	연계율
보육환경만족도(%)	원값 2021 비교값 2023	39.1	68.7	75.7%	증감률
학교 교육 외 교육 기회(%)	원값 2021 비교값 2023	23.5	31.4	33.6%	증감률
			평균	53.8%	

■ 청년 일거리 확대*

- 영도문화도시는 내부 성과평가를 위해 연차별로 일거리 연계 수, 고용·창업·창직 수와 전년대비 증감률을 산출한 바 있음.
- 이는 단일 시점에서의 수치 확인엔 요원하나, 지역사회 외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내부 성과에서의 연계 정도와 관련 산업군의 성장을 함께 살펴 필요 있음.
- 또한,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청년 일거리 확대를 단위 사업으로 보지 않고 인력 양성과정의 일거리 연계를 통해 문화도시 전체를 작동시키는 방식을 취하였음. 이에, 실제 추진과정에서도 다양한 세대가 당사자성 의제를 개량하여 일거리로 연계하는 과정에 집중하였기에 이에 본 항목에서도 세대를 분류하지 않음,

<표> 청년 일거리 확대 측정방법

측정내용(단위)	시점	원값	비교값	결과(%)	산출방식
기획자학교 수료자 중 일거리 연계(수)	원값 : 수료자 누적 비교값 : 일거리 참여자	204	123	60.3%	
문화관련 산업 종사자(명)	원값 : 2018 비교값 : 2022	8,948	10,578	18.2%	
			평균	39.3%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주민의 소득과 관광, 산업 3가지 맥락을 살펴보았는데, 관광은 방문자의 수와 소비액을 시점별 평균값의 증감률로 측정하고, 문화 관련 산업은 일거리 관련 사업체 수를 합산하고 시점별 증감률을 측정함.
- 주민의 소득은 2~3인 가구의 중위소득 50%에 가장 근접한 200만 원 미만의 감소와 100%에 근접하면서 고소득자로 분류되지 않는 구간인 300~600만 원 사이의

증가를 증감률을 통해 살펴.

<표> 지역경제 활성화 측정방법

측정내용(단위)	시점	원값	비교값	결과(%)	산출방식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원값 : 2018 비교값 : 2023	-48	-53.2	10.8%	증감률
월평균 가구소득 (300~600만 원)		43.3	47.1	8.8%	증감률
관광 방문자(명)	원값 : 2019 비교값 : 2023	1384598	1609594	16.2%	증감률
관광소비(천 원)		34822	39331	12.9%	증감률
문화관련 산업 사업체(수)	원값 : 2018 비교값 : 2022	782	1034	32.2%	증감률
			평균	16.2%	

■ 도시 지속가능성

- 도시 지속가능성은, 영도문화도시의 미션으로서 자체 성과지표인 문화도시 인지도의 증감률을 살피는 동시에, 사회조사에서의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과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증감률을 측정함.

<표> 도시 지속가능성 측정방법

측정내용(단위)	시점	원값	비교값	결과(%)	산출방식
문화도시 인지도(%)	원값 2020 비교값 2023	25.3%	31.0%	22.5%	증감률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	원값 2017 비교값 2022	61.4	67.3	9.6%	증감률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원값 2019 비교값 2022	42.4	51.0	20.3%	성장률
			평균	16.2%	

■ 해양 생태 오염 대응

- 해양 생태 오염 대응은 영도문화도시가 추진한 생태문화 관련 사업의 매개자 수의 성장률을 살피는 것과 함께, 해양산업 중 일부 산업군의 증감률을 측정함.
- 생태문화 사업의 경우, 기획자 과정이나 매개자 등 단순 향유보다 확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능동적 참여자들만을 합산함. 2020년과 이후의 누적 참여자를 비교한 것으로 증감률이 아닌 연차별 성장률을 적용하여 측정함.
- 대상이 되는 해양산업은, 바다의 수질과 직접적 영향 관계에 있는 수산업과 관광산업, 해양자원 관리 보전 산업군 3개만 선정하여 증감률을 측정함.

<표> 해양 생태 오염 대응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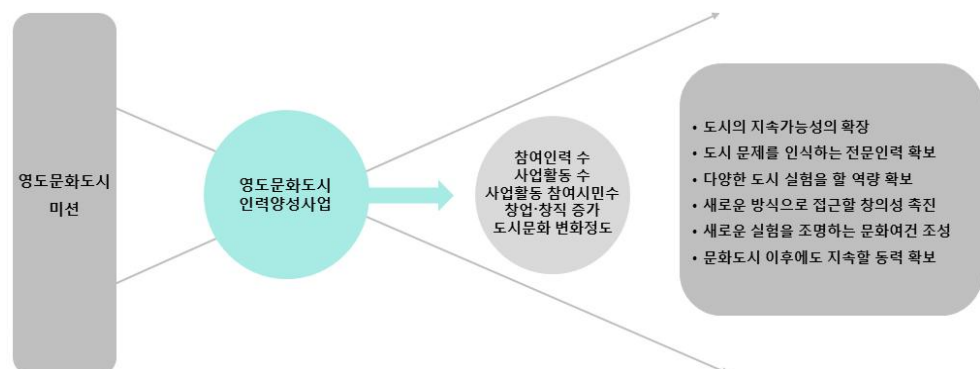
측정내용(단위)	시점	원값	비교값	결과(%)	산출방식
생태문화 사업 매개자 수(명)	원값 : 2020 비교값 : 2021~2023	15	642	254.3%	성장률
해양문화 관련 산업 사업체(수)	원값 : 2018 비교값 : 2022	2,190	2,374	8.4%	증감률
			평균	131.3%	

4.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임팩트 종합분석

1) 임팩트 측정 종합 분석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임팩트 탐구 영역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은 영도문화도시 미션 성공을 위한 전략이자, 영도문화도시 정책의 동력이라는 사업 위상을 가지고 있음.
- 다시 말해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은 ‘도시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하는 전략임과 동시에 동력이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인력 양성사업은 사업의 추진 정도와 그것의 사회적 개량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연결지점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임팩트는 영도문화도시 미션과 그 미션의 전략이자 동력으로서 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임팩트 탐구가 어떠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그림) 인력 양성사업 사회적 임팩트 탐구 영역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임팩트 종합적 분석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측정은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를 연결하여 측정하였는데, 정성지표는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수치화한 것이며, 정량지표는 각종 통계지표를 해석하여 수치화한 것임.
- 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각각의 수치를 100점 만점 지수로 환산하여 종합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으며, 과정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회적 임팩트를 살펴보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표> 인력 양성사업의 임팩트 측정 종합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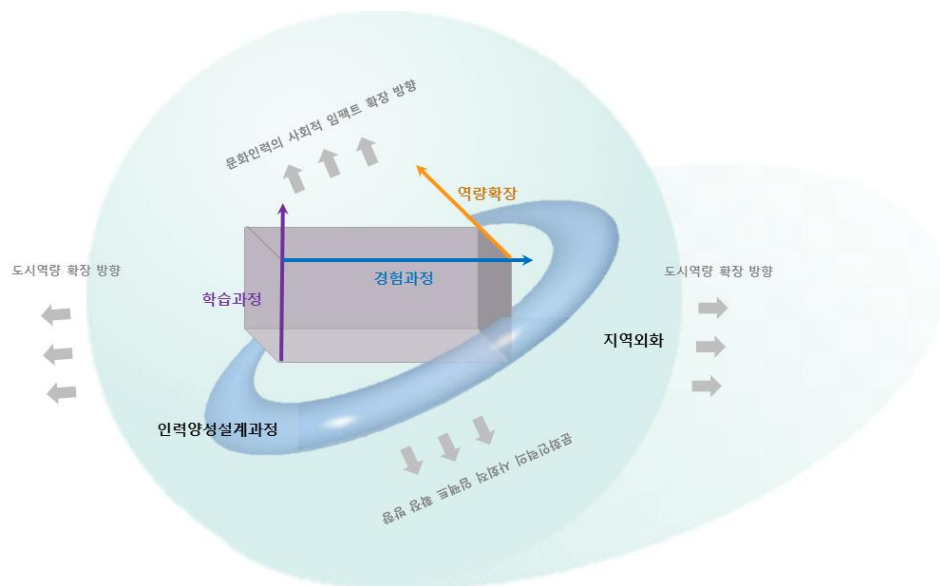
영역	사회적 임팩트 측정지표	정성평가		정량평가		종합평가	
		지수	비교	지수	비교	지수	비교
인력양성 사업 설계	① 고용개념에서 창업, 협업개념으로 전환	82.9	○			82.9	○
	② 인식의 진전과 활동 기회 여건의 일치	84.4	○			84.4	○
	③ 재미와 상상을 끌어주는 지식과 표현생성	86.8	◎			86.8	◎
	④ 자기 인식과 실천을 통한 영역 확장	87.1	◎			87.1	◎
	⑤ 타인과 상호작용 및 비인간주체와 관계 구상	87.4	◎			87.4	◎
참여인력 학습과정	⑥ 당사자의 자기 질문과 욕구 반영	84.0	○			84.0	○
	⑦ 상호 간 대화와 작업의 개방성	85.6	○			85.6	○
	⑧ 문화기획의 관점과 태도 습득	88.0	◎			88.0	◎
참여인력 경험과정	⑨ 즐거움과 몰입으로 자기인정 경험	86.6	◎			86.6	◎
	⑩ 기획방식과 사업 운영 기술 습득	82.7	○			82.7	○
	⑪ 주변과 나눌거리 증가 및 교류 확장	82.3	○			82.3	○
	⑫ 새로운 발견을 운용하는 기술 습득	82.0	○			82.0	○
	⑬ 실행으로 예측과 성찰하는 경험	82.6	○			82.6	○
참여인력 역할확장	⑭ 도시문제에 대한 기획역량 확장	84.1	○			84.1	○
	⑮ 새로운 자원을 연결하는 기술 습득	82.2	○			82.2	○
	⑯ 실행으로 도시미래를 상상하는 역량 증진	82.1	○			82.1	○
소계		84.4				84.4	
지역사회 외화	⑰ 문화인력 활성화			100	◎	100	◎
	⑱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100	◎	100	◎
	⑲ 도시 이미지 다각화*	85.2	◎	100	◎	92.6	◎
	⑳ 고립감 완화*	81.5	○	90	○	85.8	○
	㉑ 공동체 활성화			80	○	80	○
	㉒ 교육 환경 개선*	79.6	△	100	◎	89.8	◎
	㉓ 청년 일거리 확대*	73.5	△	80	○	76.8	△
	㉔ 지역경제 활성화			50	△	50	△
	㉕ 도시 지속가능성			50	△	50	△
	㉖ 해양 생태 오염 대응*	73.0	△	100	◎	86.5	○
소계		78.6		85			
종합						81.2	

*부분은 영도문화도시가 선정한 도시의제임.

2) 임팩트 측정 결과의 의미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임팩트 확산 모델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은 ① 영도문화도시 미션이 추구하는 방향 ② 문화·예술계 일에 관한 전환 개념 ③ 영도문화도시의 도시의제를 중심으로 인력 양성과정이 설계되었음.
- 따라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은 ① 사업의 설계 ② 참여자 학습과정 ③ 참여자 경험과정 ④ 참여자 역할 확장 과정을 거쳐 확장되는 구조임.
- 또한, 이는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인 동시에 도시의 역량이 강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이 가진 당사자성과 사회성을 연결하여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을 설명하는 개념도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임팩트 개념도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설계의 맥락은 참여자가 스스로 학습하고 경험하며, 자신의 역량을 확장하도록 설계하였고, 이는 당사자의 참여와 자기 질문과 탐구를 통해 실제화되는 것임.
- 이러한 실제화는 다양한 활동의 활성화 및 빈번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개인의 성장을 가져오고, 이것이 바로 ‘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임팩트’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은 개인 당사자의 경험과정과 역할 확장 과정을 지나면서 도시의제를 더욱 능숙하게 다루게 되고 마침내 도시의제에 대응하는 지점으로 이동하게 됨.
- 이는 문화예술로 도시의제를 대응하는 미션의 실천이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극대화되는 것을 의미함.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임팩트 측정에서 읽는 세부 이슈

- 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임팩트 측정에서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이슈가 등장하는데 이는 영도구 혹은 영도문화도시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지점임.

① 가능성과 긍정성에 기초한 문화인력의 활동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한 문화인력은 인터뷰와 설문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과 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효용감에 기초하고 있음.
- 이러한 효용감은 영도가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선입견을 내부적으로 깨는데 기여했으며, 도시의 가치를 새롭게 읽을 동기와 가치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됨.
- 이는 영도문화도시가 정책 혹은 사업의 가장 강력한 애착 그룹을 형성하였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사업 활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실험을 하는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동하였다는 의미임.

② 현재 진행형인 인력 양성사업의 효과와 성과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에서 배출된 문화인력의 성장은 학습과 경험의 확장 과정을 지나면서 역할 확장단계에 들어서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물론, 참여인력의 학습과 성장 지표에 비해 역할 확장지표는 낮게 나타났지만, 이는 미흡한 측면이라기보다는 인력성장과 활동의 ‘현재진행형’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
- 또한, 이는 정성평가를 통해 보이는 결과지수의 차이에서 보았듯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단계 혹은 그러한 과제 단계에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함.

③ 개인과 도시의제가 사업 속에서 결합한 형태

- 영도문화도시의 인력 양성사업은 개인과 도시의 결합을 통해 삶의 터전을 구축하

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음.

- 이는 문화·예술의 역할이 개인의 정서 함양이나 예술적 영감에 머물지 않고, 도시 기반, 지역공동체, 문화 격차, 지구생태계 등으로 확장된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어 향후의 실천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역할이 가능하다는 성격을 의미함.

④ 사회적 역할의 다양한 층위를 포괄하는 형태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활성화된 형태이지만, 그것이 기존의 정치적 사회의식과 달리 일상성과 공동체성을 강하게 담고 있어 더욱 확장된 형태의 사회적 역할을 설정하고 있음.
- 이는 사회적 역할 자체를 이념적으로 인식했던 우리 사회의 일반 인식과 다르게, 고립, 쇠퇴, 낙후, 배제, 오염 등 삶의 안전성을 해치는 것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동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VI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결과 종합분석

VI.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결론과 제언

1.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의미와 위상

1)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의미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임팩트 측정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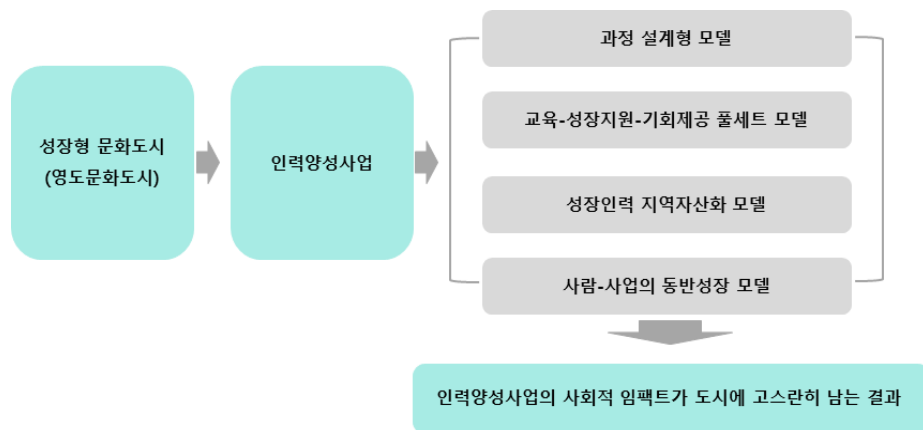
- 본 보고서의 2장에서 기술한 바에 같이 사회적 임팩트 측정은 자본주의적 성장이 더 이상 현재의 체계를 지속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주기적인 위기 속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달로 인해 사회적 관계 맺음과 공동체적 협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실천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임.
- 사회적 임팩트는 기업, 조직, 정책의 효과를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평가하고 재구조화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아 확산하고 있음.
- 영도문화도시는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문화인력의 부족은 물론, 지역문화·예술 생태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 진단을 통해 인력 양성사업 자체가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침내 문화도시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설정함.
-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양성된 문화인력의 인원이나 이들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의 수 혹은 이들의 고용, 창업, 창직의 수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 따라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함으로써 이 사업이 가진 사회적 가치와 그것의 구현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함.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사회적 임팩트 결론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은 영도문화도시 미션에 따라 설계되고 진행되었지만, 이는 초기부터 설계하였다기보다 영도문화도시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구축된 ‘과정 설계형’ 인력 양성사업임.
- 더구나 영도문화도시 자체가 매해 도시의제를 검토하면서 사업을 전략적으로 재구

성하는 ‘성장형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인력 양성사업도 ‘과정 설계형’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은 교육-성장지원-기회 제공이라는 ‘풀세트 인력양성모델’로서, 사람을 중심으로 역량 성장과 도시 자산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람과 사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문화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되었으므로 사업의 성과가 지역에 고스란히 남는 구조임.



(그림)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성과의 자산화 논리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과정별 임팩트 분석에서는 일부 과정은 높은 지수를 보이는 반면, 일부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는데,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자산화 논리구조 속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성장 중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은 본질적으로 지역으로 회귀하는 구조 속에 활동 축적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임.
- 더구나 도시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과를 지역으로 지속하여 환원되어 사회적 임팩트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2)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위상

■ 높은 사회적 임팩트를 만드는 인력 양성사업 위상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은 영도문화도시 사업의 부분이지만, 전제 동력을 생산하는 일종의 ‘인력발전소’의 위상을 가짐.

- 매년 참여자 모집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를 모집하지만, 학습 이후에 활동으로 이어지는 방식뿐 아니라, 학습과정에서 이미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도 왕왕 일어남.
- 이는 문화도시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과 동시에 인력을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인력 양성사업은 영도문화도시의 ‘인력발전소’로서의 위상을 가짐.

■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한 매개자의 역할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 외 거의 모든 크루는 끊임없이 인력 양성과정 참여자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함.
- 이들은 각각의 상황, 욕구, 활동 경험 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적절한 사업에 연결하는 등 도시 내부에서 활동 인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임.
- 따라서, 도시 내에서 인적자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주민이 활동가로, 기획자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매우 주목해야 할 지점임.
- 한편, 문화도시라는 일종의 ‘열정의 장(場)’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쉽지 않은 역할이며, 이러한 매개 및 촉진 역할을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매개 및 촉진 역할의 효용성을 고려할 때, 인력 양성과정에서 좀 더 강화해야 할 역할임은 틀림없음.

2. 도시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사업의 방향과 제언

1)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방향

■ 문화도시와 인력 양성사업의 방향

- 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아 2024년 문화도시 대장정을 마치는 영도문화도시는 문화도시가 본래 지향한 방향으로 문화도시 이후의 일정을 만들어가야 함.
- 그러나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받았던 2019년과 현재 상황은 매우 다르며, 지속 가능한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혼란이 존재함.
- 그러나 문화도시 혹은 인력 양성사업의 본질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현재의 긍정적인 성과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문화도시를 하게 된 것은 정치 지형과 관련이 있지만, 보다 맥락적인 상황은 고도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자본과 자원의 집중으로 인한 삶의 격차가 사회 곳곳에 만연하여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있음.

- 따라서, 문화도시 혹은 문화도시를 만들어갈 지역문화인력 양성은 현재와 내용을 달리하더라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현재의 성과를 잘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임.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의 재구성

-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은 도시의제와 활동 방향이 일치되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긍정성을 가짐.
-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와 논의는 전문가들의 몫으로 되어 있었으며, 당사자 혹은 관계자들의 평가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은 일정 기간 다양한 참여자들의 성장을 공유하고 사람의 성장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담론장, 문화인력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공유와 확산의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구축하고 지역 내 협력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의 맥락을 재구성하는 방안으로 보임.

2) 도시문화 활성화를 위한 미래 인력 양성사업 제언

■ 사람의 성장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 대부분 기업에서의 인력관리(HRD)나 공공에서의 인력지원은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 자원을 평가하는 방식이며, 이는 자본주의 경제구조 속에서는 이견이 존재하기 어려움.
- 그러나 오늘날의 노동시장은 기업이나 공공의 기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기대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있음.
- 이러한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쟁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러한 간격은 문화·예술분야 노동시장에서는 더욱 극렬하게 전개되는데, 이는 새로운 일거리 창출, 창직의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음.
- 오늘날과 같은 전환기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많은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시문화를 활성화하고, 미래사회 감각을 가진 문화인력은 이러한 상황과 현실의 간격을 인식하고 다양한 상황에 수용성 있는 인력으로 자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따라서, 도시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사업은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궁리하고 실험하는 것 자체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인력 양성사업 과정에서 이 것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미래 문화인력양성을 위한 제언

-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래 그것이 5년 혹은 10년의 근미래일지라도 미래사회 문화인력의 자질은 궁리와 실험을 통해 스스로 구현하는 역량일 것임.
- 이는 기술을 포함한 인문 지식과 사회과학 지식, 자연과학 지식을 포괄하는 횡단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에 급급한 문화인력이 다양한 지식을 학문적 틀이 아닌 횡단적 넘나들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일상적인 학습의 보편화는 이후 인력 양성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이것을 학교 방식이 아닌, 보편 문화·예술교육으로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참고문헌

참고문헌

- 마사 누스바움, 『역량의 창조』, 돌베개, 2015
- 차민경,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2023 경기 마을임팩트 보고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4,
- 「2024년 기획자학교 기본계획」, 영도문화도시센터, 2024
- 「HGI 임팩트 리포트」, HGI, 2020
- 「문화도시 영도2025」, 영도문화도시센터, 2021
- 「부산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시 영도구
- 「영도문화도시센터연차보고서」, 영도문화도시센터, 2020
- 「영도문화도시센터연차보고서」, 영도문화도시센터, 2021
- 「영도문화도시센터연차보고서」, 영도문화도시센터, 2022
- 「영도문화도시센터연차보고서」, 영도문화도시센터, 2023
-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 문화체육관광부, 2023
- 권향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역할과 거버넌스의 변동 : 공공가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제15권 4호, 2020
- 김기룡 외, 「NPO 활동유형별 사회성과측정방법 가이드개발연구」, 서울시NPO지원센터, 2021
- 김기룡 외, 「NPO 활동의 사회적 성과산출을 위한 시범사례 연구」, 서울시NPO지원센터, 2020
- 김상철외, 「예술의 사회적 가치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0
- 김세훈,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 경향 분석」, 『문화산업연구』, 제15권 3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15
- 김수진, 「OECD 공간적 포용정책 동향」, 『국토』 제426호, 국토연구원, 2017
- 김정태외, 「NPO와 소셜 임팩트 프레임 워크 개발 연구」, 서울시NPO지원센터, 2014
- 더가능연구소, 「2023 경기마을임팩트보고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4
- 라준영외,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사회적가치연구원, 2023
- 문정호, 「포용도시 등장 배경과 의미」, 『도시문제』 52권 582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7
- 문화컨설팅 바라, 「2025 문화도시영도 지속타당성 및 포스트 문화도시 계획」, 영도

문화도시센터, 2024

문화원·장웅조, 「미션선언문을 통해서 본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추구가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 가치와 기업연구』 14권 3호, 사회적기업연구원, 2021

백효진, 「춘천시 도시환경 여건 인식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요 분석 연구」, 강원대학교, 2020

사회적 가치 연구원,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 volume.03, 사회적 가치 연구원, 2023

서우석 외, 「문화도시 사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문화경제연구』, 22권 1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19

이세규, 「장소애착이 도시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함평나비축제를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30권 4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최수진 외,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2019

최혜자 외, 「경기도 생활문화지표를 위한 정책 및 측정틀 연구」, 경기문화재단, 2016

최혜자, 「생태계적 관점에서 보는 인력양성사업 성과 및 개선방향」, 『문화와 노동의 방정식, 일거리』, 영도문화도시포럼, 2022

황진솔 외, 「소셜 임팩트 프레임워크 개발 후속연구」, 서울시NPO지원센터, 2015

머니투데이, “아마존 성장전략의 키워드 ‘플라이 휠’”(2018.3.13.)

Big-데이터웹사이트 홈페이지, <https://data.busan.go.kr>

UN SDGs 홈페이지, <https://sdgs.un.org/goals>

교육광장 <http://kice-magazine.co.kr/>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s://kosis.kr>

김해문화도시센터 <https://www.문화도시김해.kr/>

달성문화도시센터 <https://dsartc.or.kr/>

목포문화도시센터 <https://mpcc1897.or.kr/base/main/view>

문화도시 공주 <https://gjccc.or.kr/>

문화도시 부천 <https://culturebc.bcf.or.kr/user/main.do>

문화도시 부평 <https://www.bpcf.or.kr/bpcf/main/main.do>

문화도시 서귀포 <https://www.nojiculture.kr/>

문화도시 울산 <https://www.usculture.or.kr/>
문화도시 익산 <http://www.culturecityiksan.or.kr/>
문화도시 청주 <https://www.cjculture42.org/>
문화도시 춘천 <https://turn.cccf.or.kr/Main/index>
문화도시 포항 <https://culturecity.phcf.or.kr/>
문화도시시나미강릉 <https://sinami.co.kr/>
문화충전도시 영월 <https://blog.naver.com/ywulturalcity>
브라이언임팩트 홈페이지, <https://brianimpact.org/>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홈페이지,, <https://www.cses.re.kr/>
서울시NPO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ulpa.kr/>
수원문화재단 <https://www.swculture.or.kr/base/main/view>
영도구청 <https://www.yeongdo.go.kr/main.web>
영도문화도시센터 <http://ydct.or.kr/>
예술경영지원센터 <https://www.gokams.or.kr/main/main.aspx>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https://www.kawfartist.kr/>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https://www.wanjuculture.com/>
원주롭다 <https://원주롭다.kr/>
월드뱅크 라이브 홈페이지, <https://live.worldbank.org/>
유네스코 디지털 라이브러리 홈페이지, <https://unesdoc.unesco.org/>
의정부문화재단 <https://www.uac.or.kr/uac.php>
지역문화진흥원 <https://www.rcda.or.kr/home/kor/main.do>
천안 문화도시 <https://www.천안문화도시.kr/>
치유문화도시 고창 <https://gccc23.co.kr/>
칠곡문화관광재단 <https://www.chilgokctf.or.kr/ctf/main.do>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www.arte.or.kr/index.do>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
한국사회가치평가 홈페이지 <https://www.ksva.co.kr/>
햇살문화도시 밀양 <https://cafe.naver.com/mirimy2018>

부록

부록1.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그룹인터뷰 내용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그룹인터뷰 내용

1. 문화인력 양성사업 초기(2020~2021) 참여자 FGI 이슈별 분석

주요 이슈 참여자	내용
진입과정	- 성장환경을 통한 개인차 도출, 이전에 하던 일과 영도문화도시와 만난 계기 등
한수련 (라이스케이팅 대표)	- 영도 태생, 음식 전문가, 기획자 등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 욕구 - 케이터링 사업 초기의 기획에 관한 고민이 센터와의 접점 - 영도의 음식 전문가로 센터 섭외에 응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며 관계 형성 - 이후 “기획자의집” 생태과정(21년) 참여, 강연자였던 아트디렉터와 협업 등으로 관계 심화
정윤주	- 초등학생 때 영도로 전입, 어린이도서관 사서, 부산 중구 중심 활동가 -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중 문화다양성 워크숍의 진행자로 센터가 섭외 - 이후 센터의 “창의예술학교” 교육과정 설계 참여 - 영도 주민으로서 “기획자의집” 디자인 기획자 과정(20년) 참여
한정석 (영도한마음선원 재직)	- 외지에서 태어나 초등학생 때 전입 (원가족이 영주 토박이) - 코로나 사태 때 본업의 시간적 여유 활용 목적, 재밌는 일을 찾다가 “영도가 문화 학교” 지역 문화기록자과정(20년)와 “시민 크리에이터(영도소리기록단)”(20년) 참여
이유미 (꽃기리네 대표)	- 결혼 후 영도 전입, 코로나 사태 때 외부활동과 일상의 변화에 대한 욕구 - “기획자의집” 커뮤니티과정(22년) 참여. 이후 영도 토속 신앙 기록 동아리 참여 - 주변인들에 비해 역량 부족을 느끼지만 재미가 있어 참여 지속
성장기점	- 개인차 기반의 성장과정 도출 혹은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차 도출 ex) 참여사업 변화, 새로운 인사이트, 변화 결심 계기, 역할 변화 계기
한수련 (라이스케이팅 대표)	- 특정 사업보다는 다각도로 일어난 센터와의 관계 전반을 통해 기획에 관한 흥미와 역량을 강화 - 경험의 다양성이 높아지며 푸드 디자이너로의 성장 가능성 감지
정윤주	- 센터의 지지로 진행되는 사업을 보며 예술교육자로서의 성장 욕구 자극받음. - 활동가로서 관계에 관한 피로감이 있으나, 센터의 활동이 재밌어서 영도에서의 활동에 관한 욕구가 생김. - 영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관한 고민과 정체성을 찾는 의미, 영도에서의 삶을 지속하는 이유가 연관되어 작동함.
한정석 (영도 한마음선원 재직)	- 영도소리기록단 활동에 강사로 온 PD와 팟캐스트(부산 역사, 문화 주제) 시작 말을 계속하는 일을 하다 보니 지역 작은 행사의 사회를 보기도 함 - “내·일의 항해캠프”에 누군가 오면 영도 탐험을 함께 하는 일을 3년째 하고 있음.
이유미 (꽃기리네 대표)	-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개개인에게 매력을 느껴, 함께 무언가 하자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참여하려 함. - 엄마로서의 자리에만 묶여 있었으나, 사회로 나와 즐거움을 느끼는 지점을 찾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있음. - 크루들이 자신이 잘하는 일을 짚어주고 호명하여 주는 것이 좋음.

주요 이슈 참여자	내용
영향 관계	-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관계의 구체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 도출, 외화된 효과 감지 - ex) 센터와 나, 크루들과 나, 센터와 우리, 센터와 영도, 나와 영도 혹은 부산
공통이슈	- 주변인들이 영도 혹은 부산을 떠나는 상황에서 정주할 이유를 찾고 있음. - 크루(담당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인력을 즉각적으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행정 관련 지원 등), 센터가 하는 '판'의 설계가 진입과 기회로 작동함.
한수련 (라이스케이팅 대표)	- 센터는 외부업체 중 유일하게 계속 연락하는 단체. 자신이 성장하면 그다음 자리를 마련해줘서, 크루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낌. - 서울을 포함한 타지역보다 지금의 일을 영도에서 했을 때 더 이슈가 됨.
한정석 (영도한마음선원 재직)	- 새로운 분야와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이 좋음. - 마을지역이다 보니 길 가다 만나는 알게 되는 사람이 생긴 것이 재밌음.
변화체감도	- 성장과정&외화된 효과 분석 도출, 문화도시 만남 전과 후에 대한 자기/주변 인지 차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사업, 활동, 구체적인 자기 역할 등
공통 이슈	- 영도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 영도에 브랜드 가치가 생겼다는 것을 실감함.
한수련 (라이스케이팅 대표)	- 영도 기반의 활동으로 프로그램 기획 등 활동 영역이 커짐(케이팅 국한X). - 현재 기획자 겸 푸드디자이너로 방향을 잡고 포트폴리오 작업중. - 센터가 사라지더라도 영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계속 하고 싶음.
정윤주	- 현재 사람들과 영도를 돌면서 영도 디아스포라 관련 공부 하고 있음. 스스로의 정체성이 정리되어가는 것이 보임. - 성장 체감 부분: 업무기술적 부분,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확신(영도 주민으로서 이곳에서도 다양한 삶과 시도 가능함을 알게 됨), 다른 방식으로도 가족들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영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료들 만남 가능) - 문화다양성 관점과 감수성이 높아짐. - 문화다양성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반영하게 됨. - 센터에서의 활동이 성평등 확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유형과 세대의 사람들이 어울리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감성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한정석 (영도한마음선원 재직)	- 말씀씨가 좋은 편이라는 재능을 발견함. - 10년 동안 구상만 했던 팟캐스트를 센터 사업 참여 과정에서 시작함. - 성평등은 참여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인지를 높여줌. - 기후위기와 같은 주제도 센터 활동을 통해 인지하게 됨. - 영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도를 기반으로 세계와 연결되고, '누구누구가 영도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함.
이유미 (꽃기리네 대표)	- 무언가에 참여하고 해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낌. - 주변에 엄마로서만 사는 사람들,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같이 해보자고 지속적으로 권하고 있음. - 최근에는 센터 기획뿐 아니라, 관광이나 커피 산업 이야기도 많아짐.

2. 문화인력 양성사업 최근(2022~2023) 참여자 FGI 이슈별 분석

주요 이슈 참여자	내용
진입과정	- 성장환경을 통한 개인차 도출, 이전에 하던 일과 영도문화도시와 만난 계기 등
이혜지	- 2022년 "기획자의집" 성평등과정 참여를 통해 진입 (여성 직업인 3인의 경험 공유회, 여성 구직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시놉시스로 작성해보는 실험 프로젝트) - 센터에게 '영도생태문화축제' 기획단 참여를, 부산 청년 네트워크에게 본래 속했던 성평등 교육극단 참여를 권유받아 활동을 지속했고, 22~23년 "기획자학교" 협력크루로 참여함.
서윤미 (함께키움 대표)	- 영도에서 성장, 2021년 "시민동아리지원사업" 참여: 동아리명 '함께 키움'으로 진입하여 현재까지도 단체 형태로 활동 지속. 영도 내 문화격차를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해소해보자는 챌린지형태로 시작하여 교육공동체로 성장. - 22년도 "문화예술교육자 워크숍" 참여
이성영 (블루몬트페인팅 공방)	- 결혼 후 영도 이주, 2023년 "기획자의집" 커뮤니티 과정 참여(반려식물 프로젝트 '식집사') 이후 2023년 '영도다리축제'에 '영도 기억하기' 부스 참여로 이어짐. - 지인인 기존 참여자를 통해 "기획자의집"을 알게 되었고, 개인 공방의 홍보를 위해 진입했다가 현재는 주변에도 추천하고 있음.
김성윤	- 처음 "시민동아리지원사업" 참여했으나 중단. - 2023년 "기획자의집" 아카이브 과정 참여(뒷발을 일군 어르신들 인터뷰 아카이빙) - 현재 협력크루("시민동아리지원사업", "예술배달")
성장기점	- 개인차 기반의 성장과정 도출 혹은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차 도출 ex) 참여사업 변화, 새로운 인사이트, 변화 결심 계기, 역할 변화 계기
공통이슈	- 센터에서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재밌고 뿌듯함.
이혜지	- 센터의 사업 참여 이후 다른 일을 진행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동료들에 대한 신뢰가 생김. - "기획자의집" 사업 이후 "기획자 레지던시(이중 연결기획자 사업)"이 있어 프로젝트의 사업화와 구조화를 이룰 수 있었음.
이성영 (블루몬트페인팅 공방)	- 개인 공방 운영에 타인과의 교류나 지역에 대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기획자의집"에서의 실험 프로젝트 이후 타인과의 협력, 배움, 활동에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의지가 생김.
김성윤	- 현 담당 사업에서, 설계 주체보다 대상자(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많아, (어떤 일을 할 때) 대상자와 대상자의 변화에 비중을 두는 태도가 생기고 일의 '디테일'에 예민해짐.
영향 관계	-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관계의 구체성 을 통해 사회적 가치 도출, 외화된 효과 감지 ex) 센터와 나, 크루들과 나, 센터와 우리, 센터와 영도, 나와 영도 혹은 부산
공통이슈	- 센터의 사업을 통해 인간관계와 생활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됨. - 크루들은 격려와 조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역할을 마련해주기도 함. -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고민을 나눌 동료가 생긴 것을 실감.
이혜지	- 이전의 영도는 관광지의 느낌이 강했으나, 센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관계가 생기면서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게 됨. - 협력크루(2023년~)로 참여했을 때 제작한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일로 연결되거나 협업 파트너를 발견하는 것을 경험하고 관찰했음.

주요 이슈 참여자	내용
서윤미 (함께키움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김장의 양이 늘어나고 있음, 마을에 아이들의 보호자가 많아짐. - 통학로의 안전성이 떨어져 마을에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 마을을 떠나기보다 공동행동을 통해 마을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음. - 센터가 다른 기관과 달리 사업이 아닌 사람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인상적임.
김성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동아리 참여가 사회문제 대응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봄. ("시민동아리지원사업" '영도 맨발 구조대' - 맨발로 영도를 걸으며 쓰레기를 주움)
변화체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과정&외화된 효과 분석 도출, 문화도시 만남 전과 후에 대한 자기/주변 인지 차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사업, 활동, 구체적인 자기 역할 등
공통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공동체에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힘이 있다고 생각하게 됨. (서윤미, 김성윤) - 센터를 통해 경험한 영도의 문화적 시도와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을 고민 중임. - 타인의 존재를 긍정하는 태도를 얻게 됨.
이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관이 변화함. 커리어보다 나의 욕구와 흥미, 내가 사는 동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서윤미 (함께키움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대하고 콘텐츠로 풀어가는 삶의 방식을 얻음. - 문화예술이 단순한 감상과 배움이 아닌 감수성의 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인식하게 됨. -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느슨한 연대에 자신과 아이들이 속해있다고 인식 - 영도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김.
이성영 (블루몬트페인팅 공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기획자 레지던시(이중 연결공간)" 사업 참여하여 자신의 공방에서 커뮤니티 생성 - 센터로 인해 자신이 경험한 영도를 아이들도 경험할 수 있다면 영도 거주 의향 있음.
김성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자아감이 높아지고 주체성이 강화되는 것을 보며 문화예술의 가치를 실감함.

3. 문화인력 양성사업 외 성장인력 FGI 이슈별 분석

주요 이슈 참여자	내용
진입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환경을 통한 개인차 도출, 이전에 하던 일과 영도문화도시와 만난 계기 등
황수정 (스스로고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태생, 디자인 전공, 결혼 후 부산으로 다시 이주함. - 경력단절 경험이 있고 2020년에 창업, 2021년 영도 봉산마을 독립책방 운영자를 돕는 일로 영도에 와 센터의 디자인기획자 과정 참여를 권유 받으며 진입
김유화 (콘서트하우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도태생. 초등학생까지만 거주하다가 20대 후반 다시 영도 이주 - 예술(바이올린)을 했기에 센터가 생기자마자 자신의 존재를 피력함. - 20년 "'영도리빙아트프로젝트(이중 시민동아리 유쾌한 문화작당)" 참여. 센터 권유로 사업자 낸.
김미정 (모드니공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도태생 / 공방 겸 카페 운영 - 22년 센터의 영도 내 성과 체감되어 "뚝뚝뚝 예술가" 참여
배영건 (아포지테라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도 8년전 이주/ 자체 동아리 운영/ 바와 아포지테라스 공간 운영 - "동아리지원사업" 참여로 동아리 재정 도움, 활동 풍성해짐(다양한 재료로 체험, 전시 등)/ 센터 주최로 코로나 때 줌으로 칵테일 수업 강사도 함.

주요 이슈 참여자	내용
성장기점	- 개인차 기반의 성장과정 도출 혹은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차 도출 ex) 참여사업 변화, 새로운 인사이트, 변화 결심 계기, 역할 변화 계기
황수정 (스스로고 대표)	- 센터 디자인 기획자과정 참여자들과 팀을 꾸려 부산 벡스코 부스 참여, 공공디자인지원사업 참여 등 지원사업 참여로 커리어 쌓음(팀 구성원은 계속 변동) - 현재 참여디자이너 아닌 부디렉터/ 영도 브랜딩 사업 다수 참여(센터 디자인 관련 메인 파트너)/ 작년 문화도시 박람회때 영도 도시브랜드 디자인 발표
김유화 (콘서트하우스 운영)	- 2021~2022년 "똑똑똑 예술가" 참여예술인 예술가로 참여하고 "예술배달" 프로젝트 참여. - 센터에서의 활동 이력을 통해 예술인증증을 받았으나 예술인과 생활인의 경계를 고민하며 다소 지쳐 있음.
김미정 (모드니공방 운영)	- 22년 "똑똑똑 예술가" 참여하면서 '이웃'을 생각하게 됨. - "기획자 레지던시(연결공간)"참여/ "내일의 향해캠프"/ "YD빌드업클럽" 참여
배영건 (아포지테라스 운영)	- 센터에서 진행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새롭고 즐거움.
영향 관계	-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관계의 구체성 을 통해 사회적 가치 도출, 외화된 효과 감지 - ex) 센터와 나, 크루들과 나, 센터와 우리, 센터와 영도, 나와 영도 혹은 부산
황수정 (스스로고 대표)	- 영도 브랜딩 사업 참여하면서 개인 성장도 했지만 주민들의 디자인 감수성 높아짐 느낌 - 상업 아닌 공공디자인 다루기에 책임 크게 느낌. - 사업의 미래를 얘기하고 협업할 동료 생김. 심적 의지 됨.
김미정 (모드니공방 운영)	- 공예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나, 센터 덕에 뭉쳐서 활동하고 있음. - 시민들의 공예의식 수준 낮아 공예 분야 성장을 위해 지원 필요성 느낌.
배영건 (아포지테라스 운영)	- 센터를 통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됨.
변화체감도	- 성장과정&외화된 효과 분석 도출, 문화도시 만남 전과 후에 대한 자기/주변 인지 차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사업, 활동, 구체적인 자기 역할 등
공통 이슈	- 센터 덕에 많은 사람들과 연결됨. - 센터 덕에 다양한 사람들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을 느낌.
황수정 (스스로고 대표)	- 개인 성장/ 동료 생김. 지역 청년 디자이너들과 점점 생김.
김미정 (모드니공방 운영)	- 센터 덕에 강사로서의 역량 발휘, 점차 기획자로 변하는 단계에 있음. 역량 확대됨. - "YD빌드업클럽"은 기획자로서 이끌고 있는 사업으로, 영도 공예 의식 수준 높이는 데 목적, 공방 겸 카페 운영으로 개인사업도 진행 - 센터가 사라지면 부산의 다른 지원사업을 탐색하며 활동을 이어갈 예정.
배영건 (아포지테라스 운영)	- "YD빌드업클럽" 참여(아포지테라스 마켓: 주위 공방들 참여 및 공연도 진행한 반나절 동네 이벤트/ 센터 덕에 마켓 2회 진행. 차후 상가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 10월 초 진행 예정/ 우수 민간공간으로 지목되어 영도구청의 청년 네트워크 공간 분과에서 청년공간으로 아포지테라스 사용 가능성 엿보고 있음)

4. 예술마을PD FGI 이슈별 분석

주요 이슈 참여자	내용
진입과정	- 성장환경을 통한 개인차 도출, 이전에 하던 일과 영도문화도시와 만난 계기 등
박태양	- 결혼 후 영도 진입함. - 관광업계 마케팅 기획자였고, 현재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 겸 대학에서 관련 진 로 교육가로 활동함. - 기획자로서의 삶을 마을과 연결하여 자기 가치를 찾을 수 있단 생각에 센터 활 동("기획자 레지던시(연결기획자 지원사업)", 2023년 "예술마을PD", 2024년 "시민 동아리 PD")
김순자	- 주부로서 문화예술 영역 밖에 있었음. 2022년도 영도문화관광해설사를 하다가 알게 된 기획자의 집을 통해 진입("기획자의집" '모두의여행' 과정 지원→ 센터 에서는 생태과정에 맞다고 판단→생태과정에 있다가 센터와 논의하여 차후 모두 의여행으로 옮김)
김정미	- 11년도부터 도시재생 활동가, 마을활동가 겸함. 19년도부터 3년간 중구 원도심 창작공간(또따또가) 입주 작가(생태예술). - 창작공간 임대기간 종료 후, 문화도시로 선정된 영도 이주. "기획자의집" 참여.
성장기점	- 개인차 기반의 성장과정 도출 혹은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차 도출 ex) 참여사업 변화, 새로운 인사이트, 변화 결심 계기, 역할 변화 계기
박태양	- 자신이 지닌 경험들, 내적인 욕구들을 마을 사람들과 풀어내며 자기 힐링, 관계 를 형성하며 즐거움을 느낌.(문위크로 영도 정복-춤알못이 모여 무대공포증 극 복, '랩동아리들'-어릴 때 래퍼 꿈이 있어서 주민들과 랩 제작하는 활동도 함.)
김순자	- '모두의 여행'에서 노인, 장애인 대상 관광 명소(대형카페) 가보는 기획 진행. - "예술마을PD" 통해 어르신들과 관계 맺으면서 다양한 사람들 교류.
김정미	- "기획자의집"에서 프로젝트 진행, 이후 시민참여 사업(시민동아리 등)에서 생태문 화에 포커스 맞춰 진행. - 이후 센터에서 자신의 동아리에 '영도생태문화축제' 공간 연출을 맡겨 용역 수 행. 용역 수행은 큰 성장지점으로, 동아리가 단체로 가는 단계 겪었다고 생각 - 그 외 센터에서 수목 보호대 설치 작업을 예술인들과 함께 담당하도록 해주는 등 사업 담당하게 하여 동아리가 영도 환경예술단체로 성장 도움.
영향 관계	-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관계의 구체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 도출, 외화된 효과 감지 ex) 센터와 나, 크루들과 나, 센터와 우리, 센터와 영도, 나와 영도 혹은 부산
공통 이슈	- 센터가 관과 민을 연결하는 중간연결 잘 수행한다고 느낌. - 크루들은 주민들과 사업 참여자의 욕구를 연결하며, 각종 지원을 통해 사업화의 현실감과 효용감을 일으켜줌.
박태양	- 센터의 재정 지원은 비슷한 욕구를 지닌 이웃과 연대를 이루는 기반이 됨. - 다양한 주민과 연계를 초월하여 친구가 되고 한국에서 계속 살아도 되겠다는 마 음을 만들어 줌.
김순자	- '모두의 여행'을 통해 영도 내 도로, 시설, 장애인 접근성 생각하게 됨. - 나도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김.
김정미	- 생태가치에 있어, 개인보다는 사업을 통한 전달이 더 효과적인 것을 알게 됨. - 크루들이 센터와 관련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분위기를 형성해주어 네 트워킹이 원활히 이루어짐.
변화체감도	- 성장과정&외화된 효과 분석 도출,

주요 이슈 참여자	내용
	문화도시 만남 전과 후에 대한 자기/주변 인지 차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사업, 활동, 구체적인 자기 역할 등
박태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엔 타인을 경쟁 관계로 인식했고, 인풋 없는 아웃풋을 냈다고 생각함. - 현재는 이웃의 존재를 통해 나의 부족한 면을 해소하거나 채워진다고 느낌. - 영도는 주민이 기획자인 도시라고 실감함. - 문화란 주민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지난 5년 간 센터의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적 의식이 높아지며 도시 경쟁력이 성장했다고 느낌. - 외부의 우수인력이 영도를 바꾼 것이 아닌, 주민들의 성장에 예산이 쓰인 것을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 느낌. 센터가 주민 한 명 한 명을 작은 문화도시로 만들었다고 생각함. - 문화적 감수성 변화 생김. 성차별적 발언 등 센터에서 명시해주어 발언을 조심해야겠다는 의식 생김. - 다양한 주민들과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세대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함. - 현재 영도 청학동에 주민들과의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작업실 겸 사랑방 공간 조성 고민 중
김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는 나이가 많아 망설여졌으나, 센터에서의 사업에 참여하며 배움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지니게 됨. - 타인에게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영도를 알리는 일을 지속할 예정임.
김정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도 내 자기철학을 지닌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 - 센터가 사라지더라도 한 명의 크루로서 주민들과 문화적 소통을 이어가고자 함.

5. 문화인력 양성사업 사업담당자 FGI 이슈별 분석

주요 이슈 참여자	내용
개인	- 기본 소개와 특징, 진입과정
전소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사업 담당, 기획자학교 등 문화인력 양성사업 담당 - 문화도시 신규주체의 유도 역할, -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 영도에서 일어날 좌절감이나 퇴보의 예방 욕구
이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예술교육 공간 '보물섬' 운영,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 - 2021년 기획자의 집 과정 참여. 이후 협력 크루 과정을 거쳐 공채 지원.
한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팀 파트장, 내일의 항해 캠프 사업 담당자, 박람회 등 기획 - 2020년 크루로 진입
이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로 마을 담당, 동아리, 공간운영자 네트워크 등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 소통 - 2020년 기획자의 집 과정 참여 - 일반 사무직 종사자였고 취미로 춤을 춤. 코로나 시절 춤추던 공간이 문을 닫는 것을 보면서 취미로 좋아하는 것을 일로 바꾸는 것에 관한 고민이 시작됨. 기획에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때 '영도가 문화학교'를 만남. - 현재 개인적인 욕구 보다는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음.
사업 소개 및 평가	- 주요 사업 위주
전소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자학교" 사업 내 "기획자의 집"은 문화도시 초기부터 이어진 프로젝트. - 문화도시와 함께 성장할 사람을 찾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영도에서 활동을 이어갈 사람들을 찾는다는 두 가지 목표로 추진

주요 이슈 참여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고, 영도문화도시의 미션과 비전의 내용을 과정 설계에 심도 있게 활용하는 것이 일반 양성사업과의 차별점이었음. - 기획자학교 내에서의 프로젝트 수행 자체보다는 타 사업, 주변 프로젝트와의 접점, 인간관계 확장 등에 비중을 두고 진행함. - 부울경에서 전국까지 범위를 확대한 교류 사업, "연결기획자 지원사업" 등으로 타지역 및 다양한 분야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기획자의집"의 전신인 "영도가 문화학교"는 통합 과정 내의 분야를 세분화한 형식이었고, 각 분야의 크루(담당자)가 과정 설계까지 진행했었음. - (한예리 닷) "기획자의 집" 관련 : 양성과정은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떠올려서 설계한 것이 아님. 전소영과 한예리는 기획인력 양성사업을 과정으로써 경험했었고, 지원받는 활동 환경에 익숙해지면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통으로 지님. 이에 내 일을 찾아서 떠날 수 있어야 역량 강화가 되는 것이라는 고민 등이 담기게 됨.
운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도문화도시센터 전반을 다루되 "기획자의 집"을 중심으로
전소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마다 50명 정도, 3년 차인 현재 250명의 기획자 배출 - 영도 주민 60%, 타지역 40% 정도의 비율로, 타지역은 김해, 대구 등 다양 - 타지의 경우 교육 과정에 관심이 있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음. - "기획자의집" 출신은 크루로 합류하는 경우가 많음.
이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는 참여자와 사업 담당자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큰 재단(의 틀)에 비해 거리가 가깝다고 느낌. - 참여자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만들어오라고 요청하지 않고 등록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거나 세무 강연을 연결해줌. - 밀도 있는 소통과 협력의 경험이 쌓여 신뢰가 형성됐다고 생각함.
한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양성사업은 기획서를 쓰고 예산을 짜는 능력보다도 무엇을, 왜 하려고 하는지(욕구)를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둬. - 과정에 필요한 정보들은 오픈소스처럼 센터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의지를 지닌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크루 또한 개인적인 학습 욕구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개선해야 함. "담당자에게 사업에서의 당사자성을 부여하는 방식의 운영은 참여자와의 소통에 밀도를 높여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크루에 대한 신뢰를 높임" - 사업 전체를 담당 한 명의 크루가 전담(물뽕)하는 구조, 사업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어려움. (관련질문) 타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도 비슷하나, 과부하가 걸리면 특정 사업이 미추진 되기도 함. 어떻게 했나? (답변) 담당이 못하면 옆에서 추진함. 현 센터장이 미추진 사업을 남겨두지 않음. "일은 못할 수도 있어요 개인의 탓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못한 일은 옆에서 같이 (밤새서) 하면 됩니다." - 기획자의 집은 추진과정 속에서 사업 전체가 성장하는 형국임. 양성사업 초기와 비교하면 진입단계 참여자의 인원도 달라지고, 비즈니스(사업자)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기타	<p>(추가질문) 사업 설계 시 개인적인 역량 성장과 지역과의 연계 중 더 비중 정도 (아래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초기에는 사람 자체를 찾는 게 관건이었고, 2,3년 정도 경과 후이나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성장시킬 역량과 지역과의 연계를 고민할 수 있었음. - 개인 우선. 초기 역량이 발견되어야 성장이나 지역과의 연계를 고민할 수 있음. - 지역에서의 역할은 주민 스스로 발견해야 하며 센터는 협력자로서 위치함.

주요 이슈 참여자	내용
변화 지점	
전소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구조가 미리 변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에 따라서 사업이 다르게 진행되는 형국. - 비즈니스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고민에 따라서 과정이 만들어짐.
한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단계 참여자들은 무조건 어려워하지만, 어려운 단계 한 해를 지나면 다음 욕구를 발현함.
문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의식 전반과 문제의식과 대응 방안 등
전소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의 성장은 특정 사업이 아닌 센터에서 일어나는 일 전반을 종합으로 경험하며 이루어지나, FGI 섭외 과정에서 기획자의 집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우려됨. -> 인력 양성의 핵심사업으로서 때문에 의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상황 - (업무문화) 초창기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크루들은 센터의 업무 문화가 체화된 것에 비해 후기에 합류한 크루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태도의 차이가 큼. -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정 문제로 오래 끌고 가는 크루들은 이탈하는 경우가 많음. - 근무환경, 참여자와의 소통 문제 등을 감정문제로 남기지 않고 업무의 틀로 거리를 두고 해결하는 노하우가 크루들 사이에서 작동함. - (개인) 일에서 발생한 감정을 퇴근까지 끌고 가지 않는 성향. 주변 사람들의 역할을 연결해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내적동기로 오래 작동함. - 센터의 사업 중 외부로 발신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많아 내부의 상황에 비해 외부의 평가가 비약적으로 높다고 느낌. - 활동의 자생력이 생기기 시작했기보다 영도문화도시 전반이 활동 자체에의 진입단계라는 인상이 강함.
한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문화) 업무문화를 익히는 것은 '생존방식'에 가까움. 모든 크루는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투영해야 함. 지역의 데이터, 지역민의 습성 등은 일의 목적이 아닌 기본값으로, 이것을 활용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함. '자기다움'의 발견과 성장을 위해 직원 워크숍에서 회고나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시간을 가짐. 이는 크루의 학습욕구가 역동하는 시간이기도 함. - 내향성인 사람도 업무를 통해 외향성을 기르는 문화가가 있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물론 크루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크루와 참여자의 성장, 일의 다음 단계를 위한 경우엔 추가 노동이 발생해도 개인 안에서나 팀 안에서 균형을 맞추며 분담할 수 있는 상태임. - 문화기획은 특정 조직이나 영역에서만 하는 것도, 노력과 보상이 무조건 비례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함. 현재의 업무문화는 일이라는 전제를 두고 조직의 욕구와 구성원의 특징, 각자의 욕구들이 반영되며 주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임. - 활동이나 거버넌스 등의 자생력, 순환, 지속성은 내부에서 보기엔 견고하지 않게 느껴짐.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된 이후 구체적인 일거리가 사라지면 지속될 수 있는 활동이 많지 않을 것 같음.

부록2.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설문지 양식

영도문화도시 문화인력 성장 관점으로 본 임팩트 측정을 위한

설문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문화디자인자리는 영도문화도시센터의 의뢰로 '영도문화도시 문화인력 성장 관점으로 본 임팩트 측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기획자학교 등 영도문화도시 문화인력 성장지원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가져온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응답 소요시간은 약 15분 내외이며, 조사 결과는 통계적인 분석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응답 마감은 12월 3일 24시이며,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로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음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책임연구원 : (주)문화디자인자리 대표 최혜자

문의 /안내 : (주)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추일범 (02-2636-5253/churustme@gmail.com)

*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5,000원 상당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연락처 수집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 동의를 거부하셔도 응답이 가능하나, 답례품 발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수집목적 : 참여자 답례용 모바일 상품권 제공
- 수집항목 : 휴대폰 번호
- 보유기간 : 설문 조사 완료 후 파기
- 수집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동의하며 설문을 계속합니다.	연락처 수집 없이 설문을 계속합니다.	동의하지 않고 설문을 종료합니다.
①	②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신 분은 핸드폰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아래 문화인력 성장지원 과정 중 참여하신 사업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 응답자 맞춤형 조사로 대상이 아니신 경우 결과 반영 및 답례품 발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①	2020 도시기획자학교 (영도가 문화학교)
②	2021 기획자학교 (기획자의집, 여성기획자 NEXT STAGE in 영도)
③	2022 기획자학교 (기획자의집, 기획자 레지던시, 부울경 문화기획자 NEXT STAGE in 영도, 내일의 향해캠프)
④	2023 기획자학교 (기획자의집, 기획자 레지던시, 로컬문화인 쇼케이스&살롱 W.W.W)
⑤	2024 기획자학교(영도 로컬문화 비즈니스 스쿨/커뮤니티 지원사업, YD 도시연결자)
⑥	기타

■ 영도문화도시 문화인력 성장지원 과정 설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지금 생각하니, 영도문화도시센터는 기성 일자리를 찾기보다 일거리를 만드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하였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 지금 생각하니, 영도문화도시센터는 교육, 멘토링, 실험, 일거리 매칭, 동료 매칭 등 단계적으로 과정을 만들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3. 지금 생각하니,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참여자의 흥미를 관찰하고, 참여자가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4. 지금 생각하니,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참여자가 자기 가치와 목표를 통해 새로운 활동영역에 진입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5. 지금 생각하니,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참여자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는 물론 생태, 기술, 기후 등 관심과 관계를 확장하게 만들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 영도문화도시 문화인력 성장지원 과정에서 참여자 학습과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6.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하며 하고 싶은 일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7.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동료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좀 더 자극을 받고 성장하게 되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8.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가치,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관점이나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9. 나는 성장지원 과정이 재미있었고, 스스로 과정에 몰입하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0.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기획하는 방법, 실행하는 절차 및 행정 기술 등 실제 역량이 높아졌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1.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형성된 인간관계, 각종 네트워크로 인해 생각과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2.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주변 사람이나 사물을 보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등 실천적인 역량이 높아졌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3.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으로 새로운 일을 예측하고 기획하며 전체를 성찰하는 역량이 높아졌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 영도문화도시 문화인력 성장지원 과정에서의 참여자 역할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나는 도시의제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나의 취향에 기반한 기획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획을 구상할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5. 나는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방식을 인식하고 있으며, 주변 동료와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6. 나는 도시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으며, 도시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기 위해 내가 있는 영역에서 실천을 만들어 갈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 영도문화도시 도시의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17. 지속 가능한 실천이 필요하지만, 당신은 영도문화도시가 선정한 도시의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시 이미지 다각화	매우 그렇다 5 ----- 4 ----- 3 ----- 2 ----- 1 전혀 아니다
②	고립감 완화	매우 그렇다 5 ----- 4 ----- 3 ----- 2 ----- 1 전혀 아니다
③	교육 환경 개선	매우 그렇다 5 ----- 4 ----- 3 ----- 2 ----- 1 전혀 아니다
④	청년 일거리 확대	매우 그렇다 5 ----- 4 ----- 3 ----- 2 ----- 1 전혀 아니다
⑤	해양 생태오염 대응	매우 그렇다 5 ----- 4 ----- 3 ----- 2 ----- 1 전혀 아니다

■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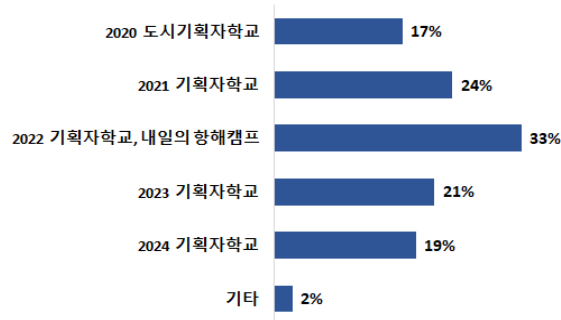
질문	문항
성별	① 여 ② 남 ③ 무응답
거주지	① 부산시 영도구 ② 영도 외 부산시 구군 ③ 부산 외 지역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직업	① 지역활동가 ② 기획자 ③ 예술가 ④ 연구자 ⑤ 자영업자 ⑥ 예술행정가 ⑦ 일반행정가 ⑧ 기타 ()
위 직업의 종사 경력 기간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부록3. 영도문화도시 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설문 응답 결과

영도문화도시 문화인력 성장 관점으로 본 임팩트 측정을 위한

설문 조사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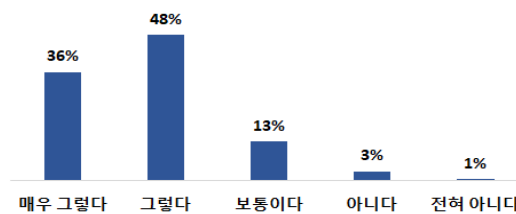
■ 응답자의 문화인력 성장지원 과정 중 참여 사업



(그림) 응답자 참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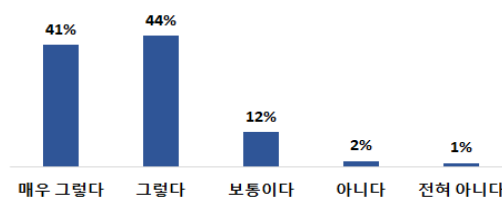
■ 인력 양성사업 설계에 관한 응답

1. 지금 생각하니, 영도문화도시센터는 기성 일자리를 찾기보다 일거리를 만드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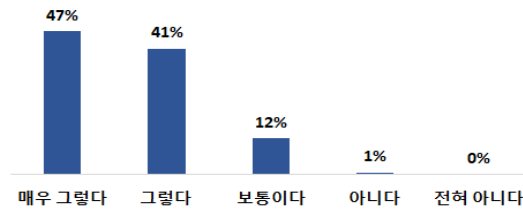
(그림) 일거리 창출 중심 설계 인식

2. 지금 생각하니, 영도문화도시센터는 교육, 멘토링, 실험, 일거리 매칭, 동료 매칭 등 단계적으로 과정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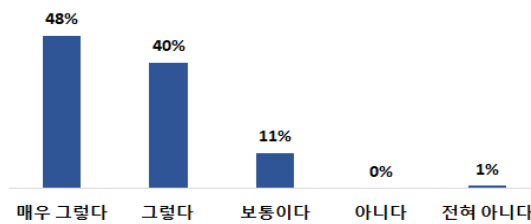
(그림) 단계별 설계 인식

3. 지금 생각하니,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참여자의 흥미를 관찰하고, 참여자가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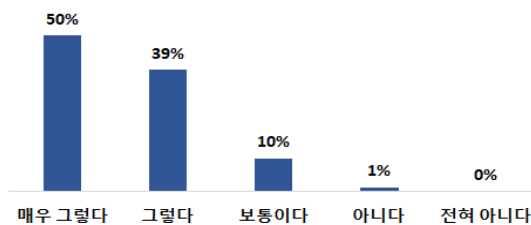
(그림) 참여자 중심설계 인식

4. 지금 생각하니,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참여자가 자기 가치와 목표를 통해 새로운 활동영역에 진입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그림) 참여자 촉진 설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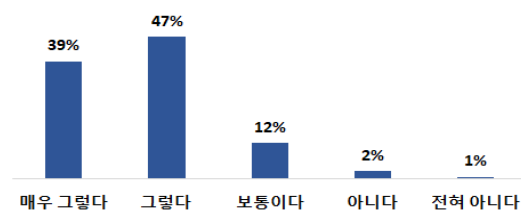
5. 지금 생각하니,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참여자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는 물론 생태, 기술, 기후 등에 대한 관심과 관계를 확장하게 만들었다.



(그림) 주체 간 관계 설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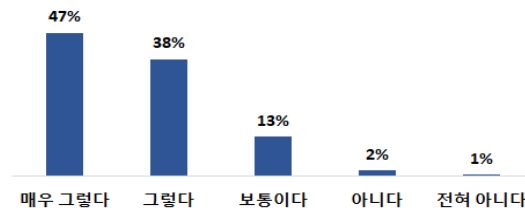
■ 참여인력 학습과정에 관한 응답

6.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하며 하고 싶은 일,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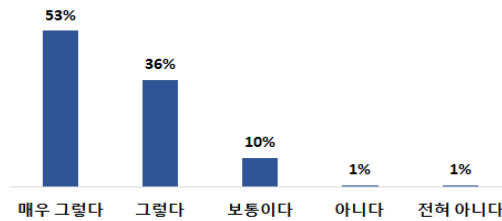
(그림) 진로 및 가치 발견 여부

7.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동료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좀 더 자극을 받고 성장하게 되었다.



(그림) 협력학습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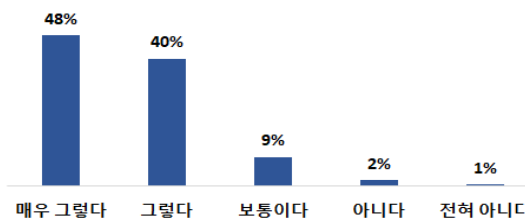
8.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가치,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관점이나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림) 기획 관점과 태도 습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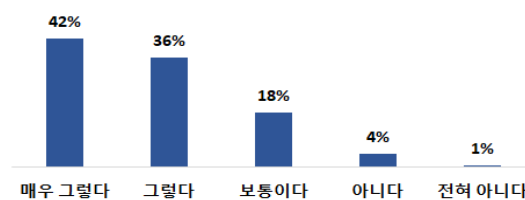
■ 참여인력 성장과정에 관한 응답

9. 나는 성장지원 과정이 재미있었고, 스스로 과정에 몰입하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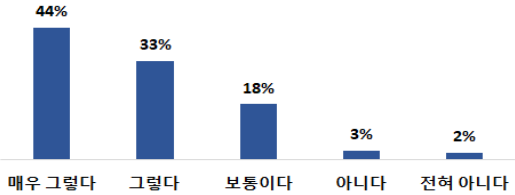
(그림) 자기 몰입과 자신감 획득 여부

10.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기획하는 방법, 실행하는 절차 및 행정 기술 등 실제 역량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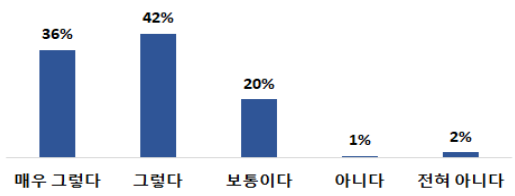
(그림) 실용 기술 역량 강화 여부

11.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형성된 인간관계, 각종 네트워크로 인해 생각과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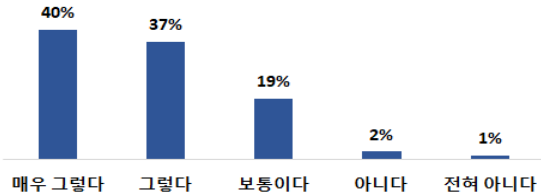
(그림) 생각 및 일상 변화 여부

12.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주변 사람이나 사물을 보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등 실천적인 역량이 높아졌다.



(그림) 실천 역량 강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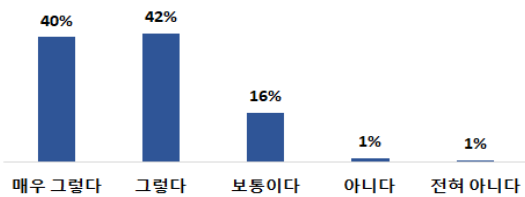
13. 나는 성장지원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으로 새로운 일을 예측하고 기획하며 전체를 성찰하는 역량이 높아졌다.



(그림) 예측, 기획, 성찰 역량 강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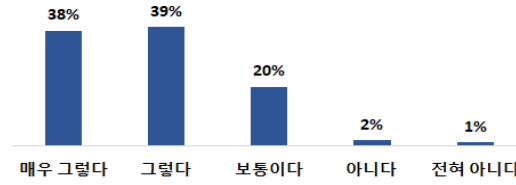
■ 참여인력 역할 확장에 관한 응답

14. 나는 도시의제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나의 취향에 기반한 기획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획을 구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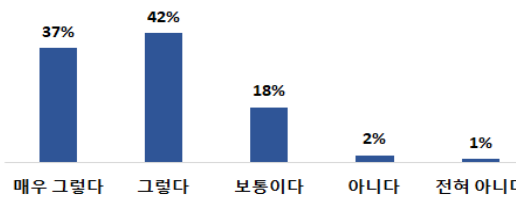
(그림) 도시의제 인식 및 지역사회 기획역량 강화 여부

15. 나는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방식을 인식하고 있으며, 주변 동료와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림) 지역자원 연결 역량 강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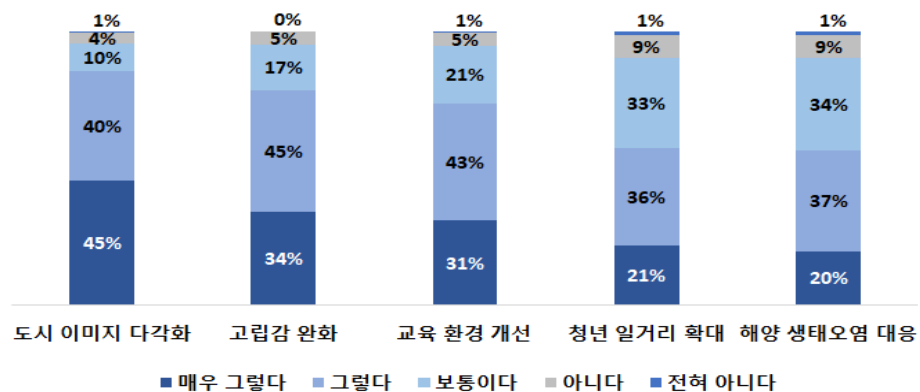
16. 나는 도시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으며, 도시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기 위해 내가 있는 영역에서 실천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실천 역량 강화 여부

■ 영도문화도시 도시의제 대응 정도에 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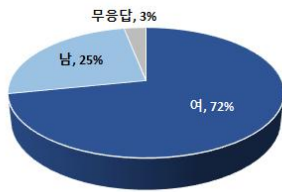
17. 지속 가능한 실천이 필요하지만, 당신은 영도문화도시가 선정한 도시의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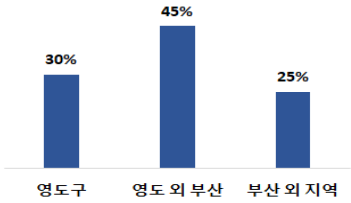
(그림) 영도문화도시의 도시의제 해결 정도 인식

■ 응답자 일반현황

- 응답자 성별 및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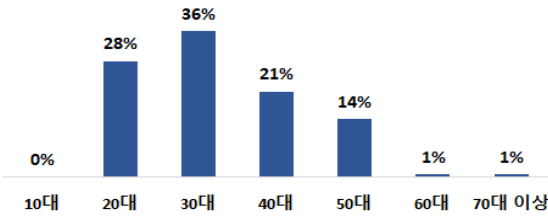


(그림) 응답자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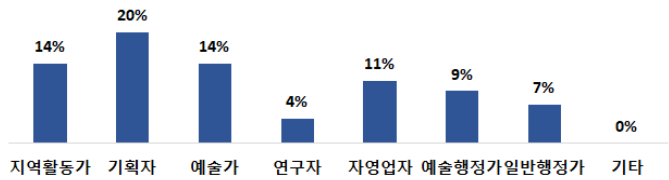
(그림) 응답자 거주지

- 응답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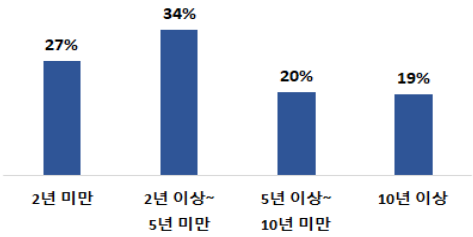
(그림) 응답자 연령대

- 응답자 직업



(그림) 응답자 직업

- 위 직업 종사/경력 기간



(그림) 응답자 직업 종사/경력 기간

